

전략과제 2014-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및 벨트화 육성 전략

김경태·이인배·권미정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 및 정책의 검토	7
1. 해양관광과 거점관광 관련 이론	7
1) 해양관광 관련 이론	7
2) 관광개발의 개념과 거점관광개발 모형	22
2. 국내 해양관광 현황 및 전망	4
1) 유형별 해양관광자원 현황	4
2) 해양관광객 현황	6
3. 해양관광 정책과 법규 검토	38
1) 해양관광 정책동향	63
2) 해양관광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96
3) 해양관광 관련법규	7
4. 해양관광 사례 분석	8
1) 멕시코 칸쿤	8
2) 랑그독루시옹	8

3) 카프리	91
4) 산토리니	94
5. 쟁점과 본 연구의 시사점	97
1) 쟁점	97
2) 본 연구의 시사점	99

제3장 충남 해양관광 실태와 과제11

1. 충남 해양관광자원 및 개발현황	11
1) 자연관광자원	101
2) 기타 관광 자원	106
3) 관광지 현황	110
4) 관광이용 현황	113
2. 충청남도 해양관광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	114
1)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	116
2)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1989)	117
3)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1, 2008, 2011)	121
4)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2012)	122
5) 충청남도 관련계획 검토 요약	124
3.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관광의 발전 과제	127
1)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유지	127
2) 거점 해양관광지 개발과 주변 연계 발전 방향 모색	131
3)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 구축	132
4)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33
5)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134

제4장 충남 서해안 거점관광과 관광벨트 육성 전략134

1. 접근개념과 추진방향	134
1) 충남 해양관광의 목표	134
2) 추진방향	134

2. 추진전략	136
1) 해양관광거점과 주변 연계 관광지구 조성	6
2) 서해안 생태체험과 해양체험 관광벨트와 네트워크 구축	61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의 구축	7
4) 지역의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	7
3. 전략별 주요정책 및 시책추진 방안	137
1) 천수만 거점관광지대 및 관광지구 조성	7
2) 생태·해양·역사문화 관광벨트와 관광명소 육성	6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의 구축	6
4) 지역의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	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1. 요약 및 정책제언	187
1) 이론 및 정책의 검토	188
2) 충남 해양관광 실태와 과제	188
3) 충남 서해안 거점관광과 관광벨트 육성 전략	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191

<표 차례>

〈표 1〉 국내외 학자의 해양관광의 정의	8
〈표 2〉 국내외 학자의 해양관광의 정의(계속)	9
〈표 3〉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의 비교	11
〈표 4〉 해양관광지개발에 필요한 법률체계	14
〈표 5〉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	16
〈표 6〉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해수욕장 중심형 해안관광지의 도입시설	18
〈표 7〉 마리나형 관광지의 시설구성	19
〈표 8〉 종합형 해안관광지의 시설구성	20
〈표 9〉 주제별 도입활동 및 시설검토	20
〈표 10〉 활동에 따르는 도입시설 검토	21
〈표 11〉 관광개발의 접근방법	24
〈표 12〉 관광공급대상의 시스템구성요소	32
〈표 1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의 영향요소	33
〈표 14〉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	36
〈표 15〉 우리나라 해수욕장 등급별 지역별 분포현황	50
〈표 16〉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51
〈표 17〉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	51
〈표 18〉 충남 해양리조트	53
〈표 19〉 해양리조트 시설의 개발 유형	53
〈표 20〉 충청남도 어촌체험마을	54
〈표 21〉 갯벌 및 철새도래지	55
〈표 22〉 갯벌 및 철새도래지	55
〈표 23〉 충남 향로별 수송객 현황	56
〈표 24〉 충남 향로별 취항선박 현황	57
〈표 25〉 충남 일출, 일몰 경관지	59
〈표 26〉 해양관광 증가 전망	60
〈표 27〉 연도별 크루즈관광객 증가추이	61
〈표 28〉 해양관광 관련 법률	64
〈표 29〉 어촌관광 관련 사업별 시설 지원 현황	66
〈표 30〉 어촌관광 관련 사업별 시설 지원 현황	66
〈표 31〉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 현황	72
〈표 32〉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의 관광부문 주요사업	76
〈표 33〉 해양관광 관련 법령	77

〈표 34〉 소관부처별 해양관광 관련 법령	79
〈표 35〉 칸쿤 개발 과정	83
〈표 36〉 해안선 및 도서(2012년 기준)	102
〈표 37〉 도서 인구 추이	102
〈표 38〉 자연공원	103
〈표 39〉 해수욕장 관광객 수(2012년 기준)	104
〈표 40〉 지역별 주요관광자원	105
〈표 41〉 문화재현황	106
〈표 42〉 자연휴양림 현황	106
〈표 43〉 축제현황(2013년 기준)	107
〈표 44〉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109
〈표 45〉 지정관광지	111
〈표 46〉 관광특구 지정 현황	112
〈표 47〉 충남 서해안권 관광객 추이	113
〈표 48〉 충남 해양관광지 관광객 수	114
〈표 49〉 충남 지정관광지 관광객 수	115
〈표 50〉 충남 지정관광지 관광객 수	115
〈표 51〉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 관광관련 주요 내용	117
〈표 52〉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	119
〈표 53〉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계속)	120
〈표 54〉 충청남도 종합계획상 해양관광 관련 사업	122
〈표 55〉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 상 해양관광 관련 사업	123
〈표 56〉 충청남도 권역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	125
〈표 57〉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1	128
〈표 5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2	129
〈표 59〉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3	130
〈표 60〉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4	131
〈표 61〉 천수만권 지역별 특성 및 개발계획 현황	140
〈표 62〉 천수만권 기존시설 및 계획상 도입시설 현황	141
〈표 63〉 천수만권 지구별 개발방향	144
〈표 64〉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안) 및 도입시설	145
〈표 65〉 간월호 지역 도입시설	147
〈표 66〉 천수만 동측지역 도입시설	148
〈표 67〉 천수만 서측지구 도입시설계획(안)	151
〈표 68〉 보령·안면도 연육교 지구 도입시설계획(안)	152
〈표 69〉 원산도지구 토지이용계획(안)	153

〈표 70〉 중국인관광객 선호 아이템	173
〈표 71〉 태안 비치 페스티벌(예시)	175
〈표 72〉 태안 건강 바다 음식 축제(예시)	176
〈표 73〉 주요 지역특산물 현황	178
〈표 74〉 서해연안 관광발전협의회 공동추진 내용	185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주요내용과 수행방법	6
[그림 2] 거점관광개발의 개념체계	26
[그림 3]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거점의 조화·조정관계	27
[그림 4] 관광공급대상설정의 구성요소	31
[그림 5] 거점관광개발 모형	39
[그림 6] 국내 주요 스포츠형 해양레크리에이션 공간	49
[그림 7] 대산, 대천지역 여객선 항로도	58
[그림 8] 권역별 해양관광개발권 기본구상	69
[그림 9] 남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구상도	73
[그림 10]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구상도	73
[그림 11]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구상도	73
[그림 12]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75
[그림 13] 칸쿤	83
[그림 14] 칸쿤 숙박관광객	84
[그림 15] 칸쿤 외국인관광객 국가별 비중	85
[그림 16] 칸쿤 및 멕시코 관광객 체류일	85
[그림 17] 랑그독루시옹 주요관광지구(도시) 위치	86
[그림 18] 개발 후 모습	88
[그림 19] 마리나	88
[그림 20] 카프리	93
[그림 21] 산토리니	95
[그림 22] 충남 해수욕장 현황	103

[그림 23] 해양관광자원	105
[그림 24] 지정관광지 현황	110
[그림 25] 개발 중 지정관광지	112
[그림 26] 충청남도 권역계획 변화	126
[그림 27]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 추진방향	135
[그림 28] 천수만권 개발 개념도	138
[그림 29] 천수만권 개발구상도	143
[그림 30] 부남호지구 개발 구상	146
[그림 31] 간월호 지역 개발 구상도	147
[그림 32] 천수만 동측지역 개발구상도	149
[그림 33]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계획(안)	149
[그림 34] 천수만 서측지역 개발지구(안)	151
[그림 35] 보령·안면도 연육교지구 개발구상(안)	152
[그림 36] 천수만권 관광·휴양벨트 종합계획도	155
[그림 37] 숙박업소 개선사업	162
[그림 38] 스토리가 있는 관광안내도 및 다양한 형태의 관광안내 책자	165
[그림 39] 대산항 국제관광프라자 조감도 예시	169
[그림 40] 은련카드	170
[그림 41] 가두리 낚시 체험	172
[그림 42] 독살과 어선체험	172
[그림 43] 보령 머드축제	173
[그림 44] 인천 중국문화관광페스티벌	174
[그림 45] 남당 대하축제	174
[그림 46] 보령머드 상품	177
[그림 47] 서천 한산소곡주 상품	177
[그림 48] 충남 무창포어촌체험마을	179
[그림 49] 농촌체험	180
[그림 50] 서천군 농촌체험관광 교육	181
[그림 51]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아카데미	182
[그림 52]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 교육	183
[그림 53] 전체 계획도	18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레저지향의 경향이 증대되면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12년 관광객이 92,999,092명으로 이 중 서해안 6개 시군(서산, 당진, 서천, 홍성, 보령, 태안)을 방문한 관광객은 48,620,758명(52.3%)이며, 충남의 전체 관광객 중 해양관광객의 규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7-8월 하절기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보령, 당진을 중심으로 관광객 집중 현상이 보이고 태안의 경우 유류피해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충남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절별, 지역별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계절 관광지를 위한 거점지역 육성과 지역별 차별화된 기능 배분 및 지역별 연계를 통한 관광 매력성 증대가 필요하다.

□ 해양관광 활동 패턴의 변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회변화는 관광행태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관람위주의 정적관광에서 체험위주의 동적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해양관광 활동패턴 또한 해수욕과 단순 해안조망형에서 참여·체험형으로 급변하고 있고, 해양관광 활동공간도 해안가에서 해상·해중·해저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세계의 해양도시들은 크루즈, 비치, 마리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배울거리 등의 해양관광 상품개발은 물론이고 해상항공레저, 관광위그선, 해중전망대, 해양수족관, 해중관람선, 해륙관광버스, 해상관광택시·버스, 해중·해상호텔, 해중레스토랑, 테마보트 등과 같은 차별성 높은 해양관광 상품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관광에 치중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충남이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매력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미흡

충남은 서해안 시대 대표적인 해양지역으로서 농·어촌과 산업이 공존하고, 산·바다·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어 서해안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서해안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존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사업(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안면도관광지, 서산바이오웰빙관광특구 등)들이 계획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고 충남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성 높은 특화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거점을 조성하여 충남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해양관광지역의 여건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양관광테마를 발굴하고 지역별 해양관광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활용 및 해양관광 거점지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지역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된 해양관광자원의 네트워킹과 벨트화를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양관광정책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충남 서해안에 위치하고 해안을 접하고 있는 6개 시·군(서산, 보령, 당진, 홍성, 서천, 태안)을 일차적인 지역 및 연계·협력권의 구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 서해안지역의 연계발전 잠재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 모든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 시간적 범위

이 연구에서의 시간범위의 경우 분석 기준연도는 2012-2013년이고 사업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단기, 중장기로 단계적인 접근을 하도록 한다.

(3)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세부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로서 해양관광의 개념과 거점관광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고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을 정리한다.

두 번째는 충남 해양관광지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충남 서해안지역 관광지의 현재 관광지 운영과 관광객 이용 현황, 계획 중인 관광지의 개발 현황과 전망 등을 다룬다.

세 번째는 해양관광과 거점 관광지에 대한 사례조사로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지의 거점관광지 조성 and 관광지별 연계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수행방법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관광지 개발 방식에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의 발전과정과도 유의미하므로, 해양관광과 거점관광개발의 이론을 검토한다.

또한 중앙 및 타 시도의 서해안 지역의 해양관광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정책을 검토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의 해양관광지 개발 방향을 비교·검토하여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새롭게 서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 시·군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현성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연구단계별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의 단계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필요에 의해 관련자료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토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관련이론 연구 및 정책 시사점 도출로 정책적 함의 도출, 중앙의 상위계획과 충청남도의 해양관광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실현가능성 측면의 검토를 위해 사례조사를 통해 계획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주제별 연구수행방법

첫째, 해양관광과 관광거점개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관광지 개발 관련된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거점개발 방식의 특성에 대하여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 개발 계획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이론을 정리함으로써 정책적 영역에서의 해양관광 개발의 의의와 판단 기준, 해양관광 개발의 특성과 개념의 변화를 정리하고,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을 도출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서해안 해양관광에 대한 개발 관련정책·사업 추진실태를 평가하였다. 해양관광 개발정책 및 사업 평가방법을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크게 정책의 내용(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집행(추진과정의 효율성), 사업성과(사업목표 달성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셋째,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관광의 발전방향, 과제 도출을 통해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공무원 등의 관계관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는 사업의 제안 및 계획내용의 수정·보완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주요내용과 수행방법

제2장 이론 및 정책의 검토

1. 해양관광과 거점관광 관련 이론

1) 해양관광 관련 이론

(1) 해양관광의 개념

해양관광은 현대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세계적으로 관광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으로서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수요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이재섭 외, 2003).

해양관광(Ocean Tourism, Marine Tourism, Coastal Tourism, Marine and Coastal Tourism, Marine Tourism and Recreation)에 대한 개념은 현재 명확하게 정립되진 않았지만,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양관광은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적인 요소가 많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고 보고 있다.

김병문(1987)은 “해안이나 바다를 활동무대로 행동하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가장 일반적인 해양관광의 개념은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안낚시, 고래탐사, 서핑경기 관람 등과 같이 해양활동에 초점을 둔 모든 여가활동을 해양관광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즉,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활동이고,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귀, 1998).

또한 해양이나 해양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관람, 운동, 휴양 등의 활동을 통해 감동을 얻는 체험과정을 말하기도 한다(도미경, 2004).

공간적인 측면에서 해양관광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이며, 해변, 해상, 해중, 해저와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 해양자원, 해양에너지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관광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혜영, 2006).

해양관광의 공간적 범위 중 해양은 해변, 해상, 해중 및 해저를 포함하는데, 도서는 해양 내의 육지이므로 해양관광의 범위에 속한다.

한편 해양에 접한 육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통상 해양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된 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해안은 수심이 낮고 해변지역의 갯벌 등의 발달이 우세하므로 이러한 자원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면에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고 모래사장도 발달하여 다양한 해변, 해중 이용이 가능하고 남해안은 이들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1〉 국내외 학자의 해양관광의 정의

학 자	정 의
박인태(1985)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도서, 바다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여가·관광 행위
이태우(1996)	•바다의 조망미와 더불어 해양스포츠, 레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해양성 복합자원인 기온, 해풍, 맑은 공기, 바다 색깔, 쥐위환경, 촌락형태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활동
황기형 · 마문식 (1999)	•관광활동의 본질적 동기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해양과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해양에 의존하거나 해안에서 특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
김성귀(2000)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
해양수산부(2001)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연안에서 이뤄지는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활동
장병권(2002)	•바다를 바탕으로 해변이나 도서, 어촌 등에서 관광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정석중 · 이미혜 (2004)	•일상생활을 벗어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양과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행태적 관광활동
신동주·신혜숙 (2005)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의 공간에서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를 하는 활동

〈표 2〉 국내외 학자의 해양관광의 정의(계속)

학 자	정 의
이재곤(2005)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
김성귀 · 홍장원 (2006)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
김성귀(2007)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관광행위로서,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에서 직 ·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을 의미
Pagh(1996)	•해양과 해변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창출하는 관광 · 레저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활동
Narlor(1997)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이며,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활동이고, 직 ·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
Basiron(1997)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의 공간인 해안과 해양에서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활동
Marks(1999)	•관광객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해양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Hall(2001)	•해양과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여가, 레크리에이션 지향적 활동
Garrod & Wilson (2003)	•물가, 해안에서 떨어진 앞바다, 해안지역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 야생 매력에 기초한 해양 생태관광과 해안 지역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적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Collins(2008)	•물과 인접하고 연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사륜 드라이브, 해변 캠핑, 바다 카약, 해양 생물 관찰, 스포츠 낚시, 경관구경 여행 같은 넓은 범위의 활동

자료 :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해양관광에 대한 정의는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으로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레저, 스포츠 활동, 바다를 바탕으로 해변이나 도서, 어촌 등에서 관광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 일상생활을 벗어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역과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행태적 관광활동, 해양이나 해양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관람, 운동, 휴양 등의 활동을 통해 감동을 얻는 체험과정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해외에서 정의되고 있는 해양관광을 살펴보면, 해양관광은 현대관광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

장하고 있는 분야인 연안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으로 정의, 즉, 해양관광은 해양과 해변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창출하는 관광·레저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고 이는 지역의 특성과 해양에 인접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그리고 지역을 이해하는데 제공한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해양과 해안지역에서의 생활체험, 교육, 경관 감상, 해상과 해중에서의 체험 활동, 심신을 휴식할 수 있는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서 관광객들이 공간의 기준이 되는 목적지에서 관광대상이 되는 해양 및 해양자원과 관련된 관광행위를 수행하는 정·동적인 관광활동 행위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성진, 2010).

(2) 해양관광의 특성

해양관광은 일반적인 내륙관광의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내륙관광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기상조건, 조류현상, 온도, 바람, 태풍, 조석현상 등 유동하는 현상인 바다를 접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며(이영진, 2009), 해양의 자연적·환경적·문화적 조건은 지구의 생성과 함께 고유한 특성을 축적해 온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이용에 한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내륙관광과 구분 짓는 해양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해양 혹은 해양과 인접한 연안이라는 점이다. 해양은 지역에 따라 수온, 수심, 조석간만의 차, 탁도, 바다 색깔 등에 차이가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 형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조류가 약하고 탁도가 낮은 동해안에서는 스낵스쿠버 활동이 적합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갯벌체험이나 채집활동이 적합하다. 또한 내만, 외해, 갯, 도서, 절벽 등 해역에 인접한 육지의 형상에 따라 활용 방법도 다양한데, 내만은 정온수역으로 마리나 등이 입지하기에 유리하며, 외해에 접해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은 지역은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활동적인 해양관광활동에 적합하다. 그리고 갯은 육지에서 바다경관을, 기암절벽은 바다에서 육지경관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해양관광은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관광형태이기 때문에 관광활동 측면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관광시설 측면에서 파도와 바닷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은 내륙관광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도서지역의 경우 운반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 측면에서 해양환경은 오염에 민감하며, 한번 파괴되면 복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시 주의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표 3〉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의 비교

구분		해양관광	내륙관광
관광 활동	안전성	•격변하는 해양관광과 더불어 안전이 일차적인 목표임	•해양보다 환경변화가 적은 내륙의 특성상 관광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떨어짐
	계절성	•기온, 수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절성이 높음	•계절성이 있으나 해양관광 만큼 심하지 않음
관광 시설	시설의 내구성	•바다의 파도, 바람 등에 견디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크게 요구됨	•육상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필요
	시설 투자비	•바다의 환경에서 견디기 위하여 투자비가 크게 요구됨	•일반적인 투자비 수준
환경영향		•오염에 민감하며, 해양구조물은 조류변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및 해안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번 파괴된 환경 및 생태계는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해양이용 시에 환경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	•상수원·하천 수질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해양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자료 : 김성귀(2007),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관광론, 현학사.

현재 해양관광 형태는 도서중심이 아닌 해안중심의 휴식과 휴양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당일형보다는 숙박형을 선호하고, 이용시기는 여름 휴가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관광 변화와 환경에 따른 해양관광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조건 및 환경에 대한 한계성

해양관광은 해양이라는 자연환경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해양관광활동은 해변, 해상 그리고 친수공간(Waterfront)에서 발생하고 있다. 요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한 바람, 일정 수준의 수심, 그리고 정온수역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태풍이 발생하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

에는 모든 해양활동은 중단된다. 해수욕을 즐기려면 일정한 온도와 잔잔한 파도가 필수적이다. 온도가 낮거나 파도가 심할 경우에 해수욕은 곧바로 중단된다. 해변 역시 아름다운 모래와 주변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라야만 한다.

국내의 해양관광 개발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그 이유는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 점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21세기 소비자들의 추세는 문화와 환경부문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방문 의사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해양 관광활동이 행해지는 해양과 해안지역의 오염 혹은 청정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광객들은 발길을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실질적으로 충남 태안의 경우 허베이 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후 복구 된 이후에도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해양수족관, 해양박물관 등의 인공적인 해양테마파크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해양관광의 모든 것을 보완·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을 개발함으로써 각종 오염배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도 초래하나, 해양환경보존에 관광이라는 요소를 도입할 경우 해양자원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다.

② 지역주민과의 마찰 발생

관광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관광지개발로 인하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시설이 설치된다든지,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는지,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교통체증, 오염배출, 소음, 범죄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며,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동질성을 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광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광사업자의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어촌의 76.9%가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추정하여 보면, 지역 주민들은 해양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소

득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강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질적 생활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착수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소시킬 수 있다.

③ 관련 법률의 제약성

해양관광자원을 효율적·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은 환경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레저 기능을 필요로 하는 관광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지 개발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해양관광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자 할 경우 법적인 기반이 미흡하며, 관광숙박업 중에서는 해상관광호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관광유람선업, 전문휴양업의 세부시설로 해수욕장, 수족관, 농어촌 휴양시설 등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일부시설에서는 단순히 등록기준만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부분도 있다.

국내에서 해양관광개발을 실시하기까지는 많은 법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해양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를 실시하려고 노력하여도 각 기관의 입장 차이와 주관 부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법적인 체계를 간소화 혹은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간에 강구해야만 한다. 현재 법체계는 해양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지만 숙박 및 놀이시설을 개발할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광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

〈표 4〉 해양관광지개발에 필요한 법률체계

관광개발 및 사업		개발입지/해역이용		해양레저안전
연안관리법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관리법	점·사용허가	해양교통안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휴양지 어촌종합개발	공유수면매립법	매립면허	선박안전법
항만법	항만친수시설 해양공원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선박법
수산업법	유료낚시터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전지역 특별관리해역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운법	여객운송사업 크루즈항로허가	수산업법	어장면허	개항질서법
낚시 어선법	낚시 어선법	항만법	항만지역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산업	어항법	지정어항	낚시어선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	습지보전법	습지지정	수상안전레저법

자료 : 법제처

④ 산업활동시설 위주의 해양개발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지 개발과 관련되어 대단위로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단순히 몇 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놓은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희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해양 한국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해양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저조한 상태이다.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해양과 관련된 개발형태를 보면 대표적으로 항만 개발이 있다. 인천항, 군산항, 여수항, 목포항, 마산항, 부산신항, 울산항, 속초항을 보면, 수출·입 화물을 통한 산업활동시설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규모 항만도 관광지로써의 기능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산업시찰위주로만 이용되고 있다.

해안어촌 마을과 도시와 인접한 항포구는 관광기능보다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열악한 기반시설로 관광기능과의 관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어민소득이 감소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어촌을 방문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항만과 어항의 친수공간 확보,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광기능을 제공하는 어촌·어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항만친수시설은 해양레저용 기반시설확충, 해양문화·교육시설 그리고 해양공원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⑤ 접근성 문제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광지와의 거리 및 접근성이다. 접근성이 편리하다면 목적지로서 적합한 위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상 주요 도로구성체계가 육상교통 위주로 되어 있고 해안지역은 간선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활동 목적지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안이 부족하여 기상조건에 따라서 결항이 잦아 해양과 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관광객들은 교통체증을 싫어하며, 편리한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등 관광지의 편리한 접근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관광지인 제주도의 접근방법은 항공과 해상교통뿐이기 때문에 기상변동으로 항로와 해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인 도로, 편의시설 그리고 현대화된 여객선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개발시 접근성 부분을 크게 고려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회사에서도 지역개발과 운영이익을 위해서 접근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다.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회사를 유치하려는 전략보다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시설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3) 해안관광지의 개념과 개발형태

해안관광지의 개념은 해안에서의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활동성레저가 주를 이루는 관광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비치나 마리나를 핵으로 다양한 해양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숙박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점에서 기존 산악형 관광지와는 구별되고

있는데, 바다 특유의 기상 및 해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용일수가 짧은 것이 단점으로, 이를 극복하고 사업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스포츠(Indoor sport)시설 및 영화관 등의 다양한 위락시설을 배치하고 각종 강습강좌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시설,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해안관광지 개발은 일반적으로 육지부, 해안지역, 해양지역의 3개소의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육지부 개발이라 해도 바다와 일체가 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의한 인공섬이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인공적인 해안선과 육지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해안역 개발은 마리나(Yacht Harbour) 및 해수욕장(Beach)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수영장 등의 시설이 추가 되어 이루어진다. 물론 해양스포츠의 발진기지 역할도 하고 낚시나 해양공원의 장으로서도 중요하다. 해상개발은 오래 전부터 소형관광유람선 및 낚신패로부터 호화 여객선에 의한 세계일주 여행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용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선박이라고 하는 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이벤트 유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트활동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

형 태		내 용	
개발 형태	해수욕장형	•모래사장을 살린 해수욕장을 핵으로 하는 기지	
	마 리 나 형	•활동적 수면을 살린 마리나를 핵으로 하는 기지활동	
	종 합 형	•해수욕장과 마리나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지	
이용 형태	당 일 형	•시장에서 1시간권	
	주말 이용형	•시장에서 2-3시간권	
	체 제 형	•시장에서 6시간권	
규 모 별	소 규 모	•동시수용력: 0.1~0.3만인급, 연간이용자: 5~10만인급	
	중 규 모	•동시수용력: 1~3만인급, 연간이용자: 50만인급	
	대 규 모	•동시수용력: 3~5만인급, 연간이용자:100만인급	
개 발 방 법	신규개발형		•새로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수용에 대응
	기 능 전 환 점	현 상 유 지	•안정할 만한 대상이었으나, 개발은 눈에 띄지 않고 시장성이 나 쁘고 수요를 거의 기대하지 못한다.
		보 수	•지반이 참하된 기존지구의 재개발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변경하 거나 개수
		개수 /확대	•기존개발지구의 개수를 피함과 동시에 개발지구를 확대하고, 새 로운 수요에 대응
		고 도 이 용	•도시부와 도시근교에 있어서 재개발로 레저기능을 회복

해안관광지 개발의 형식에 관해서는 크게 해수욕장 중심형, 마리나형, 종합리조트형 등으로 구분되며, 개발방법에 따라 기존 시설의 개수 및 확대형, 어항 등의 타 시설을 전용하는 기능 전환형, 신규개발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당일 이용형, 주말 이용형, 장기 체제형 등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리조트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해안관광지 개발 형태별 분류 및 특징에 관한 사항은 위의 <표 5>와 같다.

(4) 해안관광지의 형태별 개발방향

해양관광지의 형태별 분류에 따라 지역이나 크기는 국가적인 상황,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사회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욕장 중심형 개발의 형태를 보이는 곳으로는 해운대와 경포대 해수욕장 지구가 있으며, 마리나형은 부산 수영만 지구를, 종합리조트형으로는 충무 도남, 제주 중문관광단지를 들 수 있다.

① 해수욕장 중심형 관광지

지형적으로 모래해변이 길고 넓으며, 조용한 바다와 비교적 온화하고 쾌청일수가 많은 기후 여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개발에 적합한 형태이다. 활동 종류는 해수욕이 주가 되나 급류타기, 담수폴장 등의 육상위락단지의 활동종류도 함께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이벤트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변축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또한 비수기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나 모래스키(Sand buggy), 랜드요트(Land yacht)등의 활동을 도입하기도 한다.

해수욕장 중심형 관광지의 도입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표 6>과 같다. 이와 같은 시설의 도입과 레저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요구되며, 배후지와 기온, 바람, 태풍, 천기일수 등의 기상조건, 수온, 수질, 조류, 파고, 해양지질 등의 해양조건 등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수욕과 활동을 공유하는 레저활동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해변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공유 활동의 도입을 위해서는 서로 활동장에서의 중복이 생기거나 어업, 양식 등 생산활동과 마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역 및 육지의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표 6〉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해수욕장 중심형 해안관광지의 도입시설

구 분	필 요 시 설
수 영 시 설	• 수영해수역, 보트전용 출입구역, 다이빙대, 임대 보트, 용구대출소, 담수풀장, 미끄럼대, 보트세일링 수역, 서핑수역, 방파제
위생/탈의시설	• 탈의장, 귀중품 보관소,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욕실
휴게/편의시설	• 간이휴게소, 식당, 매점, 음수전, 피크닉장, 광장, 벤치, 시계탑, 보관시설, 수영용품 대여소
관 리 시 설	• 관리사무소, 감시전망대, 구호소, 파출소, 매표소, 유실물 관리소, 미아보호소, 안내소, 식당, 보호 울타리
경관/보호시설	• 수림지, 야생지, 화단
놀 이 시 설	• 어린이 놀이장, 야외 경기장,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교 통 시 설	•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터미널
숙 박 시 설	• 호텔, 여관, 민박, 캠핑장, 휴양촌, 보양촌, 연금생활자촌

② 마리나형 관광지

마리나형 관광지 개념은 개별시설인 마리나를 핵으로 하고는 있으나, 부대시설 설치와 일체적인 주변정비를 통해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마리나 기지로서의 시설집적 및 번창과 지역과의 연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된다.

입지조건에 따른 분류로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형태와 매립 등에 의한 신규개발형, 기존의 어항을 이용한 재개발형 등으로 구분이 된다. 개발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개발형과 민간개발형으로 나누어지며, 이용보트의 특성에 따라 소형보트 중심 또는 소형요트 중심, 마리나와 중·대형보트 중심 또는 중·대형요트 중심 마리나로 나누어진다.

〈표 7〉 마리아형 관광지의 시설구성

구 분			구 성 시 설
기본 적 기능	외 형 시 설		• 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 파랑방어 및 해안보호시설
	보 관/ 계류시설	수역	• 고정잔교, 부잔교, 계선항, 부표, 급수/급전 시설
		육역	• 선박보관소
	상하이동시설		• 램프(Ramp), 지게차, 크레인
	수리/급유시설		• 기계수리시설, 선박수리시설, 급유시설
	클럽하우스		• 레스토랑, 탈의장, 보관함, 샤워실, 쇼핑시설, 매점, 연수실, 화장실, 로비
	관 리 시 설		• 관리사무소, 구난구조시설, 통신시설, 감시전망대, 관제시설, 기상 및 해상정보제공시설
부가 기능	주 차 시 설		• 주차장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시설		• 담수풀장, 테니스코트, 낚시터, 유원지, 이벤트광장
	숙 박 시 설		• 임대별장, 리조트 호텔

③ 종합형 해안관광지

종합형 해안관광지는 연중 온화하고 저습한 기상조건, 대도시 시장과의 근접성, 교통조건의 편리성 등 혜택을 받은 환경조건,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장기체제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지향한다. 본격적인 종합관광지를 위해 육상에 골프장, 승마 클럽 테니스 클럽 등 각종 스포츠 시설, 박물관, 고급의류, 악세사리 등의 쇼핑시설, 공예품 및 미술품 전시판매장, 식도락을 위한 레스토랑 및 식당 등을 집적시킨 도시 시설 및 여가시설의 설치도 필요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는 해양성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나 일본의 경우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악고원형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형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해안관광지는 대규모의 평탄한 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가도 그만큼 비쌌 뿐만 아니라 방파제 등의 주변시설의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표 8〉 종합형 해안관광지의 시설구성

구 분	주 요 시 설 형 태
해양레크리에이션 시설	•마리나, 해수욕장, 해안공원, 바다낚시공원, 다이빙대, 보트세일링 수역, 서핑수역, 담수풀장, 유람선, 해양조류공원
주변레크리에이션 시설	•골프코스, 승마장, 테니스코트, 라켓볼장, 롤러스케이트, 볼링장, 공원, 실내체육관, 유원지, 산책로, 야간 레저시설
관광/문화 시설	•회의장, 극장, 음악홀, 야외음악당,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관광잠수선, 해중전망탑, 해상자료관, 선박박물관, 어업자료관, 지방 특산물 전시장
숙 박 시 설	•호텔, 콘도미니엄호텔, 여관, 연금생활자촌, 민박, 휴양소, 별장, 리조트맨션, 캠프장, 방갈로
행정/서비스시설	•행정기관, 관광안내소, 여행사 대리점, 대중교통시설, 경비행장, 택아소, 하수처리장, 주차장
의 료/건강시설	•병원, 진료소, 요양소, 의료원
상 업 시 설	•음식점, 토산품점, 식료품점, 일용잡화점, 고급잡화점

〈표 9〉 주제별 도입활동 및 시설검토

주 제	도 입 활 동	시 설
물 (바다)	•스킨스쿠버다이빙, 스노켈링, 수상스키, 제트스키, Ballon Tour, Para Sailing, 수영, 보트타기, 낚시, 겨울바다구경, 조정, 카누타기, 유람	•수상분수쇼, 수상스타디움, 수변조각공원, 유람선, 관광돛단배, 산호초, 페달보트
갯 벌 (해변)	•Air Boat타고 갯벌질주, 관찰, 해산물 채취대회, 해변에서 Race, 해변승마코스, 해변컨서트, 레이저쇼, 연날리기,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기타 special events 개최, 갯벌바자회, 체력단련, 낙조구경	•보트, 해변무대시설, 체력단련코스
야간 (night)	•Night Magic Show, 야간식물원관람, 밤 낚시, 야간관광코스개발, 야간에 개장하는 주제공원관람, 야간축제행사, 문화행사참가	•식물원, 주제공원시설
악천우 또는 비수기	•실내 Water Fun Park, 실내 Sauna, 승마, 눈썰매, 스키, 수렵, 겨울바다낚시, 겨울수상활동, 전시관, 박물관 관람	•유홍위락시설, sports complex, 승마 course, 인공눈썰매장, 겨울 등반course, Ice rink (호수), Race Park

그러나 관광패턴의 변화, 경제적 수준의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관광지개발을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관광시장이 협소하고 계절적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단일 아이템(item)에 의한 위험요소를 줄이고, 다양한 관광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대규모 시설의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에 대한 계획이 마련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해양종합 리조트단지에 필요한 시설로는 다음 <표 10>과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수변관광지의 도입활동 및 시설은 대상지구의 자연, 인문조건, 이용상황 등을 기초로 도입활동 및 시설을 검토하고, 관광객욕구에 부합되는 기본시설, 보완활동시설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도입기능 선정의 지구여건과 개발성격에 적합한 기능 등을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이용체제를 감안하여 선정하게 된다.

<표 10> 활동에 따르는 도입시설 검토

활동구분	주요도입활동	주요도입시설
관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탐방 • 야생동물, 조류, 식물, 해양관찰 견학 • 역사유적지탐방 • 드라이브여행 • 특정목적지의 위락시설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중전망탑, 해상, 산악전망탑, 수족관, 전망시설, 유적지, 사적지, 자연탐방로, 하이킹코스, 관광도로, 해양순환도로, 방목장, 주제공원(민속촌, Race Park, Water Park, Sea Life Park 등), 화훼단지, 조각공원, 수변공원
휴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 휴식, 휴게 • 쇼핑 건강진단, 삼림욕 • 스포츠활동 • 연수, 집회, 교육활동 • 산책,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해상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 골프장, 마리나, 해수욕장, 옥외 pool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테니스 코트, 낚시터, 레스토랑, 연수원, 청소년종합센터, 인공호수, 휴양촌, 재래식 수렵장
운동 및 놀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활동 • 수상활동(Motor boating, Water Skiing, Jet Skiing, Para Sailing, Yachting, Sailing, Wind Surfing 등) • 수변활동 • 유희(오락, 볼링, 당구, 양궁, 사격, 승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체육관, sports complex, 낚시장, 계류장, 물놀이장, 수상교육시설, 야외운동공원, Skate Rink, 승마course, Ski장, 눈썰매장,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교양 및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람 • 행사참가 • 정보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센터, 컨벤션센터, 기념공원, 도서관, 박물관, 실내외전시관, 미술관, Art center, 문화이벤트 플라자, 방송국, 상설시장, 뮤직극장, 영화관, 야외concert hall

2) 관광개발의 개념과 거점관광개발 모형

(1) 관광개발의 개념과 접근방법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의 정의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익을 증진시켜 관광자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한 관광개발과 관광지 관리보다 더욱 균형있는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이 요구된다. 즉,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은 관광개발의 대상지역부문, 관광개발상의 공간관계, 그리고 관광지역의 발전형태(발전단계)는 세 가지로 요약되며, 이들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한다(前田勇, 1984).

관광개발은 관광지역에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형태의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지역내의 관광요건을 제공하는 특별한 시설개발을 포함한다. 여기서 관광요건은 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두 가지 기본범주로 나눌 수 있고,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욕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관광대상의 개발은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개발로 구분되는데, 관광자원개발은 개별단위 관광매력물(대상물), 관광지(역), 관광단지, 관광개발소권, 그리고 관광권을 개발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관광사업개발은 관광숙박·상업시설의 개발을 비롯한 관광기반시설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은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개발 사이에 조화·조정이 되지 않아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영역 설정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지역개발의 유력한 수단이 되며, 지방화시대에는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관광개발의 경제외적 효과인 사회·문화·환경효과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은 경제적 효과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이 질적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광개발 과정이 관광공급대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관광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져 관광활동 및 시설이 획일적이고 지역적으로 특화되지 못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

광개발에 준거한 지역관광의 특화 및 거점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관광개발의 영역은 개발대상의 하위부분에 속하는 세 가지 유형의 관광지역을 가지는 데, 첫째는 여러 관광목적에 위해 매우 중요한 표적시장으로서의 도시지역이다. 둘째는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 서비스센터 사이를 연계하는 지역이다. 셋째는 자체가 최종목적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관광을 위해서 매우 중요시되는 하위 관광지역을 의미한다.

지역관광개발은 아마도 지역지구제(zoning)를 통해 개발목표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탄력 있는 관광환경과 취약한 관광환경을 매우 제한함으로써 관광활동을 어떤 지역에 집중 또는 분산하도록 고무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의 영역에 속하는 각 하위단위 관광지역을 연계시키는 전체적 개발계획이 중요시되는데, 이는 새로운 관광 지역에 잘 응용될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사회관광개발 보다 광범위하여 지역사회관광지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발초기에 대부분의 관광개발계획에서는 특별한 관광시장이나 관광 자원에 초점을 맞춘 비통합적 접근방법을 수용하였다가 점차 지역과 환경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수용하여 관광개발이 진행된다.

거점관광개발은 관광거점의 특성에 따라 국가거점관광개발과 지역거점관광개발로 이원화 되지만 실제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개발주체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거점 관광개발은 중앙정부가 되고, 지역거점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개발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점관광개발의 형태측면에서 보면 관광특구형, 관광단지형, 위락단지형, 그리고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형 등이 대표적이지만 관광특구형은 개발의 특성보다는 진흥정책에 특성이 강한 국가단위의 관광거점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개발의 접근방법은 공간구조론적 접근방법, 관광자원론적 접근방법, 수용력적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공간구조론적 접근방법은 관광공간의 배치, 발전적·진화론, 그리고 시스템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관광자원론적 접근방법은 관광수요시장 특성, 관광대상지역 특성, 관광행동의 특성에 따른 접근으로 구분되고, 수용력적 접근방법은 물리·생태적 수용력, 관리지향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

특히,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형·분산형 공간배치로 양분되는데, 관광공간분포의 집적정도에 따라 관광공간체계가 달리 형성된다.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분산전략(dispersion strategy), 그리고 조합전략

(combination strategy)으로 나눌 수 있다(P. E. Murphy, 1987).

〈표 11〉 관광개발의 접근방법

구 분	특 징
공간구조론적 접근방법	①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 : 집중, 분산, 그리고 조합 전략 ② 관광공간의 발전적·진화론적 접근 : 시간과 공간을 통한 관광공급대상지역의 공간발전에 따라 개발 ③ 관광공간의 시스템적 접근 : 관광혜택요소, 관광공급대상요소, 관광수요시장요소, 그리고 관광공간환경 등의 공간시스템
관광자원론적 접근방법	① 관광수요시장 특성에 따른 접근 : 이용자중심형, 중간형, 자원중심형 ② 관광공급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 : 고밀도위락지역, 일반 옥외위락지역, 자연환경지역, 자연독특지역, 원시지역, 그리고 역사·문화지역 ③ 관광행동 특성에 따른 접근 : 주류형, 체제형
수용력적 접근방법	① 물리적·생태적 수용력 접근방법 ② 관리지향적 수용력 접근방법 ③ 심리적 수용력 접근방법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①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집중적 관광개발은 중핵지역(core area) 또는 특별한 관광지구(tourist zone)의 형태로 관광공급대상지역 기획의 보편적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관광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시설과 서비스로부터 분리시키는 수법으로 전체 관광공간 구조내에서 체계적으로 조화되고 계획된다면 관광개발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업무지구(service business zone)를 조성한다. 결국 집중전략의 기획접근방법은 Smith(1980)의 관광중핵모형(tourism core model)을 공식화하고, Pearce(1978)의 선형 집적인 위락업무지구(recreation business district ; RBD)를 포함하고 있다.

② 분산전략(dispersion strategy)

집중전략이 관광공급대상지역에 압력 요소가 된다면 대안전략으로서 분산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분산전략은 관광공간과 주거·생산공간과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거점의 혼잡을 감소시키고 외곽지역 이점을 주기 위한 다핵이론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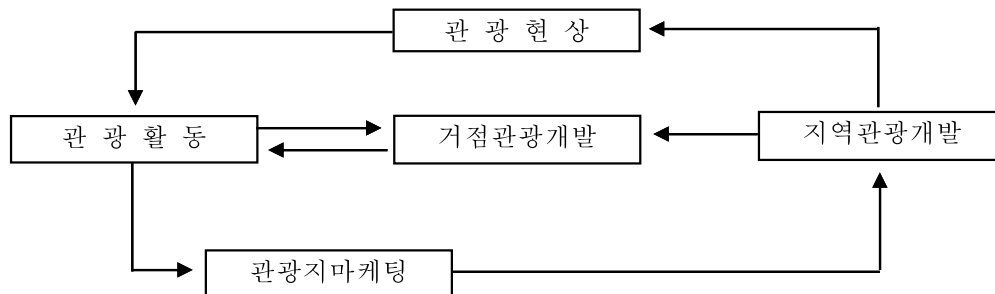
③ 조합전략(combination strategy)

집중과 분산전략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개발효과를 위해 집중전략과 분산전략의 각 요소들을 수용하는 수법이다. 집중개발에 기초한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은 규모의 경제 및 확산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급속한 개발로 대상지역의 사회문화·경제·환경문제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산전략을 이용함으로써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에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공간입지의 관광개발을 통해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과 여타 외곽관광지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조합전략의 중요성이 있다.

(2) 거점관광개발 체계와 목표

거점관광개발에서 거점(centre ; pole)은 관광자 및 관광대상(관광자원과 관광시설) 집중으로 관광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누릴 수 있는 관광중심지를 의미한다(S. Smith, 1983). 따라서 거점관광지 개발의 의미는 광의로 거점관광개발대상(관광단지, 위락단지, 그리고 도립,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등)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이고, 협의로는 거점관광개발대상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현재보다 나은 지역관광자의 여가·관광욕구의 충족,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수행(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등), 그리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은 관광현상 가운데 관광활동에 초점을 두고 관광지마케팅과 관광개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관광개발(integrated tourism development)’이라 할 수 있으며, 관광현상이 일정시점에서 특정의 관광활동을 도출해 내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림 2]는 관광현상 가운데 지역관광활동에 중심의 거점관광개발 개념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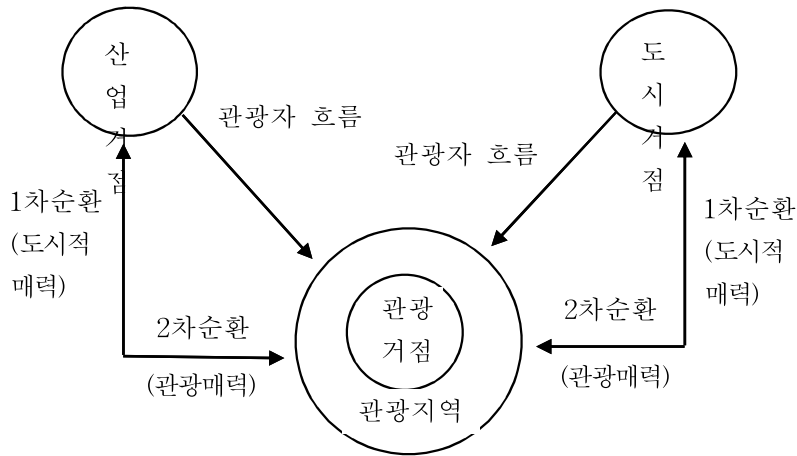


[그림 2] 거점관광개발의 개념체계

거점관광개발은 ‘장소정체성(place-identity)’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관광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장소정체성은 친숙한 환경에서의 추억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유지의 매우 능동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발전함으로써 결국 거점관광개발은 관광공급대상에 부여된 상징으로서의 관광자원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지역이 특정관광상품에 의해 특화되는 과정은 비교우위론적 입장에서 설명되어진다. 우선 거점관광개발지역이 다른 관광지역보다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 사이에서 지역관광활동이 능동적으로 조화·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점관광개발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집단, 그리고 민간부문이 각각 또는 조합적으로 그들의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적절히 확정된 관광지역 내에서 새로운 관광활동을 창출함과 동시에 관광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점관광개발에서 조화·조정 과정은 관광자의 흐름이 여러 관광지역 또는 관광지구로 이루어진다. 관광수요시장도 여러 도시를 형성하며, 관광공급대상지역도 역시 여러 관광거점(tourist poles)을 가지게 된다. [그림 3]은 단일거점으로 단순화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광자들은 물리적 또는 문화적 재균형을 위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전형적인 관광지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3]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거점의 조화·조정관계

관광개발의 일반적인 목표는 관광현상의 제반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Getz는 지역사회개발, 유적 및 환경보전, 문화정체성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복지, 그리고 생활의 쾌적성 유지 및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McIntosh and Goeldner는 관광의 경제적 편익을 통해 관광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제공, 관광객과 관광지역주민을 위한 위락시설 제공 및 기반시설 개선, 관광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자센터의 개발유형 확립, 관광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과 일치하는 개발프로그램의 확립, 그리고 관광객 만족의 최적화를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광개발의 목표에 준거한 거점관광개발의 목표는 ① 지역관광자의 여가·관광욕구 충족 ②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③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수행(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지원) ④ 지역발전(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그리고 낙후지역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환대성(hospitality)에 매우 의존해야 하고, 관광자원개발대상(관광상품)의 선택도 특화된 지역의 고유성(authenticity)에 준거해야 한다.

거점관광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잠재력은 다음 네 가지 조건에 의존하게 된다.

첫째,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부합하는 관광서비스와 관광시설의 제공이다. 이는 제공되는 관광서비스 및 관광시설의 질과 가격의 효과적인 결합조건이다.

둘째, 제공되는 관광서비스와 관광시설이 조합된 경우에는 숙련되고 경험있는 지역관광기획 및 지역관광마케팅조직체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부문과 지역민간부문-의 존재에 의해 거점관광개발이 고무될 것이다.

셋째, 지역거점 관광대상지와 관광시장의 지리적 입지로 효과적인 거점관광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넷째, 관광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투자재원의 특성(공적부문 · 민간부문)과 규모가 중요하다.

한편, 거점관광개발은 관광지역에서 관광거점 자체가 가지는 내부적인 지역관광 성장기능과 관광성장을 다른 관광지역으로 파급하는 외부적인 관광지 연계기능이 있는데, 두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관광성장을 유도하고, 관광성장잠재력을 다른 관광지로 확산시킨다.

둘째, 관광성장을 지속하는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공간적, 자원적 집적효과를 가진다.

셋째, 관광지의 고밀도 이용은 가격인하의 한 요인인 동시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적인 관광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전체관광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더욱 빠른 관광성장률을 가진다.

다섯째,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매우 높인다.

여섯째, 지역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지역관광이미지를 특화시킨다.

끝으로 관광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관광지마케팅전략을 수용한다.

거점관광개발의 수행은 독특한 관광요소를 특화시킴으로써 특성계획과정(personality planning process)을 추구한다. 이 과정은 첫째로 관광자원개발대상지역의 자연자원 특징, 역사적 · 민속적 · 문화적 자원의 특징, 그리고 지형을 포함한 특별한 특징을 묘사한다.

둘째는 주요지구의 구획(plotting of critical zones)으로 주요지구는 많은 관광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관광지역으로 출입루트와 같은 가시적 속성이 매우 중요시된다.

셋째, 각 주요지구내의 이용목표를 확립하는 것이다.

넷째는 이용목표에 기초한 전략프로그램의 공식화인데, 이 전략 프로그램은 거점관광개발 지역의 제반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관광거점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광특화를 모색해야 한다.

거점관광개발에 기능적 요소의 확립에는 관광자원개발기획 및 계획, 관광자원개발정책 및 규제, 개발상의 조사연구 및 예측, 관광지 마케팅, 그리고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등이 고려

된다.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계획은 지역에 있어 미래 관광성장의 질과 범위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거점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수변, 해변, 그리고 민속적인 근린주구(neighborhood) 중심의 관광 단지개발 기획,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한 위락단지개발 기획, 역사·문화적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개발 기획,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수용한 관광대상개발 기획 등이 중심이 되는 지역특화적 관광자원개발기획 유형에 기초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광자원개발기획이 가지는 문제점 -관광수요시장의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특성에 조화되기 어려운 점, 인적 서비스가 불충분한 점, 관광공급대상의 특화가 어려운 점, 그리고 관광자와 관광지 지역주민 간의 상호유기적 관계의 확립이 어렵다는 점 등- 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기획접근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

관광공급대상은 거점관광개발의 전체관광시스템이 주요 기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의 대상설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관광공급대상은 관광체험을 위한 물리적 장소의 환경으로서 여러 관광자원에 의해 특화된다.

둘째, 관광공급대상은 집적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공급대상 입지요소는 관광수요시장, 접근성, 그리고 서비스센터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즉, 관광공급대상은 관광수요시장으로부터 최적의 거리에 입지해야 하고, 관광공급대상과 관광 수요시장 사이의 시간거리가 중요시되며, 모든 관광공급대상은 서비스센터를 필요로 한다.

넷째, 관광공급대상은 관광자 유치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다섯째, 관광공급대상은 주유형과 체재형이 서로 다른데, 두 유형은 양립하기 어려우며 각기 특별한 개발수법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관광공급대상은 개발주체의 성격에 따라 변화된다.

끝으로 관광공급대상의 기능은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그 형태는 변화된다.

관광공급대상의 범주화에 대해 Lew는 세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표의문자적 관점(ideographic perspective)으로 관광공급대상을 개념화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법이다.

즉, 장소의 일반적 속성과 자연미, 유명장소, 기후, 문화, 그리고 사회적 특징을 포함하는 속성을 언급한다. 또한 이 관점에 준거한 다른 접근방법은 환경분석인데, 실제 또는 가상적인 장소의 여러 환경범주 -자연적, 인공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환경-들도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구성적 관점으로 조직의 관리적 부문이 아니라 공간적 부문으로서 공간, 수용력, 그리고 시간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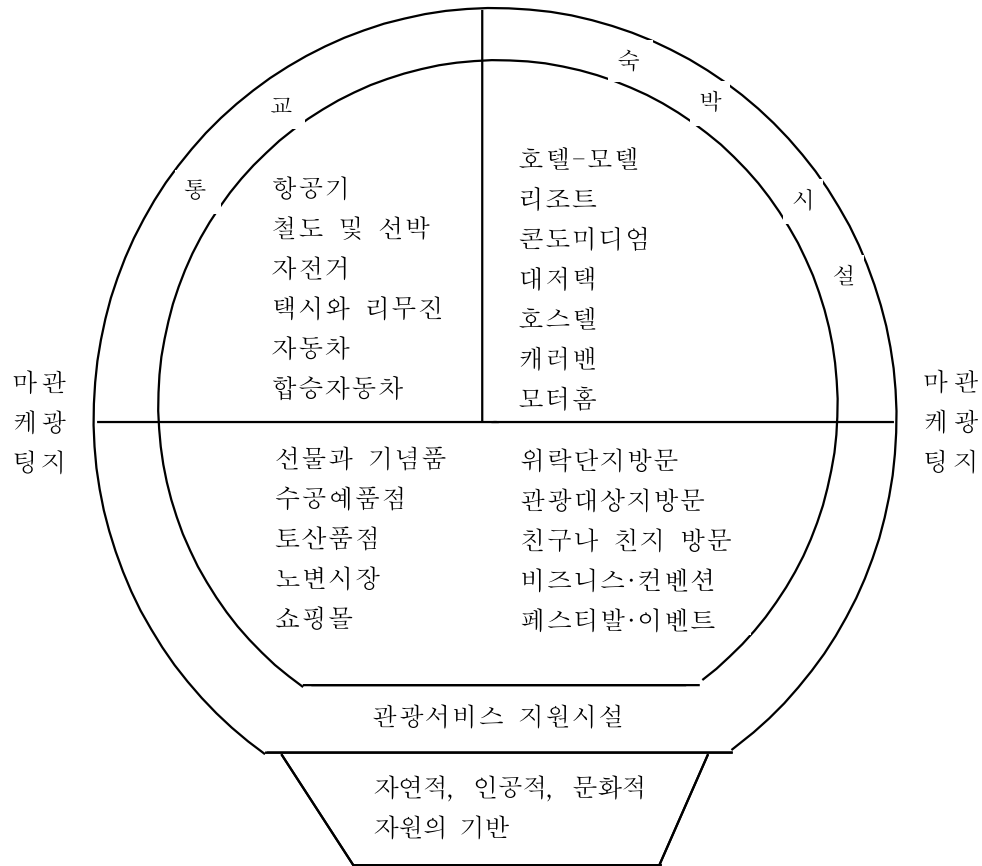
셋째는 인지적 접근방법으로 관광자의 인식과 체험에 따라 관광공급대상을 범주화한다. 이는 관광자의 체험적 속성에 준거하여 핵심유형을 분류하는데, 욕구, 동기에 기초한 심리적 요인에 따른 범주화는 그 욕구가 하나의 핵심유형을 의미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유형은 관광공급대상의 어떤 특징 또는 특성으로서 관광체험에 기초한 관광욕구와 동기가 개인적이므로 핵심요소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거점관광개발에서 관광공급대상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자연적·인공적·문화적 자원, 교통, 숙박시설, 관광서비스지원시설, 그리고 관광지마케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그림 4]와 같다.

거점관광개발의 관광공급대상요소는 토털관광제품(total tourism product ; TTP)으로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인식된다. 첫째는 자연 및 인문적(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인공적)관광대상이다. 둘째는 관광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이다. 셋째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접근성, 여행수단, 운영요소(시간/비용), 그리고 제약요소 등이다. 넷째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이미지이다. 마지막으로 총여행비용 등이다. 이 요소들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관광공급대상지역 토털관광제품(TTP)의 내부적 구성요소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실제 속성요소이다.

거점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공급대상설정의 주요 변수는 ① 관광자의 수와 유형 ② 관광개발의 단계 ③ 관광수요시장지역과 관광공급대상지구 사이의 경제발전 및 문화규범의 차이 ④ 관광인구밀도에 영향하는 관광공급대상지구의 물리적 규모 ⑤ 관광자의 관광제품 구매정도 ⑥ 관광지역주민의 관광시설 참여정도 ⑦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⑧ 지역관광자원개발 정책 ⑨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⑩ 관광공급대상지역에의 접근성 등이다.

한편, 거점관광개발의 대상설정에서 관광단지의 중심대상은 해양·산악 관광지역, 고대기념물·역사문화유적지이고, 위락단지의 중심대상은 주제공원, 야생적 관광대상(동물원, 사파리공원, 나비공원 등),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관광대상, 그리고 오락 및 여가공원 등이다.



[그림 4] 관광공급대상설정의 구성요소

거점관광개발상의 시스템 구성요소는 ① 시스템의 출발점 ② 지리적 범위 ③ 시스템 형성단위 ④ 조직관리 ⑤ 활동 ⑥ 환경 ⑦ 변화와 발전추세로 구분되는데, 이에 준거한 관광공급대상의 시스템 구성요소는 [그림 4]와 같다.

또한 새로운 관광공급대상개발 유형으로 첫째는 수변, 해변, 그리고 민속적인 근린주구 중심의 관광단지개발이다. 둘째는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한 위락단지개발이다. 셋째는 역사·문화적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개발이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수용한 관광대상개발 등이다.

결과적으로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의 영향요소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Fussell, Gold, Jafari, Gunn, Murphy, Middleton 그리고 Pearce의 연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소들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관광공급대상의 시스템구성요소

시스템상의 구성요소	관광공급대상의 구성요소
① 시스템의 출발점	① 최초의 관광공급대상
② 지리적 범위	② 관광공급대상의 지리적 범위와 한계
③ 시스템을 형성하는 단위	③ 숙박시설,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관광공급 대상과 관광자 선호를 포함하는 관광수요시장
④ 조직관리	④ 관광공급대상의 경쟁력 강화(시장경쟁력, 상대적 접근성, 관광수요분석) 및 자원관리
⑤ 활동(시간경과상의 시스템적 용방법)	⑤ 활동의 계절성, 일상적인 이벤트(페스티벌), 비일상적인 요소(기후 등)
⑥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정도	⑥ 지역경제조건, 상대적인 입지, 관광지 선호도
⑦ 변화와 발전추세	⑦ 개발결과 : 여가욕구의 충족, 관광공급대상지역의 발전

이상의 제요소 가운데 거점관광개발의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요소로 수변, 해변, 그리고 민속적 근린지구 중심의 관광대상, 주제공원 중심의 위락단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 유무, 관광시설의 적합성 관광대상의 매력도, 관광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계절적 특성 등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의 영향요소

연 구 자	특성 및 영향요소
1) Fuss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밀도 위락지역 자연환경지역 원시지역 저밀도 일반옥외위락지역 독특한 자연지역 역사·문화지역 고비용 위락지역
2) G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공급대상의 매력성 대안관광지의 이용성 관광공급대상지의 기후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자연적·물리적 특성 관광공급대상의 관리수준 관광공급대상의 수용력
3) Jafa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 음식, 교통, 여행사, 위락과 오락시설, 다른 여행서비스를 포함하는 관광상품과 서비스의 시장바구니
4) Smi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자수 체재기간 여행계절 사회·경제적 특징 지출비용 여행루트
5) Gun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모든 교통수단의 질과 양) 관광대상(질적인 관광자 만족을 위한 관광자원과 시설) 서비스(음식, 숙박, 관광제품의 질과 양) 정보 및 촉진
6) Mur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관광제품) 자본(관광시설, 접근성, 기반시설) 관광대상(관광자원, 환대)
7) Middle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지의 관광공급대상(자연적, 인공적, 문화적, 사회적 관광대상) 목적지의 시설 및 서비스(숙박시설, 식음료시설, 교통시설, 스포츠시설, 기타서비스) 목적지의 접근성(기반시설, 장비, 운영요소, 규제) 목적지의 이미지와 인식 가격요소(총여행비용, 숙박비용 등)
8) Pea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대상(자연적, 인공적, 문화적 특징물) 교통 숙박시설 기반시설 지원시설(기타서비스와 시설)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4) 관광거점개발 모형의 구성

관광개발에서 김홍운·김사영(1996)의 거점관광개발 모형은 대부분 예측모형과 기획과정 및 관광시스템과 같은 이론적 측면의 도식모형으로 구성된다. 이들 두 기초적 모형은 이론적 모형에 대한 과정모형으로 언급되므로 거점관광개발모형도 과정모형에 준거하고 있다.

많은 관광관련모형은 전체시스템 및 하위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관광공간규모에 적용될 수 있다. Romsa는 위락단지개발을 위해 가장 적합한 관광공급대상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고유한 물리적 특성, 관광시설의 종류 및 적합성,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한 기획모형을 묘사하였다. Baud-Bovy는 관광제품분석을 중심으로 한 PASOLP(Product Analysis Sequence for Outdoor Leisure Planning)모형을 묘사했는데, 이 모형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기획모형이다. 또한 Taylor는 세분 시장에 가장 적합한 관광공급대상개발이 되도록 기획을 유도한 시스템모형에 의해 관광지/시장조화모형(plant/market match model)을 개발하였다.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는 개발목표, 개발주체, 개발형태, 개발영향요인, 그리고 개발접근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준거로 조화·조정과정을 거친다.

우선, 개발목표의 설정은 관광자원개발의 장·단기계획 및 정책을 규명하여 자연발생적 관광개발을 통제·조정하면서 필요한 관광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기 위해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관광시설개발에 그 초점을 둔다. 거점관광개발의 개발목표로는 지역관광자의 욕구 충족,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그리고 지역관광균형발전을 제시하여 분석한 결과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도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지역주민주형, 그리고 제3섹터방식이 있다. 공공주도형은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중앙정부주도형으로 대별되고, 지방자치단체주도형은 다시 직영방식, 공사방식, 출자방식, 대행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동방식 등이 있다.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 지역민간기업주도형, 지역주민주도

형, 그리고 제3섹터방식이고, 개발형태는 지역거점이라는 지역성을 가짐으로써 관광단지형, 위락단지형, 그리고 도립·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영향 요인 -관광수요시장요인과 관광공급대상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관광수요시장요인으로 여행동기, 여행동반자 수, 여행거리, 자유재량소득, 이용여가시간, 여행선호도,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수, 여행비용, 여행체재기간, 그리고 이용교통수단을 변수로 조사 분석한 결과 여행동기, 여행거리, 이용여가시간,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수, 그리고 여행비용 등이 모형의 구성에 적용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으로 수변·해변·민속적 근린지구 중심의 관광대상, 주제공원 중심의 위락단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의 유무, 관광시설의 적합성, 관광대상의 매력도, 관광제품의 다양성, 여행의 계절적 특성, 그리고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를 제시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 유무, 관광시설의 적합성, 그리고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변수가 적용되고 있다.

개발접근방법요인 -공간구조론적 개발접근방법요인과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개발접근방법요인-을 보면 먼저 공간구조론적 요인으로 관광대상의 집중입지, 관광대상의 분산입지,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 경관 및 자연적 조건, 관광대상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 주변관광지와 연계, 배후도시와의 거리 지역관광이용권의 공간범위,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시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관광대상의 집중입지, 관광대상의 분산입지,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 경관 및 자연적 조건,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 주변관광지와 연계, 배후도시와의 거리, 지역 관광권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적용되었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요인으로 관광자원의 유형, 관광시설의 종류,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 개발상태, 개발기간,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에 관련된 제반 규제 등이 적용되었다.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

구 분		구 성 요 소
개발목표		① 지역관광자의 욕구 충족 ②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③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④ 체계적인 관광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⑤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⑥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⑦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⑧ 지역관광균형발전
개발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주도형 ② 지역주민주도형 ③ 지역민간기업주도형 ④ 제3섹터방식
개발형태		① 지역관광단지형 ② 지역단위 위락단지형 ③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형
개발영향요인	관광수요 시장요인	① 여행동기 ②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수 ③ 여행거리 ④ 여행비용 ⑤ 이용여가시간
	관광공급 대상요인	①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②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③ 관광수용력 ④ 관광시설의 적합성 ⑤ 연계관광지의 유무 ⑥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개발접근방법요인	공간구조론적 요인	① 관광대상의 집중입지 ②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③ 관광대상지의 분산입지 ④ 배후도시와의 거리 ⑤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 ⑥ 지역관광권의 인구규모 ⑦ 경관 및 자연적 조건 ⑧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 ⑨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요인	① 관광자원의 유형 ② 개발상태 ③ 관광시설의 종류 ④ 개발기간 ⑤ 주변토지이용의 관계 ⑥ 개발규제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지역개발적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점관광개발 모형은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에 준거하여 개발목표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발주체에 따른 관광공급 대상요인의 검토와 개발형태에 따른 관광수요시장요인의 검토 결과를 조화·조성시켜 공간구조론적 측면과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측면의 개발접근방법요인을 선택하는 개발수행과정을 통해 개발결과가 평가되도록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된 모형은 제반 요인들의 분석 틀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되었다.

첫째, 참여성으로 개발목표의 설정범주에 관광자의 욕구와 관광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개발목표의 최적화이다.

둘째, 연계성으로서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가 각각 차별화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조합되어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지역의 특성을 특화시킴으로써 개발형태의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조화성으로서 관광공급대상요인, 관광수요시장요인, 그리고 개발접근방법요인에 준거하여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에 따라 개발목표를 최적화시키도록 각 부문간의 연대와 기능의 분담이 통합·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참여성, 연계성, 그리고 조화성에 준거한 거점관광개발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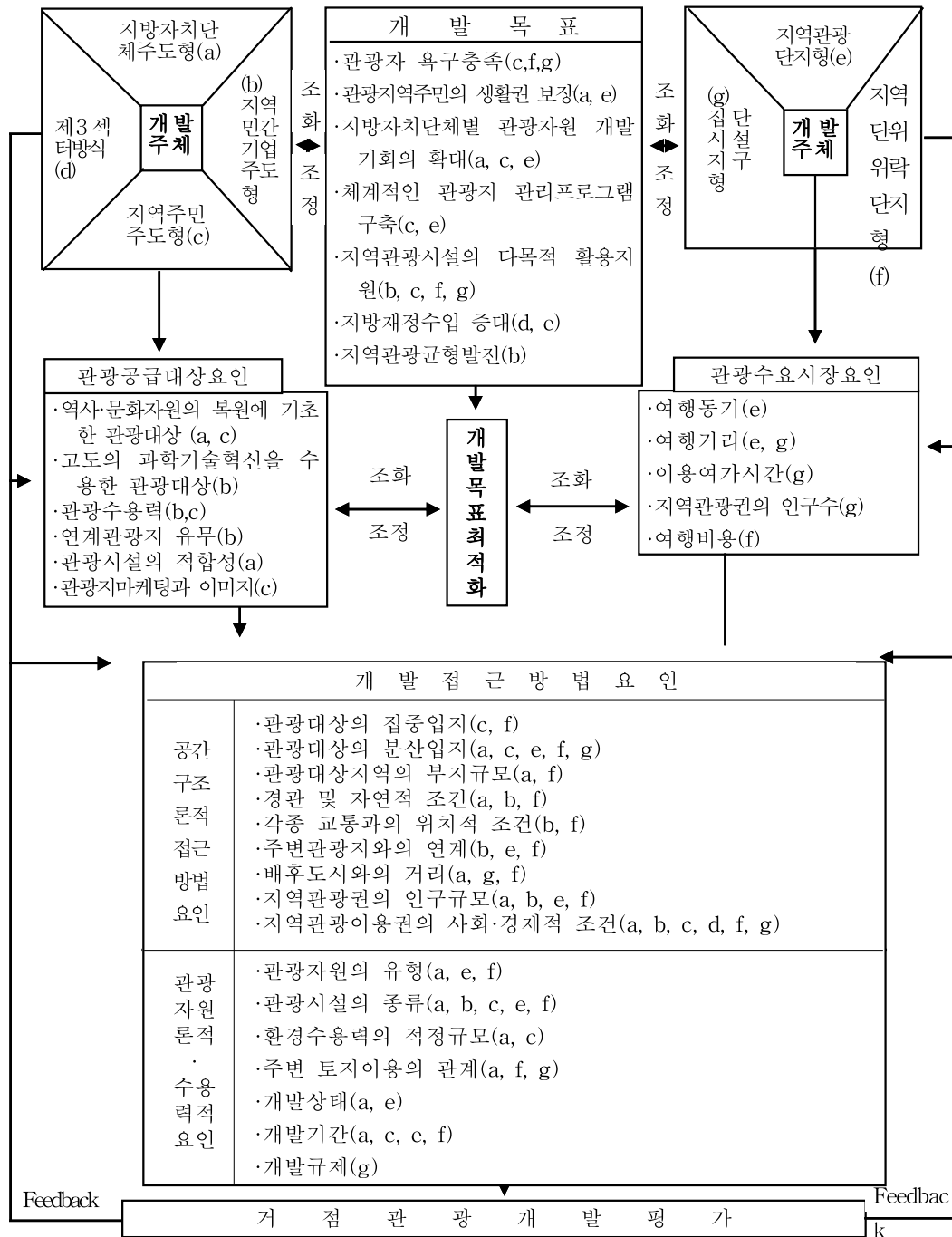
설정된 모형을 개발주체별로 구체화시켜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주도형은 개발목표로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등과 관계가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역관광자의 욕구 충족 및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동시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관광자원개발에서 중요시될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가 강조됨을 의미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관광시설의 적합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과 관계를 보인다. 즉, 과거와 같이 지정에 그치는 공공주도형의 전시적 관광자원개발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관광자원개발을 의미하고, 지역관광의 특화 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이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개발이 강조된다.

개발접근방법에서 공간구조론적으로는 관광대상을 어떻게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지론적·배치론적 측면이 강하다. 과거와 같은 지역배분적 입지가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지역관광 촉진 측면에서 자치단체별 관광대상의 특화적 분산입지가 매우 중요시된다. 또한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접근에서는 관광자원의 유형, 관광시설의 종류, 환경수용력의 적정규모, 주변토

지이용과의 관계, 개발상태, 그리고 개발기간 등과 관계가 있다. 설정된 모형에서는 과거처럼 수동적인 관광자원개발정책보다는 환경수용력의 적정규모 안에서 지역특화적 관광자원이 효율적으로 조합될 수 있도록 개발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된다.

둘째,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개발목표요인으로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지원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계를 보인다. 일반적인 관광자원개발에서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의 개발목표는 단지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에 초점을 둔 기업경영적 측면만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 거점관광개발에서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지원이란 개발목표도 강조되어야 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연계관광지 유무, 고도의 과학 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그리고 관광수용력 등과 관계되는데, 특히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위락단지개발 형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관광대상의 내용면에서 과거의 단순 놀이시설보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수용한 놀이의 장과 교육의 장이 동시에 추구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개발접근방법요인에 있어서 공간구조론적 관광대상의 집중입지가 강조되었으나 설정된 모형에서는 지역관광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이 중요시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 및 사회·경제적 조건도 매우 중요시된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접근에서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기업경영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형에서는 관광시설의 종류가 개발사업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광시설의 종류는 공간구조론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이고, 지역관광이용권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준과도 관계되는 다면적·복합적 특성을 포함하는 요소이므로 개발주체로서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관광시설의 차별화 및 특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5] 거점관광개발 모형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셋째, 지역주민주도형은 사실상 독자적으로는 개발주체적 기능이 미약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민간기업과 조합되어 제3섹터방식에 의한 구성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주도형은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관광지역주민의 편익,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프로그램 구축 측면에서 관광지역의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발목표의 설정이 강조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관광수용력,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그리고 관광지마케팅 및 이미지 등과 관계를 보인다. 이는 지역주민주도형이 지역공동의 편익과 지역특화적 관광공급대상의 장점을 강조 하지만 주체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부문과의 효율적인 조합이 바람직하다.

개발접근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주도형은 관광공급대상의 집중·분산정도에 따라 공간구조론적으로 집중·분산되는 관광자원개발접근을 지향한다. 이는 개발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주도형은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 관광자원개발 그 자체가 관광지역주민의 사회·경제현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자원론적 접근에서는 관광시설의 종류-지역관광자원에 준거한 관광시설의 특화-가 매우 중요시된다. 수용력적 접근에서는 환경수용력의 적정규모와 개발기간 등이 관계되는데, 이는 관광공급대상지역 자체가 생산의 장이자 놀이의 장이기 때문에 설정된 모형에서도 적정한 환경수용능력에 준거한 보전적 관광자원개발 측면이 강조된다.

끝으로 제3섹터방식은 부문간 조합의 특성에 따라 개발목표 설정에 차이가 있다. 과거 지역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되는 섹터방식에서는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만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차원이 개발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설정된 모형에서는 지역의 고용·소득 효과와 지방재정수입의 증대가 일차적 개발목표가 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도 중요한 요인이다.

개발접근방법에 있어서 제3섹터방식은 여러 개발주체의 조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관광공급대상과 관련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구조론적으로 집중적이거나 분산적이기보다 관광공급대상을 연계시키는 연계성이 강조된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접근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개발주체가 관광공급대상과 관광수요시장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개발대상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시설·관광자원의 차별화와 적정수용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한편, 개발형태별로 모형을 구체화시켜 보면 첫째, 관광단지형은 개발목표로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등이 강조된다. 즉, 관광단지형은 개발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개발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개발목표의 설정도 단순한 관광자원개발적 접근보다 지역발전적 효과에 초점을 둔 특화적 관광자원개발이 바람직하다. 모형에서의 관광단지형은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고용·소득 효과 및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등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광단지형의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제3섹터방식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공급요인과 관광시설의 적합성요인이 매우 중요시되며, 관광수요 시장요인은 여행동기와 여행거리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를 필요로 한다.

관광단지형은 개발접근방법상 개발기간이 장기적이고 개발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개발대상면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간구조론적 접근에서는 배치론적으로나 발전론적으로 매우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간배치론적으로 집중전략을 따르지만 단지내에서의 관광대상 배치는 분산입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간의 발전론적 접근에서는 주변관광지와 효율적인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초기단계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또한 관광자원론적 접근에서 보면 관광자원 유형 및 관광시설의 종류에 따라 산악·해양·문화중심형으로 세분화된다. 이 세분화 영역에 따라 관광단지의 특성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수용력적 접근에서는 개발상태와 개발기간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락단지형은 한정된 공간에 단기간 동안 집중적 투자를 하므로 개발목표는 무엇보다도 지역관광수요의 특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위락단지 가운데 주제공원이나 여가단지 등은 관광수요 시장지역과 밀접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놀이의 장, 교육의 장, 그리고 미래 체험의 장 등) 지원 역시 중요시된다.

위락단지형의 개발주체는 지역민간기업주도형과 지역주민주도형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의 유무, 그리고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등의 요인이 매우 중요시되며, 관광수요시장요인은 여행비용 요인만이 강조된다.

위락단지형은 개발접근방법상 공간구조론적으로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위락단지형의 특성상 공간규모 및 시설규모가 단지의 관광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접근성(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이 중요시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에 의해서 관광수요의 유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단지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위락단지형은 일반적으로 당일관광에 준거하므로 배후도시와의 거리 및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도 공간구조론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관광자원적 접근에서 위락단지형은 여가단지, 교외공원, 그리고 주제공원으로 세분화되는데, 이는 관광자원의 유형 및 관광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 된다. 또한 각 세분유형들은 수용력적 측면의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 및 개발기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끝으로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형은 여행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광거점지역(자연공원지역 내에서 보전보다 개발이 우선되는 지역)이므로 관광자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표도 중요시되고, 대상지역에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시설지구형은 자연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개발목표보다도 전체대상지역시스템 내에서 개발목표의 종합화가 요구된다.

집단시설지구형의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제3섹터방식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과 관광시설의 적합성이 중요시되며, 관광수요시장요인은 여행거리, 이용여가시간, 그리고 지역관광권의 인구수 요인 등이 강조된다.

집단시설지구형은 개발접근방법상 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자연공원 이용특성에 따라 공간구조론적으로 관광대상을 분산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배후도시와의 거리등에 따라 시설개발의 특성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으로 자연공원법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개발과 보전 차원에서 개발이 우선시되는 관광자원개발지역이므로 수용력적 측면에서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 및 개발에 관련된 제반 규제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김홍운, 김사영, 1996).

(5) 관광거점의 의의와 성공요인

관광거점 개발은 특정지역에 관광산업을 집적시킴으로써 공공재원의 효율성 제고, 민간사업체의 수익성 확보, 관광객의 다양한 서비스 향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관광거점 개발은 정책적 관점에서 몇 가지 필요해 의해 추진되며 투입재원의 한계와 시장이 변동성을 지닌 우리 실정에서 유용한 관광개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정된 국가 및 지역 관광자원 활용성을 효율화 할 수 있으며, 재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다.

둘째, 관광시장을 확대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일정공간에 관광객을 집중함으로써 관광시장의 계절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사업체 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셋째, 주변 관광시장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시장과 거점 간, 거점과 연계 관광지간 이동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변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 한다.

넷째, 효율적인 관광공간관리로 거점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관광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관광거점의 전제조건은 첫째, 관광권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의 위치와 공간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적정시장성과 자원연계성을 지닌 배후지역을 갖도록 한다.

둘째, 관광권내 합리적으로 선정된 관광도시 또는 관광단지 등을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광거점 배후지역에 단위 관광지를 테마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조성하며, 연계관광지는 대규모화 되지 않게 관광지가 기능 분담하에 입지하여야 한다.

넷째, 관광시장과 거점지역간, 거점지역과 주변 지역간 교통연계 강화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거점을 성장시키고 주변 지역으로 관광객을 원활하게 분산한다(김영준, 2009:261).

관광거점 개발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추진적 선도산업의 유치와 주변지역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도산업은 새로운 거점에 유인하기 어렵고 타 산업과 연계성이 높지 못하거나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며 집적과 성장 파급효과가 미약할 수도 있다.

또한 관광거점에서 관광산업 유치가 어려운 근본적 요인은 충분한 관광시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부문의 정책적 일관성과 관광수급에 맞는 관광거점의 규모나 개소수 관리가 필요하다.

거점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파급효과의 외연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거점과 배후지간

산업적 연관관계 유지, 관광거점과 주변 관광자원간 연계교통여건 개선, 주변 관광자원간 기능적 분화가 요구된다.

(6) 거점관광개발 방식

성장거점이 지니는 확산효과(Spread effect)의 당위성으로 인하여 관광거점 조성의 주변지역 연계는 광역권 관광개발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었다(김영준, 2009: 260-261).

이러한 방식은 허니팟(Honey-Pot)또는 허브앤드스포크(Hub&Spoke) 방식 등으로 광역권 관광개발에 적용되어 왔다.

Hub&Spoke 방식과 Honey-Pot방식은 공통적으로 성장거점을 집중 개발하고 연계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론에 따라 기존 광역권 관광개발은 광역권내 하위권역을 설정하고 하위권역별로 거점과 주변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상된다.

① 관광개발에서의 Honey-pot 개발 방식

관광개발계획에서 관광거점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흔히 Honey-Pot개발방식을 관광거점의 개발방식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Honey-Pot개발방식은 원래 이용자에 의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지역의 이용압력을 경감시키거나 포화상태에 도달한 관광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을 개발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Pearce, 1989; 263). 즉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익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Honey-pot개발방식은 한 지역으로의 과도한 관광수요를 차단하여 새로운 관광매력물로 돌리게 할 때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Languedoc-Roussillon지역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곳으로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의 관광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프랑스인들은 스페인 및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 지역을 개발하여 프랑스인들이 자국 내에 체류하도록 유도하였다.

② Hub-Spoke 방식

Hub-Spoke 방식은 물류·항공운송분야에서 사용된 용어로 운송할 화물을 한 지역(hub)에서 집결하게 하고 이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자전거의 바퀴살(spoke)처럼 운송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는데, 최근 지역 및 관광개발계획에서 이를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에서는 거점을 Hub로 연계사업지구를 Spoke로 설정하여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연계사업지구를 자전거의 바퀴살 모양으로 배치함으로써 개발체계를 구성하였다. 즉, 남해안관광벨트는 부산도시 관광권,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 종합휴양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으로 권역을 구분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하나의 거점지구와 부거점 지구를 선정하고 다수의 연계사업지구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서도 성장거점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계획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명소화 자원, 거점화 사업, 연계자원 개발사업, 관광루트화 사업, 안내시설 정비 개선사업, 축제이벤트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권역을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안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1개의 거점지구를 선정하였다.

남해안관광벨트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거점 지구는 관광단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③ Smith(1980)의 관광중핵

관광지역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보유한 중핵지구, 관광지역에 의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의 직접지원지구, 승수효과에 의해 영향되는 간접지원지구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중핵지구는 거점관광개발상 관광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김사영, 1996 재인용).

이모형이 효율적이기 위해 첫째 관광공급대상의 특화를 통해 원심력과 구심력이 발생되도록 하여 관광중핵(관광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쇄신수용이 관광거점의 발전원동력이 되므로 관광수요시장과의 접근성, 관광공간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 그리고 관광자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관광중핵모형에서 중핵지구(관광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관광사업의 육성, 관광관리기능의 확충, 질 높은 관광서비스 그리고 교통체계의 개선 등이다.

특히, 교통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지역(관광거점)을 연계하는 세 가지 다른 루트-접근루트(access route), 복귀루트(return route),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루트(recreation route)-를 제시하는데, 접근과 복귀루트는 근본적으로 두 장소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할 수 있는 반면에 위락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관광객은 여러 관광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즉, 위락 루트는 관광행동 특성상 주유형(touring)의 개념이다. 따라서 중핵지구는 거점관광개발상 관광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④ Campbell의 관광거점모형

Campbell의 모형은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관광단지와 관광서비스지역)의 두 가지 개별구조가 교통기능을 통해 연계된다. 관광수요시장은 종합적 지역화과정을 거쳐 세분시장이 명확하게 되고, 관광공급대상도 초기에는 분산되지만 차차 관광거점으로 집중되는 거점관광개발에 준거하고 있는데, 그림과 같다.

모형에 따르면 위락 여행은 관광수요시장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분산되는 반면에 휴가여행은 선형적이고 고속도로 지향적이며, 위락적 휴가여행은 두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상대적인 여행중요도에 기초한 집단으로 구별하는데, 첫째는 위락활동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인 위락여행자, 둘째는 여행이 주요 목적으로 구성되는 휴가여행자, 셋째는 중간집단으로 어떤 지역에 기초하는 여행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위락적 휴가여행자 등이다.

⑤ Getz의 TBD모형

관광업무지역(tourism business district : TBD)이란 용어는 중심업무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 CBD) 기능과 관련된 관광자지향 관광대상과 서비스의 집중을 묘사한다. TBD의 특징은 연중관광지향, 집중적 형태, 그리고 목적적인 관광대상 등이다. TBD의 기능은 관광지관리 업무, 비즈니스서비스, 관광대상개발, 관광서비스, 문화적 기능, 그리고 교통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TBD모형의 구성요소는 ① 지역성 ② 접근성 ③ 디자인 ④ 관광공급대상 ⑤ 서비스 ⑥ 기타 기능 등이다. TBD의 계획으로는 관광개발계획, 관광매개체로의 계획, 그리고 관광과 기타 도시기능과의 균형계획 등이다.¹⁾ 첫째, 관광개발계획의 내용으로는 ① 관광공급대상, 기반

시설, 그리고 서비스창출을 위한 계획 ② 도시관광을 촉진시키고 매력적인 이미지개발을 위한 계획 ③ 민간산업부문과 정부기관의 공동노력을 위한 계획 ④ 적합한 토지이용과 개발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등이다. 둘째, 관광매개체로의 계획 내용으로는 ① 다른 형태의 개발 및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 ②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 ③ 관광을 통해 보전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등이다. 끝으로 관광과 기타 도시기능과의 균형계획 내용으로는 ① 지역 주민지향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한 관광의 역할과 우수성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 ② 기회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 등이다. 이상의 TBD계획을 종합한 TBD모형은 그림과 같다.

TBD모형에서 핵심관광대상은 자연적·문화적 관광공급대상, 이벤트, 쇼핑, 그리고 컨벤션 등이다. 중심업무지구(CBD)의 기능은 사무소, 소매, 행정 등이고, 주요 서비스로는 교통과 정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의 핵심관광대상도 거점관광개발 형태에 준거하고 있다.

1) D. Getz, "Planning for Tourism Business Distri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0, No. 3, 1993, p.587.

2. 국내 해양관광 현황 및 전망

1) 유형별 해양관광자원 현황

(1) 해양의존형

해양관광은 시장별 유형에 따라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세분됨

- 스포츠형 : 해상공간에서 파도, 해류 등 자연조건을 활용하는 수면·수중 공간의 스포츠 형태
- 휴 양 형 : 해안을 배경으로 휴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
- 유 랑 형 : 해상 및 해저에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기항·운항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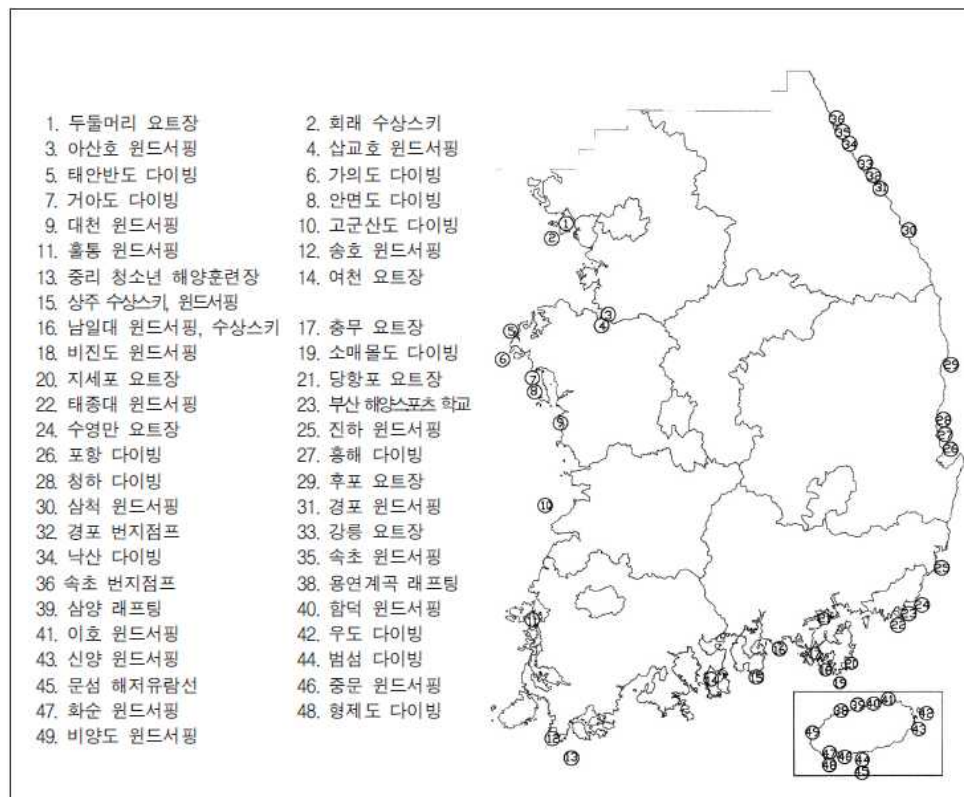
① 스포츠형

해역별 요트장 개발 여건은 동·서·남해안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형적 조건은 남해안이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요트장을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동해안은 개방성 해역이 많아 요트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해안은 지형적 조건이나 기후로 보아 요트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수산 양식업이 발달하고 수심이 얕거나 조차가 큰 지역이 많아 요트장 개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원드서핑과 해양다이빙은 각 해안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남은 대천해수욕장과 태안반도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도 신양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전북 고군산군도, 광주 인근의 홀통해수욕장, 거제도 지세포, 부산 태종대, 울산 진해해수욕장,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양다이빙은 충남의 경우 태안반도와 안면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고군산군도, 강원도 낙산, 경북의 포항, 청하, 홍해, 제주도의 범섬, 문섬, 섯섬, 추자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장비 이용은 모터보트, 워터슬레드, 래프팅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2006)에 의하면 통영시가 140,37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활동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고비용의 요트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객 현황이 전무한 실정이다. 워터슬래드가 전 지역에서 고르게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래프팅 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은 활동 빈도가 높아 안전성 문제와 장비의 저렴화가 이용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 국내 주요 스포츠형 해양레크리에이션 공간

② 휴양형(해수욕장)

해수욕장은 강원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346개소로서 관리방법에 따라 시범, 일반, 마을 해수욕장으로 구분된다. 시범 해수욕장은 35개소(10.1%), 일반 해수욕장은 154개소(44.5%), 마을 해수욕장이 157개소(45.4%)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강원도가 102개소(29.5%)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60개소(18.2%), 충청남도 46개소(13.3%)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15〉 우리나라 해수욕장 등급별 지역별 분포현황

구분	시범	일반	마을	계	
				개소(%)	해수욕장 길이 (km, %)
부산광역시	3	4	0	7(2.0)	6.97(2.3)
인천광역시	0	35	2	37(10.7)	35.80(11.6)
울산광역시	2	0	0	2(0.6)	2.40(0.8)
경 기 도	0	0	4	4(1.2)	7.60(2.5)
강 원 도	14	26	62	102(29.5)	43.64(12.9)
충청남도	1	11	34	46(13.3)	70.60(22.9)
전라북도	4	5	0	9(2.6)	10.56(3.4)
전라남도	9	25	29	60(18.2)	79.38(25.7)
경상북도	0	19	14	33(9.5)	26.94(8.7)
경상남도	2	18	7	27(7.8)	17.14(5.5)
제 주 도	0	11	5	16(4.6)	7.88(2.6)
계	35	154(44.5)	157	343(100)	308.90(100.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유형별 관리·평가모델 개발연구, 2006, p.11.

해안별 지리적·자연적 여건에 따른 특성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을 활용한 개발방안이 요구된다. 서해안은 수심이 낮고 해변지역의 갯벌 등이 양호하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고 모래사장도 발달하여 다양한 해변, 해중 이용이 가능하며, 남해안은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간적 성격이 나타난다.

③ 휴양형(바다낚시)

해양수산부(2014)의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의하면 1998년 2,628척에 불과했던 낚시어선은 2006년 5,198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어선감척 사업 등 전반적인 어선세력 감축으로 현재는 4,390척이 신고되어 있다.

또한 낚시어선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척당 소득액은 2천 8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어민들의 주요 어업 외 소득증대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표 16〉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단위 : 척)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4,423	5,191	5,115	5,198	5,124	5,027	3,992	4,060	4,359	4,708	4,390
부산	183	196	185	183	199	156	200	233	236	212	198
인천	260	315	339	283	297	258	220	234	204	304	286
울산	66	56	79	89	94	63	71	71	70	71	61
경기	134	185	197	187	198	193	164	129	135	121	116
강원	752	787	693	640	593	624	377	325	306	518	461
충남	1,109	1,289	1,312	1,178	1,160	1,142	692	986	1,306	1,049	1,052
전북	191	185	204	214	209	191	189	220	219	223	194
전남	639	755	766	1,043	904	871	828	545	599	814	756
경북	79	96	84	101	108	135	140	145	157	126	110
경남	802	1,087	993	1,040	1,121	1,178	912	979	907	1,080	968
제주	208	240	263	240	241	216	199	193	220	190	188

자료 : 해양수산부,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2014.

그리고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 1,957천명을 기록하였고, 최근 10년간 연간 2백만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는 추이를 볼 때, 안정적인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는 국민 소득 증대 및 주 5일제 등 여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체험어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어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표 17〉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

(단위 : 명)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2,023,826	2,305,937	1,993,277	2,077,781	2,403,637	2,247,512	2,372,531	2,155,248	1,956,580
부산	79,546	72,599	77,221	92,906	106,588	169,537	132,075	127,288	107,052
인천	77,265	51,209	55,678	137,318	146,714	134,020	139,456	85,424	93,967
울산	11,958	15,747	10,408	14,823	26,930	24,671	22,779	13,750	14,610
경기	52,613	66,498	67,782	50,251	88,450	52,452	76,170	73,096	58,418
강원	87,630	99,605	96,717	114,987	95,131	156,103	104,024	133,721	117,393
충남	388,414	647,737	380,743	329,101	389,674	426,557	531,241	545,746	568,015
전북	96,034	83,401	80,238	72,736	119,000	169,985	97,505	133,469	152,269
전남	455,504	778,061	657,453	658,602	726,657	415,268	574,669	354,238	286,424
경북	52,780	37,263	119,693	97,793	177,271	154,110	106,052	112,898	147,996
경남	630,475	369,672	376,838	398,701	391,810	329,449	394,360	445,908	309,115
제주	91,607	84,145	70,506	110,563	135,412	215,360	194,200	129,710	101,321

자료 : 해양수산부,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2014.

④ 유람형

해양의존형 중 유람형은 주로 연안 크루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 해상유람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형 해상유람선(크루즈) 운항은 부산, 인천, 남해 도서 지역, 제주도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특정항 주변의 해안 및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차별성이 낮은 단순 해상유람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에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보령시에 2곳으로 보령해상유람선관광(주)과 (주)신한해운이 있다. 유람코스는 보령항-보령화력발전소&펭귄부부바위-왕새섬(남근바위)&월도-허육도(삼형제바위)-몽덕도(거북이섬)-추도&소도-안면도 영목항-효자도-원산도-보령항 코스와 대천→녹도→호도→외연도가 있다.

(2) 해양연관형

해양연관형은 활용유형에 따라 해양문화관광형, 관람교육형, 경관감상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 해양문화관광형 :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해양축제, 친수공간 등을 활용하는 형태
- 관람교육형 : 생태,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람 및 체험위주의 교육 형태
- 경관감상형 : 도서, 일출·일몰 등 해변경관을 감상하는 형태

① 해양문화관광형(문화시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시설로는 박물관 4개소, 과학관 3개소, 어촌민속전시관 3개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개소, 생태체험과 3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충남에는 박물관으로 태안군에 고남패총박물관, 서천군 서천해양박물관이 있다.

② 해양문화관광형(해양리조트)

해양리조트란 일정기간 동안 해안지구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제형의 종합위락시설이 갖추어진 관광지를 말하며, 해외의 경우 활동유형에 따른 해양리조트와 기능전환 및 신규 개발을 통한 해양리조트가 잘 발달되어있다. 국내의 해양리조트는 주

로 비치형과 종합휴양형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기능전환을 통한 사례 및 대규모 인공개발을 통해 형성된 신규개발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의 경우 비치형으로 보령시에 한화콘도, 비체펠리스, 대천리조트가 있고, 태안군에 (주)리솜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주)가 있다.

〈표 18〉 충남 해양리조트

시·군	콘도명	객실수			
		계	66㎡ 이하	66~132㎡	132㎡ 이상
보령시	한화콘도	305	299	5	1
	비체펠리스	236		234	2
	대천리조트	100	32	68	
태안군	(주)리솜리조트	248	58	154	36
	한화호텔&리조트(주)	56		56	

〈표 19〉 해양리조트 시설의 개발 유형

형태		내용	해외사례	국내사례
활동유형	비치형	해수욕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의 해변 이용을 포함하는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진흥하는 형태	파타야 비치(태국) 존스 비치(미국) 구다비치(인도네시아) 코파카바나(브라질)	해운대(부산) 경포대(강릉)
	마리나형	마리나를 핵으로 하여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기자화를 목표로 하는 형태	마리나 델 레이(미국) 천사의 마리나(프랑스) 실 솔 베이(미국) 롱비치마리나(미국)	도남(충무) 수영만(부산)
	종합휴양형	장기 체제를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휴양지 개발을 지향하는 형태	마이애미 비치(미국) 와이키키 비치(미국) 코스타 델 솔(스페인)	돌섬(마산) 중문(제주)
신규여부	기능전환형	어항, 창고 등을 포함하여 기본 기능을 전환시켜 새로운 레크리에이션적 수변 이용을 촉구 하는 형태	센토사카린독(영국) 미스테이크시보트 페뉴얼 홀마킷(미국)	-
	신규개발형	대규모적인 인공개발을 통하여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형태, 타 기능도 포괄적으로 개발을 전개	랑독루시옹(프랑스) 미션베이파크(미국) 아라모아나파크(미국)	화원(해남) 중문(제주)

자료 : 김성귀, 해양관광론, 2007, p.348~349, 재인용.

③ 관람교육형(어촌관광 및 체험마을)

국내 어촌관광의 유형은 수산물 구매·시식형, 바다낚시형, 해수욕형, 생태체험형, 해양스포츠형, 어촌관광·휴양형, 어촌역사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유형에 따라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및 즐길거리 등으로 세분되며, 갯벌, 철새, 일출·일몰 등의 어촌자원을 활용한 형태로서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나타난다.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2년 기준 전국에 104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보령시 2곳(무창포 관당마을, 장고도마을), 서천군 1곳(월하성), 태안군 5곳(영목어촌체험마을, 대야도어촌체험마을, 만대어촌체험마을, 용신어촌체험마을, 병술만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표 20〉 충남도 어촌체험마을

시군명	마을명	위치	선정년도	대표자	참여가구
계	8개소				
보령시 (2)	무창포관당마을	웅천읍 관당리	2006	김지호	297
	장고도마을	오천면 장고도리	2012	편현숙	78
서천군(1)	월하성	서면 월호리	2002	한신교	50
태안군 (5)	영목어촌체험마을	고남면 고남리	2005	신창선	193
	대야도어촌체험마을	안면읍 중장리	2006	김우식	170
	만대어촌체험마을	이월면 내리	2005	김진묵	80
	용신어촌체험마을	근흥면 용신리	2007	이기완	130
	병술만어촌체험마을	안면읍 중장리	2010	이진형	110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년

④ 관람교육형(생태관광)

국내의 해안은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갯벌, 철새 등을 활용한 체험 및 조망과 관련된 관광상품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갯벌을 이용해 체험관광 상품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의 제부도, 대부도 지역, 강화도 남부해안, 충남 아산만, 천수만, 태안지역, 금강하구, 전북 줄포만 지역, 전남과 경남 지역 등 서해안과 남해안이다. 특히 서해안은 북미

동부해안, 북해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1〉 갯벌 및 철새도래지

연번	습지지역	국제적으로 중요한 종수	습지유형	총개체수
1	새만금	16종	해안갯벌	126,278
2	금강 하구	16종	해안갯벌	55,603
3	낙동강 하구	13종	해안갯벌	28,162
4	아산만	12종	해안갯벌	75,880
5	남양만	12종	해안갯벌	29,613
6	순천만	10종	해안갯벌	35,261
7	강화도	10종	해안갯벌	24,037
8	영종도 남단	8종	해안갯벌	24,966
9	목포 압해도	8종	해안갯벌	26,660
10	함평만	7종	해안갯벌	10,573
11	서산 간척지 AB지구	5종	매립지 호수	48,379
12	금강	5종	하구둑 주변	47,786
13	해남만	5종	해안갯벌	13,187
14	무안 매안	5종	해안갯벌	8,012
15	영암 금호호	4종	매립지 호수	123,347
16	남해	4종	갯벌과 바다	16,361
17	천수만	4종	해안갯벌	11,485
18	영광백수	4종	해안갯벌	5,223
19	광양 갈사만	4종	해안갯벌	3,922
20	영종도 북단	3종	해안갯벌	2,031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2010, p.20.

⑤ 경관감상형(도서관광)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3,13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인도 482개소, 무인도 2,71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표 22〉 갯벌 및 철새도래지

합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	총인구(명)
3,139	482(429)	2,710	3,681,250(1,621,255)	817,871(160,084)

자료 : ()안의 수치는 행정안전부 도서 통계 중 연육 도서 53개 제외 수치.

도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도서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섬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897만명, 2012년 10,95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국민여행실태조사 총량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전체 관광객 수는 36,914만명으로 이 중 여객선 승선 인원으로 추정된 섬 관광객은 10,951만명으로 전체 대비 2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충남도서를 방문한 관광객은 376,007명으로 전체 섬 관광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충남 항로별 수송객 현황

(단위 : 명, %)

지 역 (항로구분)	항로명	수송계	일반		도서민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대산	대천-영목	186,290	119,384	64	66,906	36
	대천-외연	61,658	45,148	73	16,510	27
	대천-장고도	167,814	121,269	72	46,545	28
	도비도-대난지도	86,239	67,971	79	18,268	21
보조	구도-고파	11,828	5,233	44	6,595	56
보조	안흥-가의	16,987	8,624	51	8,363	49
보조	오천-초전	18,531	8,378	45	10,153	55
대산합계		549,347	376,007	68	173,340	32

자료 :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3.

가장 긴 항로는 대천-외연도 항로로 25.5마일로 시간은 2시간 10분이 소요되는 항로이며, 가장 짧은 항로는 도비도-대난지도 항로로 2.9마일로 시간은 30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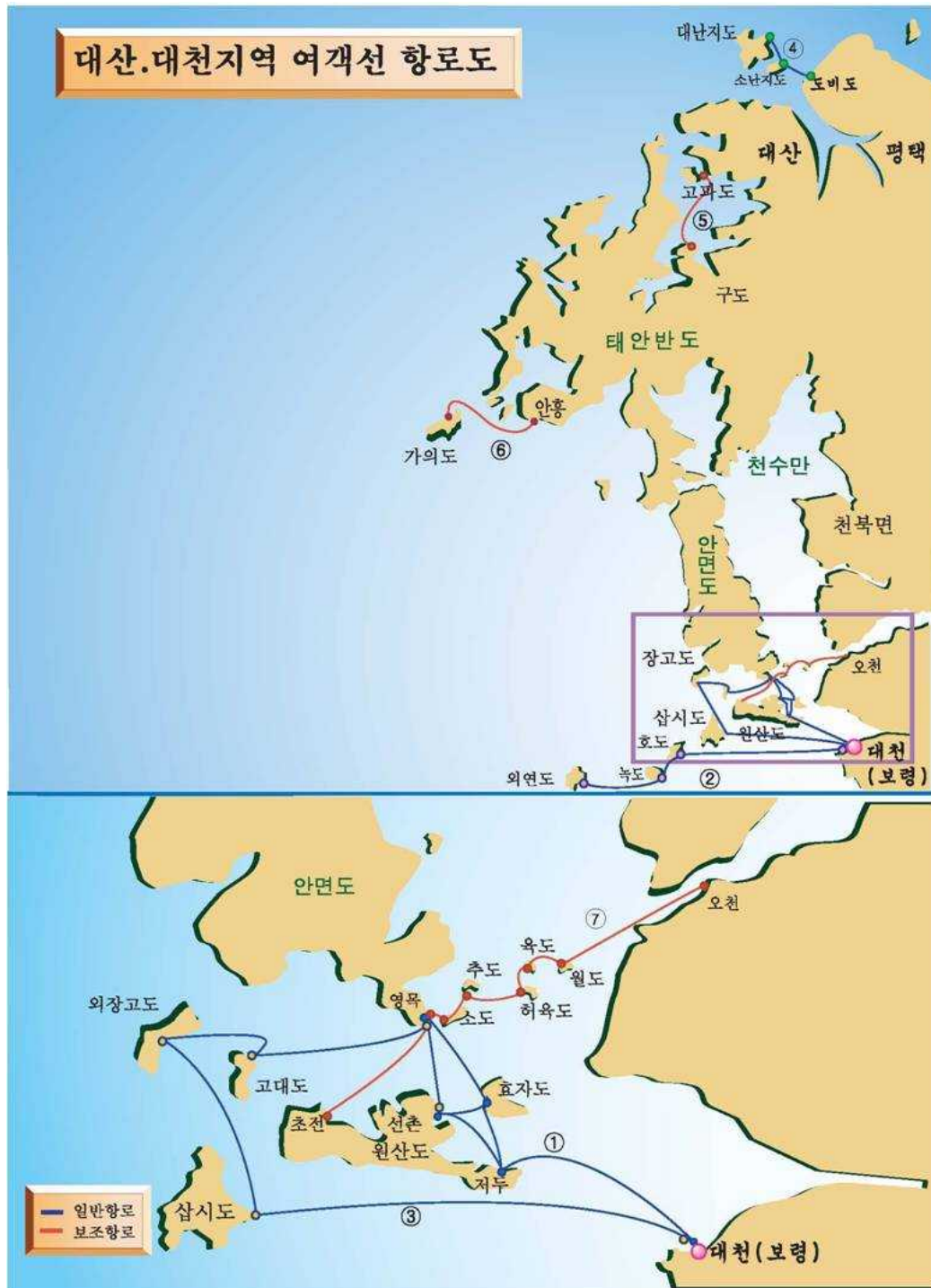
차도선은 대천-영목 항로, 대천-장고도 항로, 도비도-대난지도 항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기항지가 운항하는 항로는 대천-장고도 항로로 대천-삼시도-장고도-고대도-영목-원산도(선촌,저두)-대천을 운항하고 있다.

고속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는 대천-외연도 항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가장 큰 톤수는 대천-장고도를 운항하는 344G/T 350명 정원의 신한고속훼리이다.

〈표 24〉 충남 항로별 취항선박 현황

번 호	항로명 (항로구분)	선 명 (선사명)	선 중 (속력)	총톤수 (정원)	항로거리 (운항시간)	기 항 지
1	대전-영목 (일반)	원산고속훼리 ((주)신한해운)	차도선 (15노트)	276G/T (250명)	6.6마일 (00:40)	대전-저두-효자 도-선촌-영목
2	대전-외연 도 (일반)	웨스트프론티어 ((주)신한해운)	고속선 (15노트)	140G/T (215명)	25.5마일 (02:10)	대전-호도-녹도 -외연도
	(일반)	에버그린 ((주)신한해운)	고속선 (19.8노트)	100G/T (151명)	25.5마일 (01:35)	
3	대전-장고 도 (일반)	신한고속훼리 ((주)신한해운)	차도선 (15노트)	344G/ T (350명)	12.2마일 (01:20)	대전-삼시도-장 고도-고대도-영 목-원산도(선촌, 저두)-대전
4	도비도-대 난지도(일 본)	106청룡비너스 ((주)청룡해운관광)	일반선 (10노트)	98G/T (250명)	2.9마일 (00:30)	도비도-소난지 도-대난지도
		대형카훼리2 ((주)청룡해운관광)	차도선 (10노트)	76G/T (74명)		
5	구도-고파 도 (보조)	성주산 ((주)신한해운)	일반선 (13.5노트)	53G/T (50명)	7.5마일 (00:50)	
6	안흥신항- 가의도(보 조)	백화산 ((주)신한해운)	일반선 (13노트)	52G/T (50명)	4마일 (00:25)	
7	오천-초전 (보조)	오천카훼리 ((주)신한해운)	일반선 (13.5노트)	89G/T (90명)	10.8마일 (01:10)	오천-월도-육도 -허육도-추도- 소도-영목-초전

자료 :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3.



[그림 7] 대산, 대천지역 여객선 항로도

⑤ 경관감상형(경승지)

현재 우리나라 경승지는 전국해양관광자원 실태조사(해양수산부, 2013)에 따르면, 전망대/조망시설이 전국에 61개소, 일출/낙조/경관도로 31개소가 있다.

전남이 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15개소, 경남이 14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총 12개소가 있으며, 보령시 3개소, 서산시 1개소, 당진시 1개소, 서천군 1개소, 홍성군 2개소, 태안군 4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표 25〉 충남 일출, 일몰 경관지

시군별	명 칭	소 재 지	시설조성여부
	12개소		
보령시	무창포 일몰	웅천읍 관당리(무창포해수욕장)	무
	녹도리 일몰	오천면 녹도리	무
	외연도 일몰	오천면 외연도리	무
서산시	간월암 일몰	부석면 간월도리	무
당진시	해뜨고 지는 왜목마을	석문면 교로리	유
서천군	마량리 일출일몰	서면 마량리	유
홍성군	궁리항 일몰	서부면 궁리	유
	속동전망대(경관지)	서부면 궁리	전망대, 임해관광도로
태안군	황도 해오름	안면읍 황도리	무
	학암포 안뒀 해넘이	원북면 황촌리	무
	몽대포구의 해넘이	남면 몽산리	무
	꽃지해변의 해넘이	안면읍 승언리	무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년

2) 해양관광객 현황

(1) 국내 해양관광객 현황

국내 관광활동은 '0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에 따라 위축되었다. 최근 경기회복, 여가욕구 증대 등으로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12년 현재 '07년의 77%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다만, 국내여행이동총량의 조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07년 이후 국내 관광위축 효과가 과장되어 '12년과 '07년을 1:1로 비교하는데는 주의를 요한다.

해양관광은 국내 관광 전체의 50% 수준으로, 해수욕장, 낚시 등 전통적 강세분야와 함께 도보여행, 스킨스쿠버 등 신규 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관광형태의 고급화, 장기화에 따라 숙박여행의 증가비율이 당일 여행의 증가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당일여행은 수도권(경기/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숙박여행은 강원(33.0%), 충남(16.9%) 등 해수욕장이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관광활동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당일여행의 56.2%, 숙박여행의 81.1%)되어 계절적 편중이 심각하다.

해양관광객의 전망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은 '10년 3.4억일에서 '23년 약 7.7억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해양관광은 '23년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 대비 65%인 약 5억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성장률 약 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활동별로는 요트·보트 등 수상레저, 스킨스쿠버 등 해중레저 및 크루즈관광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해양관광 증가 전망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국내여행이동총량	339백만일	554백만일	675백만일	765백만일
해양관광분야	169백만일	305백만일	406백만일	497백만일
비중	50%	55%	60%	6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해양관광실태조사(13) 인용 추정.

(2) 주요 분야별 해양관광객 현황

① 크루즈산업

한국 방문 크루즈관광객은 2005년 3만명에서 2013년 80만명으로 부산(109회 20만명), 제주(185회 39만명), 인천(95회 17만명), 여수(17회 3만명) 등 최근 8년간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3년 국내 기항 414회 중 1박2일 이상은 60회로 전체의 14% 수준으로 체류기간은 1일 미만 이 대부분이다. 내국인 크루즈관광객은 3만명 수준이며, 국적 크루즈선(하모니호)이 '12년 한-일 노선에 최초 취항하였으나 실적 악화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표 27〉 연도별 크루즈관광객 증가추이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기항횟수	40	67	66	88	97	145	144	226	414
여객수(만명)	3.0	3.3	3.7	6.9	7.7	17.4	15.3	28.2	79.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2013, p.12.

② 해양생태관광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체험·학습관광 시장의 형성으로 갯벌탐사, 탐조관광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랍사르협약 총회 창원 개최를 계기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순천만의 경우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순천만, 신두리 해안사구, 증도 습지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수는 2009년 5개소 246만명에서 2012년 7개소 27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③ 해수욕장

전국에 총 358개 해수욕장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어촌계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해수욕장이 150개에 이른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7천만명 이상으로 2011년 7,808만명, 2012년 7,527만명, 2013년

8,770만명이 이용하였으며,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운대 등 상위 5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체의 52.3%를 차지할 만큼 이용객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한편, 이안류 발생, 해파리떼 및 상어 출현 등 해수욕장 안전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④ 낚시산업

레저낚시인구(연 1회이상 활동)는 2005년 573만명에서 2010년 652만명으로 지난 5년간 13.8%가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는 낚시용품 3,269억원, 서비스 분야 1조3,386억원 등 국내 낚시산업 시장규모는 1조7,141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2013.12)하고 낚시터 환경개선, 용품시장 확대, 낚시업자 전문교육 등에 2018년까지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⑤ 해중레저산업

국내 해중레저 동호인은 약 30만명이고 다이빙숍은 190여개소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수중협회, 한국잠수협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경 집계에 따르면 연간 12만명이 해중레저를 체험하고 있다.

현재 해중레저와 관련한 법령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해중레저 안전사고 방지 및 이동수단 합법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3. 해양관광 정책과 법규 검토

1) 해양관광 정책동향

(1) 정책추진 체계

관광개발 정책 추진은 정부조직법 제30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해양관광 육성 및 진흥은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관광의 기본 방향 제시 및 관광개발 진흥과 개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에 따라 해양 관광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양관광 자원 등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는 등 양부처간 협력체계 움직임도 전개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관광정책과는 별도로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어촌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공간에 포함되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업공간을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 및 자원활용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경제부(해양관광산업 관련 지원육성, 금융/세제지원)와 행정안전부(도서지역개발) 등도 해양관광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연계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관광정책의 구성 체제를 바탕으로 할 때 해양공간에서의 자원개발이나 이용의 문제, 해양관광 관련 사업의 인허가는 각 부처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해양관광정책은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를 바탕으로 하여 해양공간의 이용, 관광지원사업의 인허가, 각종 지원사업의 육성 등 각 부처 간의 역할에 따라 상호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표 28〉 해양관광 관련 법률

구분	기능	관련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포츠를 포함한 체육육성 전반의 주무 부처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지정 및 개발 - 관광시설 인허가 등 • 국민체육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적정 설치를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육성의 일환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 시책 마련·시행을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선언적 의미로 이해됨) • 항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시설을 항만시설 중 항만친수시설로 규정 • 어촌·어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보트·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어항시설 중 관광·레저시설로 규정
해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수상레저기구(최대출력 5마력 이상)에 대한 등록, 조정면허 취득, 수상레저 안전준수 -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보험가입, 안전검사 의무를 규정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2008.

(2) 분야별 정책 및 제도

① 해수욕장

관광자원으로서 해수욕장의 중요성에 비해 해수욕장 관련 법제 및 관리 체제는 매우 부실한 편으로 해수욕장의 시설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전문휴양업의 세부시설로서 그 기본적인 요건만 제시되어 있다.

현재 시·군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해 대형 해수욕장과 이보다 작은 일반 해수욕장들이 관리되고 있다. 즉,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 해수욕장을 지정하여 해수욕장 시설 관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비지정 해수욕장은 마을 등 지역사회나 민간기관에 의해 임의로 개발 이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부터 전국해수욕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해수욕장을 평가하여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② 해양문화시설

해양문화 관련 시설은 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양박물관·어촌민속전시관 등 해양 관련 전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를 활용하여 세계 10대 해양국의 위상에 맞는 국립해양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연구시설 및 해양조사선박 등의 해양시설은 안전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관 설치 및 정기적인 해양 강좌 개최 등을 통해 체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교통수단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유인도 대 49개 중 22개를 개방하였다.

③ 해양리조트

해양리조트 관련 정책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관광지는 225개소, 관광단지는 15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해양형 관광지는 46개소, 관광단지 5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대한 지원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53호)’ 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발표1에 따라 기준 보조율은 50%로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 등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산업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2005년 3개 지역(무주, 태안, 영암·해남)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태안과 영암·해남은 간척지에 입지하여 해양관광개발 사례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의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어촌관광

어촌관광정책은 2000년부터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주도적인 어촌관광 능력을 배양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2004년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을 제정하면 3개의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어촌관광정책 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다.

〈표 29〉 어촌관광 관련 사업별 시설 지원 현황

구분		주내용	사업년도
어촌관광개발사업		67개소에 61억씩 지원	1990~19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한 권역에 35억원씩 투자	1994년 이후 계속/ 150여 개 권역 지원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한 지역에 30억원씩 투자	1997년 이후 2개소 지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사업		지원중	2005년까지 50개소 지원중
어촌 어항 관광지	어촌어항복합단지	7개소(개소 당 150억원)	2005~2009년
	어항관광단지 (다기능어항)	6개소(개소 당 500억원)	2005~2009년
	어촌관광단지	11개소(개소 당 60억원)	2005~2009년

자료 : 김성귀(2006),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과 과제,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6호.

어촌관광마을체험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아름다운 어촌마을 100선 선정 및 홍보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사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어촌마을 100선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지역 11개 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부산 송도마을, 경기도 대부도, 전북 하전마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30〉 어촌관광 관련 사업별 시설 지원 현황

구분	주내용	사업년도
어촌관광마을 체험사업	일반인 대상 어촌체험 방문 프로그램 시행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사업 시행
아름다운 어촌마을 100선	전국 100개 어촌 선정, 홍보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 시행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사업	어촌관광마을 체험사업 대상지원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사업 시행

자료 : 김성귀(2006),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과 과제,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6호.

또한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제1회 어촌체험마을 혁신 경진대회를 주최하여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발전자금을 지급하였다.

(3) 정책동향

① 개발영역의 다원화

활동성 해양관광행태의 추구와 낙후지역의 개발 필요성 등에 따라 해양관광개발의 공간적 영역은 관광지, 해수욕장 등의 해변에서 해상과 해중, 해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체험적 활동 영역 확대 추세에 따라 기존 해수욕장 관리나 해양형관광지 개발 등에서 마리나, 크루즈, 해양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시설 공급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② 추진방식의 전환

해양이라는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고려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세에 따라 하드웨어 위주의 기반시설 개발과 더불어 교육, 축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정책적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독립적인 지구 및 시설 개발에서 어촌, 어항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 개발을 추진하여 생활과 생산이라는 단일 공간에서 문화와 관광이라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관광객의 이동성 증대에 대한 대처, 해양관광자원의 비수기 타개, 관광개발간 경합 가능성 저감 등을 위하여 기존 해양관광개발 정책은 점적 개발에서 관광벨트 등 면적 개발로 발전하고 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항만재개발사업이 공공성과 상업성으로 사업방향이 구분되면서 기존 공공개발 위주에서 공공과 민간 개발이 분리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③ 다부처의 사업 진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존 육역 중심의 해양관광개발과 해양수산부 중심의 사업으로 다원화되면서 관광행정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행정 주체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적중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도서 개발, 환경부의 갯벌 보전·개발, 해상국립공원 관리 등 해당부처의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간광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④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정비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 법)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마리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 마리나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마리나법률의 적용범위는 해양레저 선박을 계류·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시설(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쇼핑센터, 주차장, 연수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마리나 항만 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 항만 구역의 지정, 행위에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 절차를 둔다.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 근거, 마리나 항만 구역 안에서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마리나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마리나 선박의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의 지정 추진 근거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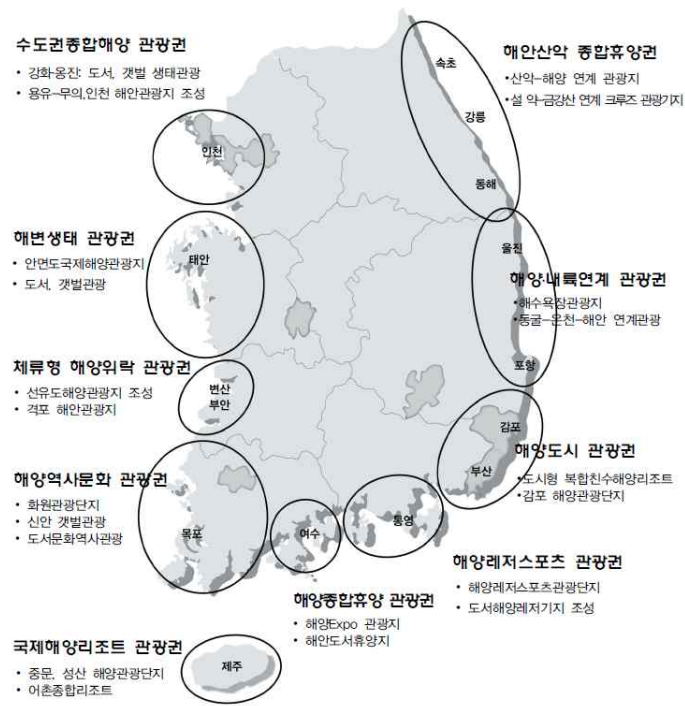
마리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 수면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 할 수 있도록 하며,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양관광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해양개발기본계획(2000~2010)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2000~2010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을 창출이라는 정책과제의 세부과제로 해양관광을 포함한다.

전국 권역별 거점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으로 전국 해안을 10개 해양관광개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마다 특색 있는 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된 동·서



[그림 8] 권역별 해양관광개발권 기본구상

해안 해양관광벨트 개발과 거점 도시 육성하고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해양과학관 건립으로 국가를 종합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문 해양박물관 건립,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 건립 등이다.

다음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진흥은 여가시간 증대와 휴가제도의 다양화, 여행과 건강 증진을 겸한 연수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부응한 활동형 해양관광기반조성, 마린나 시설 확충 및 레포츠 기반 조성, 해양레포츠 연수시설 건립 및 민간 해양체육활동 활성화, 경쟁사업 활성화로 국민에게 해양을 통한 여가 기회 제공이다.

선진국형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은 항만친수공간 정비 및 새로운 해양관광 시설 설치, 해수욕장 자원 보전과 정비,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이며, 마지막으로 2010 세계 박람회 개최는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해양관광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마련, 행사 개최 후 박람회단지를 남해안의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 등이다.

(2) 해양 관광진흥 기본계획(2004~201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시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관광진흥계획 및 계획의 효율적 집행방안 등으로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해양관광분야의 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으로 본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개별 해양관광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먼저 연안친수·문화공간조성으로 해안친수공간의정비·확충, 생태·문화관광의촉진, 해양문화 체험공간의 조성,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수 향만의 조성 등이고 어촌 관광의진흥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농촌관광의 추진 거점으로 육성,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관광 부문 투자 강화, 관광 등 다기능 종합어항개발 촉진, 내수면관광 기반조성 등이고 해상교통관광기반확충으로 항로 다양화 및 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크루즈 관광사업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기반조성으로 레저 선박의 대중화,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및 지원, 레저낚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양관광 진흥시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동법 제28조 제5항의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 관광**으로 먼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으로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콘텐츠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 해수욕장 웹 사이트 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다각적 홍보 지원 등이고 해양치유관광 육성으로 해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화 사업모델 개발,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로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해양레저·관광 지역 특화 시설사업 추진, 친수연안 조성 사업 추진,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항만구역내 해양친수공간 확충으로는 노후·유희 항만의 국제 해양레

저·관광거점화,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기반마련, 테마형 관광어항 정비사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부문으로 첫째 생태관광 활성화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해양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생태관광 정보서비스 강화를 제시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위상 제고 및 각종 대회 개최, 레저낚시의 대중화 기반 조성, 해중레저의 대중화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마리나산업 고도화를 위해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 편의강화, 마리나항만 등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을 위해 먼저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자원을 위해 유·무형 해양문화자원 발굴,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해양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등을 제시하였고 해양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고도화,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방안으로 지역별 관광 특화 전략 수립 지원, 연안도시 축제를 통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주제로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을 위해서는 어촌의 관광자원화로 어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어촌경관 개선사업 추진, 수산물 먹거리 관광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고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을 위해 해안테마마을 조성,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해양디자인대전 개최 등을 제시하였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관광 기반 정비,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섬관광 접근성 제고, 환경친화적인 무인도서 이용·개발을 통한 관광·휴양지 조성, 무인도서 현황도 및 GIS 기반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을 위해 먼저 동북아 크루즈 허브 구축으로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기반 마련, 관광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기항 매력도 제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마케팅 확대, 국제 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국민 크루즈 여행 대중화 등을 제시하였고 마리나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 마리나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아시아 요트 크루징루트 개발 등을 제시하였고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를 위해 박람회 준치시설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박람회장 집객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를 위해 국제요트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양관광 국제회의 참여 및 유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4)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1조(권역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현재 해양관광벨트 사업은 3개가 계획되어 졌고 그 중 남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서해안권과 동해안권 2개는 추진 중이다.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은 지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면적계획으로서 관광객 이동성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자체의 분절적인 관광개발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다.

〈표 31〉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 현황

구 분	남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동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서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계획기간	2000~2009	2003~2020	2008~2017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범위	부산, 경남, 전남 23개 시군	강원, 경북, 울산, 부산 11개 시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군
사업내용	총 64개 사업	총 25개 사업	총 22개 사업
사업비	41,455억원	4,681억원	40,967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차 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6),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06),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국가정책상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맞추어서 서해안 지역의 관광밀그림을 그린 계획으로 비전은 21세기 웰빙시대를 위한 한반도 해양관광 중심축 형성으로 설정하였고, 목표는 웰빙시대와 부합하는 국민관광 휴양지역, 해양,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지역, 개발과 보전의 역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선도지역, 장기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동북아관광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경기도는 수도권 당일형 관광명소화 개발, 충청남도는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 중심지대 조성, 전라북도는 자연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위락형 관광지대 조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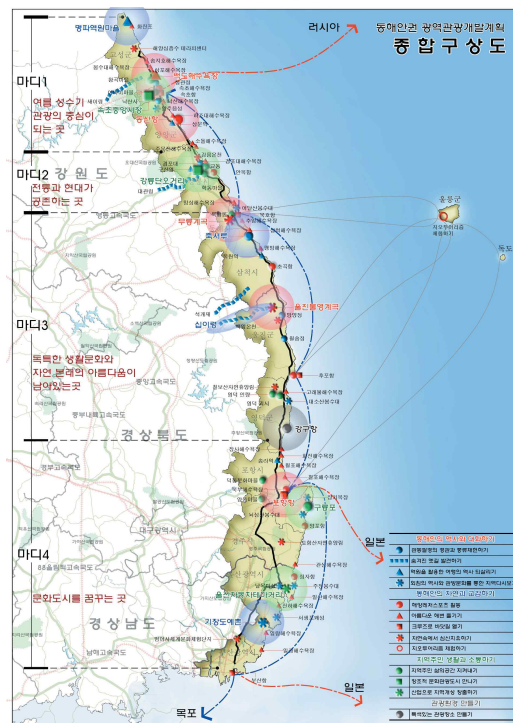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계획내용은 안면도-대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포츠 및 휴양거점으로 개발, 수도권 및 충청남도권을 당일 관광권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이다.



[그림 9] 남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구상도



[그림 10]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구상도



[그림 11]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구상도

(5)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2020)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이지만, 계획적 배경은 환황해권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²⁾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성격은 서해안권을 환황해권 핵심지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안권 인접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초광역적 장기 발전종합계획, 서해안권의 지역적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관련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계획, 서해안권의 지역적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관련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서해안권발전계획 수립의 의의는 환황해권에 대응한 서해안지역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는 점과 더불어서 세계적 차원, 국가차원, 서해안 차원에서의 기능과 역할³⁾을 정립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상 구조적인 측면에 그치던 서해안 지역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하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결정에 많은 도움 및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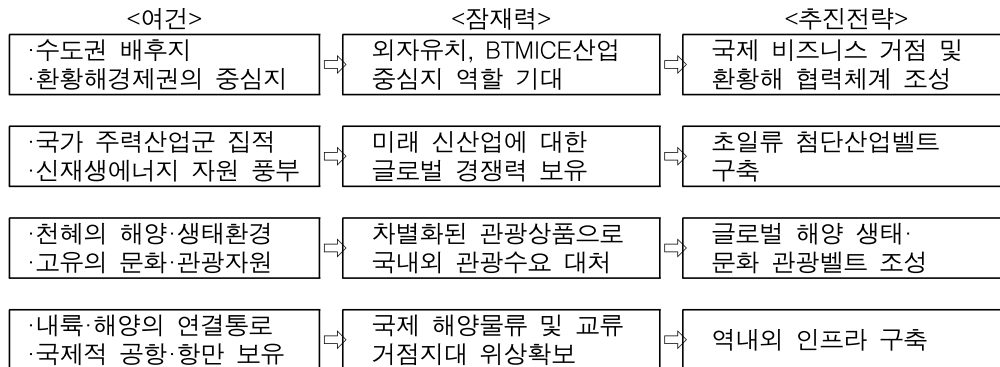
비전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이고, 목표는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동북아 첨단산업의 거점 육성- 국제비즈니스·첨단기술·생태관광 등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조성-인접국 및 국내 주요 거점도시와의 연계강화 및 대내외 인프라 확충이다.

주요 전략은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권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2) 배경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고도성장, 한-미 FTA, 한-EU FTA, 한중일 FTA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권 초광역벨트 구축방안 마련, 서해안권을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환황해권 소비와 투자를 유인할 성장축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수도권 및 내륙과 상생할 수 있는 서해안권 초광역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이다.

3) 서해안권의 역할은 글로벌 경제의 관문(Global Gateway)이자 환황해권의 허브(Hub),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녹색성장의 교두보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견인차, 사람과 문화, 지식과 정보 및 자본의 융합으로 제시하였다.

비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목표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추진 전략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인프라 구축



[그림 12]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충청남도는 국제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북부권의 아산, 서산, 당진의 항만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북부권의 아산, 서산, 당진이 남부의 서천이 계획되어 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연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당진-대산간 고속국도, 충청선 산업철도, 당진항, 보령신항이 계획되어 있다.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계획내용은 국가차원의 계획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국가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중심의 사업계획임을 알 수 있으며, 충청남도는 북부권 중심의 산업과 관광 중심의 사업계획에 집중되어 있다.

〈표 32〉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의 관광부문 주요사업

전략	과제	사업	시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글로벌 해양생태문 화관광벨트 조성	권역별 관광거점 육성	인천문화관광레저복합도 시	중구, 강화, 옹진			
		시화화성호권 해양레저복합단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충남(태안)국제관광거점 조성			서산, 태안, 보령, 아산, 홍성, 서천	
		새만금권 복합휴양레저도시조성				부안, 고창, 김제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 구축	인천	평택 항	당진 항	군산항 새만금 신항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정비				김제, 부안, 고창, 정읍
		강화역사문화관광지 조성	강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학습공간 조성			서천	군산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 센터 건립	강화	김포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관리			서천	고창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새만금

주)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재정리

3) 해양관광 관련법규

(1) 유형별 법률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에 관한 통합 법령은 없으며, 대신 관광지개발, 시설 건설, 해양 관광 활동 및 사업 등에 관한 35개의 개별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광 관련 법률을 성격 및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으로서의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 기본법과 해양관광개발과 관련된 특별법, 둘째 해안과 해수면의 용도 및 구역 지정과 행위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공간 관련법, 셋째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관련법, 넷째 레저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기본법 및 특별법, 공간 관련법, 환경 관련법은 해양관광 시설 조성 및 관광개발에 있어 기초하여야 할 법령이며, 해양레저활동 관련법은 해양관광 활동 및 사업 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33〉 해양관광 관련 법령

구 분	관련법	비고
기본법 및 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관광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5개
공간 관련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염관리법, 도서개발촉진법, 방어해면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영해및접속수역법	12개
환경 관련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연공원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7개
해양레저활동 관련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11개

자료 :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먼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법을 살펴보면 5개의 관련 법률이 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책은 하위 실천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해양관광지 개발 및 시설 조성 시 먼저 관련 기본법 및 계획을 검토하여 개발 및 건설 행위가 적법한지 혹은 상위 계획 및 시책과 상반되진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법의 효력이 연안지역에 한정되는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는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산업 진흥시책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간과 관련된 법률은 총 12개가 있다. 연안지역의 구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이용 용도 및 구역을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역의 개발 및 이용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있다. 그리고 항만, 어항, 염전, 어장, 군사 지역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항만법, 어촌·어항법, 염관리법, 수산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방어해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은 어촌과 도서지역의 개발을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적인 성격과 함께 개발 용도 및 구역을 설정하는 실체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법률은 총 7개의 법령이 있으며, 그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개발 및 관광활동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시설의 관리 및 관광활동을 규제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핵심법령이다. 한편 국립공원 혹은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해안 및 연안은 자연공원법에,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그 밖에 자연환경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은 연안지역보다는 육지의 오염원을 통제·관리하는 법령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활동 및 사업 영위를 위한 면허 및 인·허가, 해양 질서 유지,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레저활동 관련법은 총 11개가 있다. 이중 수상레저안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법은 선박을 이용한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업, 바다낚시 사업, 유람선(크루즈 포함)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이나, 일반 레저인들이 관련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면허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안전한 해양관광활동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광업을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트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에 포함되고, 요트장업은 신고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소관부처별 법률 검토

〈표 34〉은 소관부처별 해양관광 관련 법령을 보여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개발 및 시설조성에 필요한 해양관광관련 기본법과 연안 공간의 용도 및 구역 지정,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을 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활동과 관련된 선박, 항만, 수상레저활동, 해상질서를 관장하고 있어, 해양관광 진흥정책 및 관리업무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다.

〈표 34〉 소관부처별 해양관광 관련 법령

소관부처	관련법	비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15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낚시어선법,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6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4개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연공원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5개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1개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	1개
국방부	방어해면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2개
외교통상부	영해및접속수역법	1개
소방방재청	유선및도선사업법	1개
합 계		35개

자료 :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3) 해양관광 관련 주요 법제도의 문제점

① 기본법 및 특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의 개발과 보전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고, 관광기본법은 관광개발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다. 그러나 관광기본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육지위주로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해양관광 육성에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는 해양관광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이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해양관광은 위에서 법체계를 살펴보았듯이 여러 정부부처와 연계되어 있는데, 부처간 연계방법이 미흡하다. 동·서·남해안특별 역시 해양관광진흥 정책 수립과 국가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다른 법 및 계획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공간 관련법

어항 혹은 항만구역에 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해양관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주로 국가어항)기본계획 혹은 항만기본계획에 시설 조성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어항 혹은 항만구역이 아닌 해역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어장은 물권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촌이 발달한 지역의 연안에서 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해양관광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역 어업인의 이해와 협조한 필요하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는 지급하여야 하는데, 마리나 및 해양레저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용료가 부담을 작용하여 민간의 마리나시설업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해양관광 관련법

우리나라에서 모터보트, 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자를 영위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 등록하여야 하고,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 그리고 안전운항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동 법은 수산동식물의 채취에 대한 조항이 없어, 레저보트 이용객들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없다. 그러나 레저보트 이용객들은 운항 자체를 즐기거나 해안경관을 감상하는 것과 함께 바다낚시를 흔히 즐기며, 레저보트 사업자들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함과 동시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요트조종면허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특히 국제대회 개최 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해외 요트선수들은 모두 조종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요트대회에서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향후 국제요트대회 개최 및 외국 국적의 선수들이 국내에서 요트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람선 및 크루즈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하여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해운법에 의거하여 순항(巡港)여객운송사업으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유선은 규모 적은 선박을 이용하여 연안을 순회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 크루즈선으로 2천톤 이상이어야 한다.

바다낚시 사업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유료낚시터로 지정받거나 낚시어선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제한은 없다. 즉 바다낚시는 유어장과 낚시어선에서의 낚시에 대해서만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안전조치나 해양환경 오염 방지규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장이외 지역에 바다낚시시설에 대한 관리근거가 부족하다.

4. 해양관광 사례 분석

1) 멕시코 칸쿤

(1) 지역개요

멕시코 남부의 유카탄(Yucatan)반도 동부의 키타나 루(Quintana Roo)주에 있으며 수도인 멕시코시티와는 약 1,500마일, 미국 마이아미와는 약 550마일 떨어진 인구 약 30여만 명의 도시로 멕시코 내 최대 휴양지이며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이다.

숫자 ‘7’ 모양의 섬과 내륙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의 길이는 총 16마일(25.6km), 폭은 300m~500m 정도이다.

지역의 평균기온은 섭씨 25.5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맑은 날씨를 보여주는 지역 중의 중의 하나이며 온도변화는 5~7도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과 맑은 하늘이 자랑이며, 마야문명의 고대 역사유적지가 있다.

(2) 개발과정

1967년 멕시코정부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끌 수있으며 동시에 호텔과 위락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외국자본을 많이 끌어들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시작하였다. 1969년 전담기구인 관광개발공사(FONATUR)를 설립하여 3단계로 개발을 수립·추진토록 하였다. 1970년대 The Palacio Maya and Club Med 호텔이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198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많은 호텔과 미국식 쇼핑센터 등이 조성되었으며 일련의 위락시설 등의 조성이 이어졌다.

호텔 지역인 25.6km의 기다란 섬 지역 중 현재 23km 정도가 호텔, 프장, 상가 및 레스토랑 등 관광시설로 개발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표 35〉 칸쿤 개발 과정

연 도	내 용
1960년대 이전	어촌마을로 형성
1967년	휴양지 개발 타당성 평가
1974년	미국인 사업가의 개발 제안
1975년	관광지 개발 시작
1980년대	미국식 리조트 조성

(3) 주요시설

칸쿤은 현재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지구는 인구 30여만 명의 보통의 일반도시인 도심부(The Ciudad de Cancún), 둘째는 아름다운 호수(바다), 열대우림과 맹그로브로 이루어진 생태보전지역(the Reserva Ecológica), 그리고 호텔과 쇼핑센터의 천국인 호텔지구(Zona Hotelera)이다. 칸쿤에는 Hilton, Hyatt, Riu, Sherato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140여 개의 호텔이 있으며, 특급(별 4개 이상)관광호텔 객실도 25,000실 정도에 이른다.

200여개의 해변카페 및 씨푸드 레스토랑과 대규모 쇼핑센터 및 수백 개의 쇼핑시설이 있으며 기타 지원시설로 병원, 전기, 전신, 통화, 국제공항 등이 있다.

칸쿤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은 우선적으로 맑은 하늘, 기온, 바다와 해변, 모래사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 칸쿤지역 주변에는 마야문명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유명한 멕시코 6세기 경 마야문명의 최대유적지인 91계단의 쿡ulkan 피라미드가 있는 Chichen Itza와 11세기 고대 도시 유적지인 Tulum이 있으며, 세계 최대의 해상생태공원인 Xel-Ha가 있다.

주요 관광상품으로는 스노클링, 낚시, 골프, 사냥, 정글투어 등 200 여종이 넘는 관광상품이 있으며, 골프코스, 요트클럽, 해양공원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수상스포츠 시설이 있으며, 마야유적지 탐험 등 문화와 자연환경 체험상품 및 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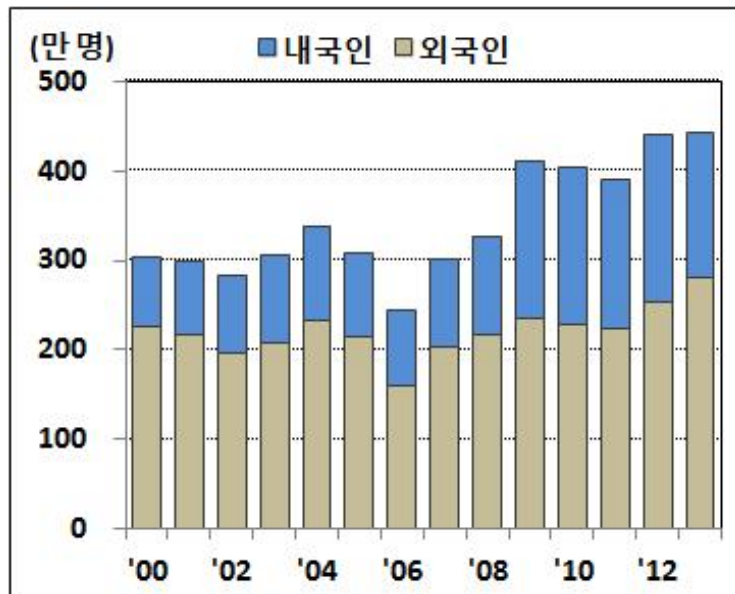


[그림 13] 칸쿤

(4) 시사점

칸쿤은 자연, 문화유적 등 관광목적지로서의 선천적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휴양, 경험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제공한다. 이는 쾌적한 기후 및 해양 경관, 주변의 고대 유적지를 갖춘 가운데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칸쿤을 찾는 관광객은 연 400만명이며 이중 60% 이상은 외국인이고 다른 휴양지보다 체류일이 길어 고부가 가치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국관광공사(2005), SECRETARIA DE TURISMO.

주 : 숙박관광객은 호텔 및 리조트 숙박객 기준.

[그림 14] 칸쿤 숙박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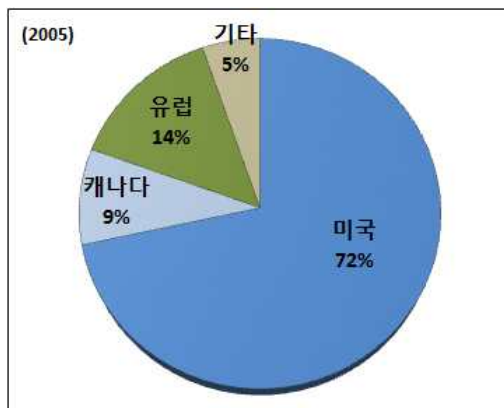
미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휴양객이 증가하고 관광 소득이 증대되면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휴양지로 부상하고 있다. 칸쿤에 투숙하는 관광객 가운데 60% 이상이 외국인이며,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미국인의 비중은 72%(2005년 기준)⁴⁾로 칸쿤은 멕시코 입국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4)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관광지개발의 주요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2014

20%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칸쿤은 휴양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일이 길어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 수익이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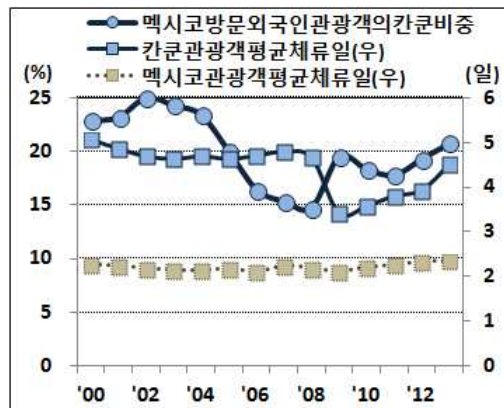
또한 휴양지로서의 환경적 이점에 해외 배후 시장의 적극적 활용과 정부의 개발 의지 등이 더해지며 관광지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기후, 해양 환경 등 사계절 휴양지로서의 선천적인 경쟁력으로 관광지 개발에 성공하였다.

미국 소비자의 취향에 바탕을 둔 관광지 개발과 지역 전역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등 배후 시장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3)하였다. 개발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역시 주요 성공 요인이다.



자료 : 문화관광부(2006), SECRETARIA DE TURISMO.

[그림 15] 칸쿤 외국인관광객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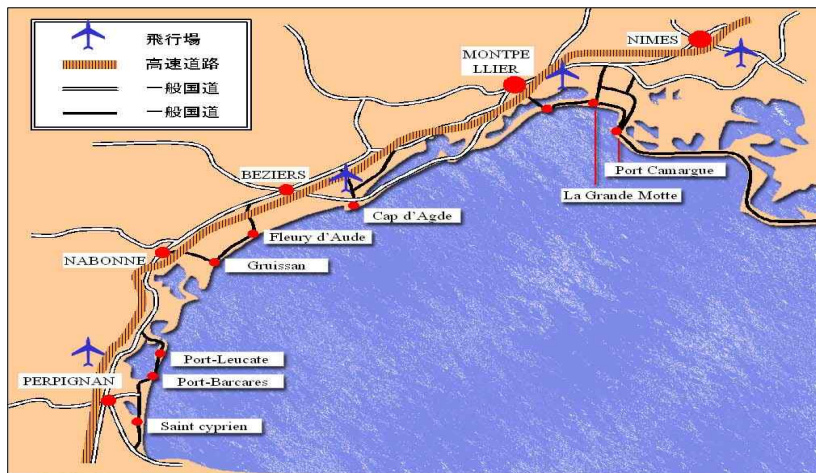
자료 : 문화관광부(2006), SECRETARIA DE TURISMO.

[그림 16] 칸쿤 및 멕시코 관광객 체류일

2) 랑그독루시옹⁵⁾

(1) 지역의 개요

랑그독루시옹은 프랑스 남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도는 몽펠리에(Montpellier), 면적은 27,376km²로 지중해의 니스(Nice)와는 320km 가량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론강, 남동쪽으로는 지중해에 면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피레네산맥이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고, 북쪽은 마시프상트랄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가르와 로제르 현계를 세반산맥이 가로놓아 있다.



[그림 17] 랑그독루시옹 주요관광지구(도시) 위치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대한 부채꼴 모양의 랑그독루시옹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연간 300일의 쾌청일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랑그독루시옹은 유럽과 지중해라는 이중적 영향력 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220km의 해안선(이 중 180km는 고운 모래사장), 바위 절벽, 해적호(海跡湖) 등이 유명하다.

랑그독루시옹은 해양, 철도, 항공, 육상 교통의 결절지,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대학운영체계,

5) 참고자료 : 전라남도, 『동북아 관광거점 개발육성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 2004년 국토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 2004년 국토연구원

외부시장을 겨냥하는 기업 운영과 최첨단산업기지유치 등으로 지역내에서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 개발과정

1963년, 코트 다쥐르가 과부하상태에 이르자 수백만의 프랑스인이 바다와 태양을 찾아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고 이에 프랑스 정부는 휴가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고 해외여행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랑그독루시옹 관광개발을 결정하게 된다.

랑그독루시옹 지역의 리조트 개발계획은 1963년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시작한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Racine plan의 일부).

“지역개발 도시계획법(Plan d'urbanisme directeur d'intéet regional)”을 제정하여 랑그독루시옹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1963년 6월 ‘랑독·루시옹 연안 리조트개발의 결정 및 프로젝트팀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특무행정기구(Mission Interministerielle)를 조직하여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하였다.

특무행정기구는 재무부, 내무부, 청소년스포츠여가부, 환경 국민생활부, 교통부및 5개 각주 지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였고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코원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관광개발합동위원회 설치하였다.

특무행정기구 설립 전후의 2단계 토지 취득전략 수립하였다. 특무행정기관 설립전인 1961년에 1,200만㎡의 용지를 확보하였고, 제 2단계 사업으로 정부에서 「토지수용과 지가 동결의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총 4,000ha를 매입하여 6개 도시로 개발하였다(각 도시당 600ha 정도).

4,000ha의 매입토지 주변 40,000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억제하였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지정하고 이후 DUP(공공이익에 관한 선언)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보호청(영국의 National Trust와 유사한 기관)이 전량 매입하였다. 특히 토지투기를 방지하여 위하여 분양 후 3년 이내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박탈하고 거점지역별 주임건축가를 선정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통일된 디자인과 건설기준을 가진 기본구상에 의해 개발하였다. 토지매입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가운데 늘지는

0.5-0.8프랑, 포도밭은 4-5프랑 정도로 매입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꼬뮌의 대표를 포함시켜 공동개발위원회 구성하고 토지 매입 및 조성, 행정 건물 건축, 민간 개발업자 분양 업무를 추진하였다.

각 지구별 개발사무소는 정부예산으로 취득된 토지를 인수하고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연리 3.6 - 6.0%)을 투입하여 배수시설, 도로개설, 철도역, 주차장 등을건설한 후 개발지구를 민간업체에게 분양하고 민간업체는 정부보조금, 은행융자금(연리 3.5 - 6.0%)을 투자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마리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여 일반에게 분양하였다.

각 리조트지구별 개발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개발형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5개 지방), 민간기업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였다.

모기로 가득 찬 늪지대이며 심한 바람의 불모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해안선을 따라 라그랑드 모뜨(La Grande Motte)와 르 캅 다그드(Le Cap d'Agde)는 신설하고 기존 도시의 시설을 재정비하여 신관광지구(UTN, Unité Touristique Nouvelle)를 조성함으로써 통일된 디자인과 건설기준을 가진 개발 기본구상을바탕으로 6개 관광도시를 조성하였다.



[그림 18] 개발 후 모습



[그림 19] 마리나

통일된 디자인과 건설기준을 가진 개발의 기본구상에 의해 개발을 추진하였다. 각 지역이 개개의 건축가에 의해 독특하게 구상되었는데 그 예로 그랑모뜨는 장 발라드가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지고 휴양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정하고, 캅다그드는 쿠퍼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차를 놓고 보행위주로 활동하도록 배치하였다.

개발추진반에서는 계획통제 업무만 맡고 구체적인 건설 및 자금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였으며, 각종 이해관련자가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디케이트 즉, 조

합(협회)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또한, 해변관광객을 위해 해변지역에는 차량통제를 하고 선박을 별장 앞에 용이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대부분 지역은 원래 자연보전지역으로, 자연을 원상태로 보존하면서 근대적인 관광시설을 개발하였다.

정부에서 사업추진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 정도 보고를 받을 뿐이며 그 외에는 전혀 간섭을 배제하여 25년 동안 빈번히 바뀌는 관광객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 용이하였고(스포츠 시설, 요트정박시설 등) 국민 전부에게 관광지개발에 관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캠핑장 개발 등).

(3) 주요시설

건설목표를 관광지 개발로 설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포도산업이 주산업인 농업지대로서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곤란하여 첨단산업 등 입지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주목표로 설정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20만명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프랑스인 75%, 기타 외국인 25%를 수용할 목표로 건설하였으며, 현재 주변도시 지역내 시설을 포함하여 100만명의 수용능력을 육박한다. 마리나 중심으로 개발된 6개 관광도시를 모두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180km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정비하였으며, 관개 및 급수시설정비, 토지기반, 항만, 호텔, 별장, 가족호텔, 캠핑장 등을 조성하였다. 이중 20% 정도의 면적은 사회적 용도(청소년, 노인 등)로 이용하고 있다.

랑그독루시옹에는 특급호텔 22개, 중저가 호텔 939개, 콘도 273개, 골프장 20개, 컨벤션 센터 5개가 있으며, 5개의 공항 중 2개가 국제공항이다.

관광객은 연 1,400만명이며, 관광수입은 55억달러, 관광종사자는 6만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개발 후 문제점과 대책

계획당시 1가구 1중심에서 차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설계개념인 1차량에서 변화하

여 주차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랑모뜨의 경우 상주인구가 6천명에 이르고 있어 성수기시 최대관광객 10만명의 10%에 육박하면 관광객과 지역민 사이의 이해상충관계 발생 우려되었다.

상인들이 겨울장사를 위하여 산악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비수기 소득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획된지 40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 개발 결과

지역진흥과 국민 위락수요 충족을 위해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프랑스의 대표적 해양리조트 지역으로 성장하여 연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프랑스 제3의 관광지로 부상하였고 현재 관광산업은 지역 GRDP의 12%를 차지하며 3만5천명의 정규직과 2만5천의 임시직이라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관광객은 1963년 50만명에서 2003년 1천만명 가량으로 20배 증가하였으며, 방문객 중 1/4은 외국인, 평균체류일수는 8일 가량이다. 관광수입은 1976년 30억 프랑에서 1986년 80억 프랑, 2002년 49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1983년 지역의 주요 산업인 와인 생산액을 추월하였다. 개발전후를 비교해 볼 때, 전국대비 여름철 관광객 유치실적은 1970년의 6.7%에서 1990년 12.1%로 뛰어 관광이란 단일산업이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프랑스에서 매우 드문 지역이 되었다.

(5) 시사점

랑그독루시옹에는 낙후지역 개발, 국토균형개발, 국민레저공간 확대의 모범사례로 불리며 관광객은 일회적 손님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거주민이 되어 하나의 공동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공간개념인 자유시간 도시를 제시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⁶⁾

전반적으로 랑그독루시옹이 20년 ~ 30년에 걸쳐 완성한 관광개발은 지난 2~3천년간 이 지역이 겪은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1963년도에 라신 미션(Mission Racine)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해안관광개발은 해안풍경을 전

6) 이석우,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개발(2007)

폭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내륙지역 개발은 기존의 관광지와 자연 보존정책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공원, 자연보전지구, 해안보호 지구 등 자연보호지구의 면적은 총 30만ha에 이른다. 개발 지구당 평균 3~5만ha의 자연환경보전이 이루어진 신도시 조성, 전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180km의 해안도로 정비, 4개 공항, 17개 항만, 3개 TGV역, 파리-코트 다쥐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정비 등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관광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투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랑그독루시옹은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를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 해안이라고 각인시킴으로써 60%에 달하는 지역의 천연자연자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또한 천편일률적 도시계획으로 지역 독창성이 보이지 않으며 캠핑장이 속출하는 등 과도개발현상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계획이나 집단시설투입 등 무질서한 과밀개발을 지양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3) 카프리

(1) 지역의 개요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 나폴리현에 있는 카프리섬 나폴리만 입구, 소렌토 반도의 앞바다에 위치하여 서쪽은 높이 6200m가 넘는 고지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는 용암으로 뒤덮여 있으며, 올리브·과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섬에는 850여종의 다양한 꽃과 식물, 나무가 자라며,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텃새들의 서식지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며, 섬 동쪽의 카프리 타운은 페리와 고속정이 도착하는 마리나 그랑데항구에서 해발 299m 카프리 정상에 이르는 리프트가 운영되고 있다.

카프리섬은 너비가 1.6km, 길이 2km로 도보로여행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미니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 지역 관광

가장 유명한 섬인 ‘카프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건축물, 역사적 스토리의 복합적 연

출 등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 7)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나폴리 남쪽 35km 지중해 상에 위치하며, 10km²의 면적에 약 12,500명이 거주하는 이 섬은 쾌적한 기후, 코발트빛의 지중해와 더불어 푸른 동굴, 기암절벽, 850여종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을 비롯한 다수의 로마귀족 저택 등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인접한 나폴리, 소렌토, 폼페이 등과 연계된 휴양, 해상·항공유람, 명품쇼핑 등 다양한 패턴의 관광을 제공한다.

산타루치아 해안 건축물을 10층 이하로 억제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해양경관 보전에 주력하는 한편, 아나카프리(Anacapri)까지 연결되는 리프트 설치를 통해 섬의 다양한 경관 감상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카프리 섬과 더불어 유명한 이스치아 섬은 자연환경·해양자원 보전, 향토음식,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온천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호텔·공원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카프리섬은 오랜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관광지로 된 사례로 방문하는 관광객 중 체류관광객이 75% 정도이며, 평균 체류일수는 내국인은 3일 외국 관광객은 평균 1주일 정도를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관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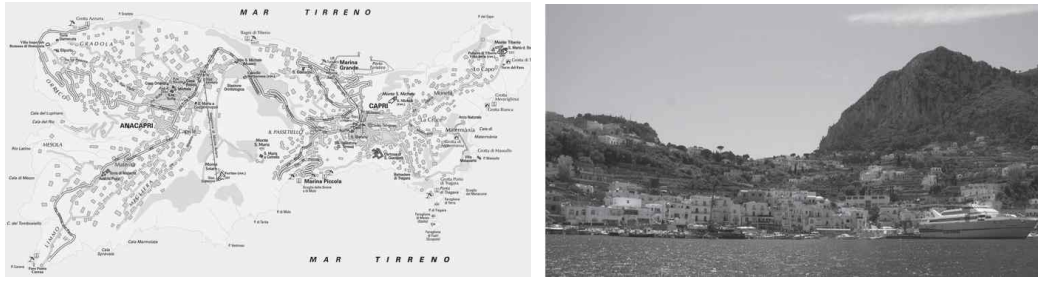
카프리는 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자연경관 보존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건축물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⁸⁾

카프리섬은 피렌체, 베네치아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85년 이후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하고 일부 개보수만 허용하고 있다. 높이·색채 등이 상이한 건축물에 대해 불허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와 구상권 행사, 형사고발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로서 섬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소비로 연간 350만 유로를 투자할 만큼 섬 경관의 관리와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카프리섬에서 가장 큰 마을인 카프리타운에서는 골목길을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조지오 아르마니 등 숍들을 유치하고 쇼핑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혁신도시 관련 해외사례조사 결과보고, 2006

8) 경남발전연구원, 국제적 섬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13



[그림 20] 카프리

(4) 시사점

① 역사자원의 관광자원화

카프리 섬은 고대 로마 시대 황제의 별장을 비롯하여 로마 귀족 등의 별장이 현존하고 있어 이를 통해 역사 문화 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다. 또한 주변의 나폴리, 폼페이 등과 연계한 크루즈 및 항공 관광 등을 통해 단순한 섬 관광이 아닌 다양한 패턴의 관광을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높은 체류기간과 재방문율을 보이고 있다.

②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카프리 섬은 30년 전 육지와 연결되는 상하수도의 조성을 통해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섬의 지속적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섬의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다.

③ 강력한 규제를 통한 어메니티 창출

카프리 섬은 고대 역사 자원의 보존과 자연자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관광 요소를 창출하고 있다. 섬의 경관과 관련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및 형사 처벌 등 강력한 법 규제를 통해 섬의 경관 자원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섬의 건축물 색채와 맞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및 구상권 행사, 그리고 형사 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집행한다.

④ 다양한 연계 교통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은 섬과 육지의 접근성에 대해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상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육 및 연도교를 통한 접근성 향상은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훼손을 유발시키므로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산토리니

(1) 지역의 개요

그리스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73km²로 5 ~ 9월까지 계속되는 온화하고 쾌청한 날씨가 관광의 쾌적성을 높여주는 대표적 요인이다.

화산폭발로 인해 산토리니의 중심부가 가라앉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저칼데라를 둘러싸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특이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꼽혀지고 있다.

산토리니 섬은 농업이나 어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관광의 의존하고 있다. 레드비치, 화산분화구 및 온천 등이 에게해와 조화된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권역별로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2) 지역관광

빛 바다와 하늘에 어울리는 파란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였으며 산토리니의 중심지인 피라마울에는 관광객을 위한 렌트업·여행업·호텔·요식업 등이 발달되어있어 관광객을 위한 쇼핑가를 포함한 편의시설이 아테네 등 인근도시 수준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산토리니섬은 선사시대 유족부터 비잔틴 시대의 교회, 가톨릭 성소 등이 같은 공간에 어우러져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건축 및 생활양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공원인 불카노섬이나 아기섬 등 인근지역의 섬과 연계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고대아크로티리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선사시대 티라박물관을 비롯하여 메가론기 박물관에는 1956년 지진이전과 이후의 피라모습을 담은 사진을 포함하여 현지역사를 전시하

고 있다.

산토리니의 관광행태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렌트하여 단기간에 섬을 일주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해변에서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거나, 크루즈를 이용하여 섬을 방문하기도 하고 선사박물관 등 문화유산을 견학하는 등 다양하다.⁹⁾

(3) 개발정책

그리스의 관광정책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최소화 하고 역사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최소화하고 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기위해 건축물의 높이·색채·창문 등에 규제시책을 시행하여 도서전체가 예술적인 경관을 연출하도록하였다.

접근성 개선 및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과 숙박문제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의 경우 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섬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헬리, 고속정 등 다양한 해상교통수단뿐 아니라 항공수단을 적극활용하고 있음 그리스 24개 섬 지역에 항공수단(비행기)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다.

숙박의 경우 비수기에 호텔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일정부분 국비를 보조하거나, 호텔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에 사업성 검토를 거쳐 국고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1] 산토리니

9) 차미숙, 해외의 섬개발정책의 사례와 시사점-그리스 산토리니섬과 이탈리아 카프리섬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7

(4) 시사점

① 섬 고유문화의 관광상품화

섬이 가지고 있는 육지와는 차별화된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섬 주민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다.

② 지역주민과 연계한 관광개발방식의 추진

그리스의 섬들의 경우 지역 사회기반형 관광개발 방식 추진을 통한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섬내 숙박문제 해소를 위해 섬 지역주민의 관광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호텔 등 개보수시에는 사업성 검토를 토대로 국비를 지원해주고, 관광객의 쇼핑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토산품 및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③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 필요

그리스의 경우 섬 관광이 활성화 된 배경에는 세계 1위의 해운업이 섬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섬 경우에는 연육 및 연도교 조성 외에도 정기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통한 접근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항공 교통수단과 같은 다양한 접근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쟁점과 본 연구의 시사점

1) 쟁점

전반적으로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가 필요한 지역의 위치와 공간범위를 정하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 문제점, 잠재력을 파악하여 관광거점을 선정하며, 선도산업 및 추진기업과 연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산업 및 기업의 육성과 발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관광거점의 개념·규모·역할 등을 명문화 한다. 둘째, 관광거점지역의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확립으로 지역이기주의, 정치권의 이해 관광 등을 배제한다. 셋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최적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지역을 선정한다.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장구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관광거점과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관광거점과 주변지역은 동일한 개발개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Integrated Development Planning)을 통해 도출하여 전 계획지역의 기능, 형태, 색깔,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서 디자인하는 도시설계(Urban Design)기법을 사용한다거나 각 세부지역 시설물 그리고 관리측면을 동일한 대주제로 세부적으로 다양한 테마를 갖게 하는 테마파크의 디자인기법의 사용도 권장할만하다. 또한 일단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수립된 마스터플랜은 지속적인 피드백과정을 통해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계획과 방향은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한다.

관광거점에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의 선도산업을 집적시켜 기능을 다양화하게 하여 비수기를 대비한다. 관광산업은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계수가 높아 일시적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불황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기간산업의 유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한 차이가 나므로 관광산업과 유통산업, 관광산업과 환경산업, 관광산업과 컴퓨터, 반도체, 정보산업 등과 같은 산업의 조합으로 관광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관광거점의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복합적 이용개발(Mixer Use Development; MXD 또는 Multi Use Development)을 추진함으로써 기능의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의 랑그독 루시옹지역도 관광시즌이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해 별다른 기간산업이 없는 이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연환경, 문화유적, 조각물 등과 같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거점내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자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 거점지역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최소화 한다. 최근 지역의 농산어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의 투자를 중요시한다.

첫째, 노동집약적이고 중간적 기술 및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산업 육성,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고유산업을 권장한다. 둘째, 지방정부에 더 많은 정책결정권과 투자재원을 부여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거점과 주변지역(또는 관광자원/매력물)을 공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과 교토수단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관광루트화 함으로써 이용 및 접근성의 효율을 높인다. 즉 Hub&Spoke의 개념과 같이 관광거점과 주변 지역간 편리한 교통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개발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개발, 관광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낙후지역의 중규모도시가 거점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행정중심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건강·노동력 훈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개발·관리지원체제를 확립해야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원협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즉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을 적극 반영한 관광거점 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자연·문화환경의 보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확보, 관광자의 관광경험의 질 유지 등을 중시하듯이 관광거점도 이러한 개발개념을 적극 반영해야한다.

또한 거점개발방식은 시설이 한곳에 집중되므로 분산개발방식에 비해 환경훼손율이 낮다고는 하나 관광거점개발이 인위적인 새로운 시설의 집중개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 및 기존 사회문화시설을 간과할 여지가 있으며,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나 절대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관광자원은 Honey-Pot 개발방식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지역에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관광자의 이용행태를 변경시키는 계획도 권장할만하다.

2) 본 연구의 시사점

먼저 관광거점의 개념, 규모, 유형, 기능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광거점은 지역개발이론의 성장거점이론을 차용하고 있는데, 관광부문에서의 개발계획은 대체로 뛰어난 관광매력물을 근간으로 수립·집행되기 때문에 관광매력물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라는 기본적인 한계점(즉, 공간분포상의 불균형)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광거점을 국제적 수준(international level), 전국수준(national level), 지역수준(regional level), 단위지역수준(local level)에 따라 다른 규모와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거점을 주거·업무·관광휴양기능이 포함된 자생력 있는 도시적이 유형, 자연 및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리조트적 유형, 기존 도시 및 관광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촉매역할로서의 관광거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관광거점을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겠지만 관광거점내에 집적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거점은 수익창출기능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민자 및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셋째, 관광거점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관광거점은 공간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집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 매우 많다. 기존의 법제도의 틀 속에서 관광거점 개발 추진시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관광거점개발의 실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반영하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거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겠으나 거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투자재원 확보 및 투자우선순위에서의 당위성 확보이다. 관광거점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반되므로 필요한 재원확보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광거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당위성 확보이다.

다섯째, 민간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와 인센티브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관광거점

과 같은 거대한 개발사업은 계획 특성상 공공의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민간 및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성공 여부는 해당 국가의 개방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민간 및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민간투자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형평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방향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관광거점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산출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정부당국의 의지이다. 정부당국은 대체로 단기간에 그 효과를 산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거대한 개발사업은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계획초기의 확고한 의지로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일곱째, 관광거점 및 시설물개발에 필요한 가용토지의 조기 확보이다.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시 관계부처 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같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때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상승하는 경우 가용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따라서 호텔, 리조트 등과 같은 관광시설에 대한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랑그독루시옹의 경우 전담기구가 확정한 계획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발초기의 구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 충남 해양관광 실태와 과제

1. 충남 해양관광자원 및 개발현황

충남의 해양관광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자원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으로 도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침수해안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해안선의 출입이 매우 심해 과거부터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방조제 등이 대형화됨에 따라 곳곳의 해안선이 대폭 단순해져 해안사구가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만리포·연포·몽산포·대천·무창포 등 해수욕장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개발은 변화하는 관광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성 극복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자연관광자원

① 해안 및 도서 현황

충남의 해안선은 1,087.19km으로 육지부 731.63km, 도서부 346.36km이며, 도서는 271개로 유인도가 32개, 무인도가 2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태안군이 530.80km로 해안선이 가장 길었으며, 도서 또한 119개로 가장 많은 도서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도서에는 총 17,23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0.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 인구는 태안군이 13,051명으로 충남 도서 인구의 75.7% 수준이며, 태안군 전체 인구의 20.1%로 나타났다.

〈표 36〉 해안선 및 도서(2012년 기준)

구 분	해안선(km)			도 서 현 황 (개)			면적 (km ²)	인구(명)
		육지부	도서부	계	유인도	무인도		
충 남	1,137.99	791.63	346.36	270	34	236	162.81	17,234
보령시	251.92	79.95	171.97	91	16	75	21.06	3,266
아산시	7.96	7.96	—	—	—	—	—	—
서산시	143.27	115.07	28.20	27	4	23	4.07	359
당진시	96.42	65.90	30.52	8	5	3	8.06	369
서천군	84.68	70.91	13.77	14	1	13	1.03	121
홍성군	22.94	16	7	11	1	10	0	68
태안군	530.80	435.6	95.2	119	7	112	128.43	13,051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07년 이후 충남의 도서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라는 것이다. 2005년 기준 충남의 도서인구는 15,256명에서 2012년 17,234명으로 연평균 1.7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안군이 연평균 3.02%씩 증가하여 전체 도서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산시와 당진시의 경우도 소폭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도서 인구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인구	연평균 증가율
충남계	15,256	16,094	15,204	15,350	15,328	16,836	17,715	17,234	1,978	1.76%
보령시	3,692	3,661	3,675	3,612	3,574	3,417	3,352	3,266	-426	-1.74%
서산시	326	618	354	376	392	392	373	359	33	1.39%
당진군	411	363	363	363	368	368	368	369	-42	-1.53%
서천군	136	136	128	128	135	128	121	121	-15	-1.66%
홍성군	95	95	88	83	71	69	68	68	-27	-4.66%
태안군	10,596	11,221	10,596	10,788	10,788	12,462	13,433	13,051	2,455	3.02%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②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자연생태계보유지역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충남에는 총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 중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태안 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국립공원으로 경승지일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고, 독특한 식물분포를 나타내는 등 자연적 특징을 보여준다. 서산시에 지정된 시군립공원은 서산시 읍내동에 위치한 중앙호수공원으로 해양관광자원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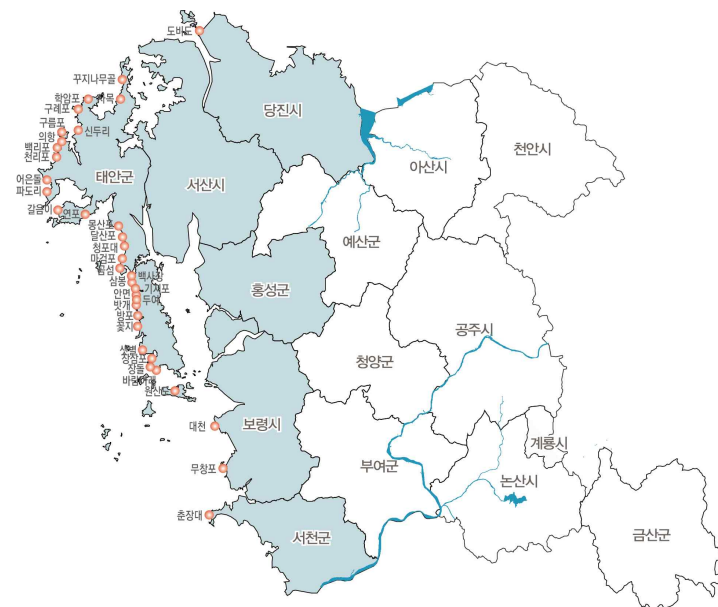
구분	계		국 립		도 립		시 · 군립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합 계	2	377,689	1	377,019	0	0	1	0.67
보령시		20,366		20,366				
서산시	1	0.67					1	0.67
태안군	1	356,653	1	356,653				

주 : 태안해안국립공원 면적 377,019km²(보령 20,366, 태안 356,653)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

③ 해수욕장

충남의 해안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 모든 연령층이 해수욕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충남에는 2012년 기준 총 51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태안군이 32개소로 가장 많고 보령시 17개소, 당진시와 서천군이 각각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의 총 길이는 61.04km이며 총 면적은 14,294,781m², 백사장은 11,799,000m²의 규모이다.



[그림 22] 충남 해수욕장 현황

2012년 기준 해수욕장의 방문객을 살펴보면 무창포해수욕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몽산포해수욕장과 꽃지해수욕장은 각각 연평균 18.93%, 17.2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잦은 폭우와 수해, 경기침체, 관광객의 관광패턴 변화가 맞물리면서 대체적으로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1박 2일 등)과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관광패턴이 변화하면서 가족단위 방문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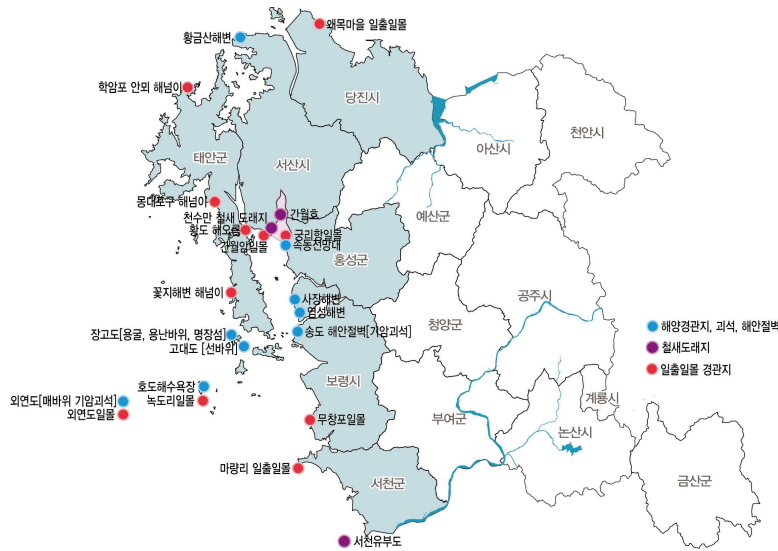
〈표 39〉 해수욕장 관광객 수(2012년 기준)

구분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5-12)
합계		41,622,326	31,237,783	23,383,866	-7.91%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16,543,913 (39.7)	14,382,110 (46.0)	12,125,786 (51.9)	-4.34%
	무창포해수욕장	1,981,382 (4.8)	1,432,170 (4.6)	2,086,082 (8.9)	0.74%
	원산도 해수욕장	0 (0.0)	208,638 (0.7)	279,940 (1.2)	-
당진시	난지도해수욕장	171,406 (0.4)	257,874 (0.8)	85,827 (0.4)	-9.41%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6,930,982 (16.7)	5,098,417 (16.3)	3,149,293 (13.5)	-10.66%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5,450,835 (13.1)	2,326,001 (7.4)	1,445,200 (6.2)	-17.27%
	만리포해수욕장	2,104,122 (5.1)	1,878,288 (6.0)	1,144,755 (4.9)	-8.33%
	몽산포해수욕장	2,072,241 (5.0)	950,781 (3.0)	476,897 (2.0)	-18.93%
	기타	6,367,445 (15.3)	4,703,504 (15.1)	2,590,086 (11.1)	-12.06%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④ 특이 해양관광자원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역은 수려한 섬들이 군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수의 해양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기암괴석등 해안경관지의 경우 보령시의 도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일출, 일몰 관광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간척된 지역의 특성상 철새도래지도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해양관광자원

⑤ 지역 관광자원

대상지역은 해양과 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관지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경 및 8경으로 선정된 지역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내륙의 관광자원보다는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0〉 지역별 주요관광자원

구분	명 칭	내용
보령시	보령8경	제1경 대천해수욕장, 제2경 무창포 열린바닷길, 제3경 보령호, 제4경 오천항, 제5경 성주산 자연휴양림, 제6경 죽도, 제7경 외연열도, 제8경 오서산
서산시	서산9경	제1경 해미읍성, 제2경 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제3경 간월암, 제4경 개심사, 제5경 팔봉산, 제6경 가야산, 제7경 황금산, 제8경 서산 한우목장, 제9경 삼길포항
당진시	당진9경	제1경 왜목일출, 제2경 서해대교, 제3경 난지섬해수욕장, 제4경 제방질주(방조제), 제5경 솔피성지, 제6경 도비도해양체험, 제7경 합성공원, 제8경 아미망루(아미산), 제9경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서천군	서천8경	제1경 마량동백나무숲과 해돋이, 제2경 금강하구철새도래지, 제3경 한산모시관, 제4경 신성리 갈대밭, 제5경 춘장대해수욕장, 제6경 문헌서원, 제7경 희리산 자연휴양림, 제8경 천방산풍광
홍성군	홍성8경	제1경 용봉산, 제2경 홍주성과 여하정, 제3경 만해생가, 제4경 그림이 있는 정원, 제5경 오서산, 제6경 남당항, 제7경 백야생가, 제8경 궁리포구
태안군	태안8경	제1경 백화산, 제2경 안흥성, 제3경 안면송림, 제4경 만리포해변, 제5경 신두사구, 제6경 가의도, 제7경 몽산해변, 제8경 할미·할아비바위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

2) 기타 관광 자원

① 문화재 현황

대상지역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하고 유서깊은 문화재가 지역별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충남 해양관광권역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2012년 기준 총 226개로 충남 전체(987개) 2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산시가 총 65개로 가장 많았으며, 홍성군 53개, 보령시 4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문화재현황

구 분	총계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지 방 지 정 문 화 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중요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 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충청남도	987	231	28	102	51	16	26	8	402	174	160	27	41	310	44
소계	266	57	3	24	11	7	8	4	119	39	52	10	18	85	5
보령시	49	9	1	3	3	1	1		20	11	6	2	1	19	1
서산시	65	16	1	10	3		2		27	13	9	3	2	20	2
당진시	33	8	-	4	-	1	1	2	18	3	13	1	1	7	-
서천군	39	9	-	3	2	1	1	2	15	1	8	-	6	15	-
홍성군	53	9	-	4	2	-	3	-	25	6	10	3	6	18	1
태안군	27	6	1	-	1	4	-	-	14	5	6	1	2	6	1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② 자연휴양림

충청남도내 자연휴양림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자연휴양림에는 편의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숲속의 집, 산책로, 물놀이장, 수목원, 산림박물관, 조류사육장 등 자연을 관찰하고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해안권에서는 태안의 안면도자연휴양림, 보령시의 성주산 자연휴양림, 홍성군의 용봉산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표 42〉 자연휴양림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ha)	주 요 시 설	특 색 시 설
안면도 자연휴양림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135	숲속의집,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편의시설 등	산림전시관, 수목원, 전망대, 한국정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500	숲속의집, 전망대, 물놀이장, 편의시설 등	잔디광장, 합숙소
용봉산 자연휴양림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91	편의, 위생, 체육, 교육시설	등산로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

③ 축제

충남의 각 시군별 축제는 총 97건이며, 이 중 서해안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51건으로 5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이 축제는 대부분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축제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축제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제의 주요 내용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축제현황(2013년 기준)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축제종류
보령시 (6)	보령머드축제	7월	머드체험, 연계행사 등	관광특산
	무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3월	주꾸미, 도다리 잡기체험 등	관광특산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8~9월	햇불어업 재현, 조개잡기 체험 등	관광특산
	무창포대하전어축제	9월	노래자랑, 대하, 전어잡기 체험 등	관광특산
	천북굴축제	12월	굴시식, 굴까기, 노래자랑 등	관광특산
	성주산단풍축제	11월	단풍사생대회, 시낭송 등	문화예술
서산시 (4)	류방택 별 축제	5월	금현유방택선생 기념	문화예술
	해미읍성축제	4월	중요문화재 공연 및 병영체험	문화예술
	팔봉산감자축제	6월	농산물 축제	관광특산
	서산국화축제	11월	특산물 축제	관광특산
당진시 (15)	안섬풍어당굿	2월	당제, 용왕제, 지신밟기	전통민속
	면천 진달래민속축제	4월	진달래축제학술대회, 진달래그림그리기	전통민속
	기지시줄다리기	4월	당제, 용왕제, 사물놀이, 줄다리기	전통민속
	우강벚꽃길건강달리기행사	4월	건강달리기	기 타
	장고항 실치축제	4월	실치회시식, 뽕어포 만들기 등	관광특산
	순성 매화, 벚꽃축제	4월	벚꽃축제	관광특산
	한진 바지락축제	5월	바지락 채취체험, 바지락까기대회	관광특산
	당진 황토감자축제	6월	감자케기 체험, 농산물 직거래	관광특산
	당진갯 바다불꽃축제	8월	견우직녀만남행사, 불꽃놀이	기 타
	남이항 장군문화제	10월	풍물패두레한마당, 화관무 시범 등	전통민속
	상록문화제	9월말~10월초	백일장, 심훈선생추모식, 풍물놀이 등	문화예술
	삼교호조개구이축제	10월	해산물 체험	관광특산
	왜목해돋이축제	12.31~1.1	해돋이행사, 불꽃놀이 등	관광특산
	한진해돋이축제	12.31~1.1	해돋이행사, 불꽃놀이 등	관광특산
	송악산해맞이행사	12.31~1.1	해돋이 행사	관광특산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6월	저산팔읍길쌈놀이, 한산모시패션쇼 등	문화예술

(6)	동백꽃주꾸미축제	3월	동백꽃감상, 전통놀이체험 등	관광특산
	자연산광어도미축제	5월	맨손 광어잡기체험 등	관광특산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9월~10월	전어잡기체험 등	관광특산
	서천철새여행	11월	철새탐조투어, 생태체험	관광특산
	마량포해넘이해돋이 축제	12.31~1.1	해넘이, 해돋이 행사	관광특산
홍성군 (5)	남당새조개축제	1~2월중	새조개잡기	관광특산
	남당대하축제	9월~11월	대하잡기	관광특산
	내포문화축제	9월	역사위인 주제공연	문화예술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10월중	김치담그기	관광특산
	김좌진장군전승기념축제	10.24~10.25	김좌진장군 퍼레이드	문화예술
태안군 (15)	해맞이행사	1월	대북공연 등	관광특산
	몽산포주꾸미축제	4월~5월	어살체험, 시식회,	관광특산
	신진도꽃게축제	10월	어살체험, 시식회,	관광특산
	튤립꽃축제	4월	튤립꽃 전시 등	관광특산
	다알리아축제	8월	다알리아꽃 전시 등	관광특산
	전국바다낚시대회	5월	선상낚시대회	관광특산
	육쪽미늘축제	6월	미늘개기 등	관광특산
	백합꽃축제	6월	백합꽃 전시 등	관광특산
	어살문화축제	7월	어살체험 등	관광특산
	자염축제	7월	자염체험 등	관광특산
	고추축제	8월	고추판매 등	관광특산
	대하축제	9월~10월	어살체험, 시식회,	관광특산
	몽산포모래조각페스티벌	7월	모래조각경연	관광특산
	태안바다황토축제	7월	황토체험 등	관광특산
	해넘이 행사	12월31일	연날리기, 희망엽서쓰기 등	관광특산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

④ 어촌체험마을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 지원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은 충남에 총 8곳이 있으며 태안군이 5곳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2곳, 서천군에 1곳이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⑤ 관광기반시설

충남의 관광사업체와 비교하여 해양관광지역들의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은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경우 보령과 태안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업체가 대부분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외국인관광객과 관련한 관광사업체가 전무함에 따라 이를 위한 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구분		총계	소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여행업	일반	1	0	-	-	-	-	-	-
	국외	71	37	8	3	6	7	12	1
	국내	89	42	12	4	2	12	11	1
	국내외여행업	125	18	-	7	8	-	-	3
관광숙박업	호텔업	가족호텔업	3	2	1	-	-	-	1
		관광호텔업	14	2	-	1	-	1	-
		기타호텔업	1	1	-	-	-	-	1
	휴양콘도미니엄업		12	6	3	1	-	-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5	2	-	-	1	1	-
	종합휴양업		2	0	-	-	-	-	-
	자동차야영장업		-	-	-	-	-	-	-
	관광유람선업		4	4	2	-	-	-	2
	관광공연장업		-	-	-	-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	-	-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5	2	2	-	-	-	-
	일반유원시설업		14	9	1	1	6	-	1
	기타유원시설업		5	0	-	-	-	-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2	1	-	1	-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	-	-	-
	관광식당업		24	13	3	8	2	-	-
	시내순환관광업		1	1	-	-	-	-	1
	관광펜션업		65	63	18	2	-	1	42
	관광레도업		-	-	-	-	-	-	-
	한옥체험업		12	7	1	2	2	2	-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

3) 관광지 현황

① 지정관광지

지정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유치·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총 27개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 중 충남의 해양관광지에 지정된 관광지는 12개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령과 당진이 각각 3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천과 태안이 각각 2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지정관광지 현황

서해안권의 지정관광지는 대부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천해수욕장이 가장 큰 면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군의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는 조성계획 수립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12월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조성계획 변경(안)의 협을 조정을 거쳐 승인 고시함으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5〉 지정관광지

시군	관광지명	위치	관광(단)지 지정		사업기간	주요 자원	추진상황
			지정일 (변경일)	면적(m ²)			
계	27개 지구			16,255,703			
보령	대전해수욕장	신흑동	69.1.21 (83.11.28)	1,586,769	1989~2015	해수욕장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무창포해수욕장	웅천읍 관당리	86.8.20 (09.4.30)	354,000	1988~2015	신비의 바닷길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죽도	남포면 월전리	90.4.19 (00.7.7)	72,783	1995~2013	자연수림	민자유치 중
서산	간월도	부석면 간월도	00.5.4	143,695	2003~2015	간월암	민자유치 중
당진	삼교호	신평면 운정리	83.10.10 (13.1.21)	231,583	1983~2020	함상공원	민자유치 중
	왜목마을	석문면 교로리	02. 2.26 (07.3.20)	133,876	2006~2020	서해 바다, 갯벌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지도	석문면 난지도리	00. 9. 7. (11.5.30)	155,440	2007~2013	해수욕장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서천	금강하구둑	마서면 당선리	93.09.22	175,384	1994~2015	금강하구 둑	민자유치 중
	춘장대해수욕장	서면 도둔리	97.04.21	298,930	1997~2011	송림, 백사장	민자유치 중
홍성	남당	서부면 남당리	05.04.19	166,200	2006~2013	용봉산, 새조개	토지매입 중 민자유치
태안	만리포	소원면 의항	10.05.06	311,853	2010~2020	해수욕장	민자유치 중
	안면도	안면읍 승연리	91.2.22 (13.12.27)	5,272,905	1992~2020	해수욕장	토지매각 절차 이행중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정백서, 2014년

안면도 관광지는 2016년까지 1단계로 전체 면적의 72%를 골프장지구와 씨사이드지구로 개발하며, 2017~2018년 2단계에는 기업연수원지구를 개발하고 2019~2020년 3단계에는 테마파크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만리포관광지는 국토교통부의 동서남해안의 지역 거점 12곳이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선정되어 서해안권은 서해안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갯벌·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가 조성될 계획이다.



[그림 25] 개발 중 지정관광지

한편, 2007년 기존 안면도관광지에 추가하여 하나의 관광지로 통합된 ‘지포지구’는 충남 개발공사에서 별도 개발 추진되고 있어, 현 추진체계에서 사업추진 시 양 구간 사업추진방식 상이 및 도입시설 중복 등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면도관광지를 별도의 2개 지구(꽃지지구, 지포지구)로 분리 결정·추진 중에 있다.

② 관광특구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충남에는 아산시와 보령시에 각각 1개씩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령에는 보령해수욕장이 1997년에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표 46〉 관광특구 지정 현황

특구명	지정일자	면적(km ²)	대상지역
충남	2개지역	6.21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1997. 1.18	2.52	보령시 신흥동 대천해수욕장 지역 보령시 남포면 월진리 죽도지역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 및 석대도 지역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정백서, 2014년

4) 관광이용 현황

충청남도의 해양관광 대상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2005년 58,183,281명에서 2012년 기준 48,862,318명으로 연평균 2.4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의 인구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10.9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산시 10.92%, 홍성군 3.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의 대표관광지인 보령시와 태안군은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표 47〉 충남 서해안권 관광객 추이

구분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05-12)
충청남도	84,488,221	104,321,029	93,370,418	1.44%
소계	58,183,327 (68.9)	56,418,417 (54.1)	48,862,361 (52.3)	-2.46%
보령시	19,156,053 (22.7)	17,032,004 (16.3)	15,356,829 (16.4)	-3.11%
서산시	2,421,684 (2.9)	4,357,984 (4.2)	5,002,821 (5.4)	10.92%
당진시	4,450,435 (5.3)	13,101,713 (12.6)	10,884,783 (11.7)	13.63%
서천군	10,133,478 (12.0)	6,850,788 (6.6)	5,866,813 (6.3)	-7.51%
홍성군	2,323,354 (2.7)	3,000,588 (2.9)	3,016,396 (3.2)	3.80%
태안군	19,698,323 (23.3)	12,075,340 (11.6)	8,734,719 (9.4)	-10.97%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이 중 해양관광지의 방문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충남 전체 관광객의 64.4%였던 54,406,612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42,368,038명으로 연평균 3.51%씩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태안군이 2005년 19,203,566명에서 2012년 8,487,973명으로 연평균 11.1%씩 감소하였으며 비중 또한 35.3%에서 20.0%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원유유출 사건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관광패러다임의 변화로 체험 위주의 관광패턴으로 변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충남 해양관광지 관광객 수

구분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05-12)
충청남도	84,488,221	104,321,029	93,370,418	1.44%
소계	54,406,612 (64.4)	52,099,478 (49.9)	42,368,038 (45.4)	-3.51%
보령시	18,525,295 (34.0)	16,059,850 (30.8)	14,515,964 (34.3)	-3.42%
서산시	1,193,387 (2.2)	2,937,850 (5.6)	2,316,830 (5.5)	9.94%
당진시	4,450,435 (8.2)	13,101,713 (25.1)	10,884,783 (25.7)	13.63%
서천군	10,045,007 (18.5)	6,608,936 (12.7)	4,564,438 (10.8)	-10.66%
홍성군	988,922 (1.8)	1,601,841 (3.1)	1,598,050 (3.8)	7.10%
태안군	19,203,566 (35.3)	11,789,288 (22.6)	8,487,973 (20.0)	-11.01%

주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 해양관광지 관광객수를 활용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또한 충남 서해안권의 해양관광 지정관광지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지정관광지의 관광객 수는 연평균 3.51%씩 감소하고 있으며,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곳은 태안군으로 2005년 7,961,917명에서 2012년 3,025,235명으로 연평균 12.91%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충남 지정관광지 관광객 수

구 분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05-12)
충청남도	54,406,612	52,099,478	42,368,038	-3.51%
소계	42,702,000 (78.5)	35,791,673 (68.7)	30,195,170 (71.3)	-4.83%
보령시	18,525,295 (34.0)	15,814,280 (30.4)	14,211,868 (33.5)	-3.72%
서산시	730,424 (1.3)	1,214,774 (2.3)	1,080,326 (2.5)	5.75%
당진시	4,450,435 (8.2)	6,014,656 (11.5)	5,721,247 (13.5)	3.65%
서천군	10,045,007 (18.5)	6,608,936 (12.7)	4,558,444 (10.8)	-10.67%
홍성군	988,922 (1.8)	1,601,841 (3.1)	1,598,050 (3.8)	7.10%
태안군	7,961,917 (14.6)	4,537,186 (8.7)	3,025,235 (7.1)	-12.91%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정관광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정관광지에서 관광객 수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무창포해수욕장, 간월도, 왜목마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왜목마을로 2005년 340,019명에서 2012년 2,491,014명으로 연평균 32.91%씩 증가하였다.

〈표 50〉 충남 지정관광지 관광객 수

구분	관광지명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05-12)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16,543,913	14,382,110	12,125,786	-4.34%
	무창포해수욕장	1,981,382	1,432,170	2,086,082	0.74%
	죽도	-	-	-	-
서산시	간월도	730,424	1,214,774	1,080,326	5.75%
당진시	삽교호	3,939,010	2,622,425	3,144,406	-3.17%
	왜목마을	340,019	3,134,357	2,491,014	32.91%
	난지도	171,406	257,874	85,827	-9.41%
서천군	금강하구둑	3,114,025	1,510,519	1,409,151	-10.71%
	춘장대해수욕장	6,930,982	5,098,417	3,149,293	-10.66%
태안군	안면도관광지	5,857,795	2,658,898	1,880,480	-14.98%
	만리포해수욕장	2,104,122	1,878,288	1,144,755	-8.33%

주 : 죽도의 관광객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통계가 발표되지 않음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 충청남도 해양관광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

1)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

(1) 배경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은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계획으로서는 최초의 계획이며, 이 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전역의 계획수립 시 권역이라는 개념이 도입 되기에 이른다.

본 계획에서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수도권과 중부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의 여가공간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전이라는 지역적 이미지를 지녀왔다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지역의 잠재력은 중국대륙과의 교통 확대,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아산항 및 장항항의 개발로 인한 개발 여건 변화, 수도권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스필 오버효과로 발전잠재력을 갖는 지역으로 제시하였다.

(2) 주요 계획내용

계획의 범위는 현재와는 다르게 천안시, 대천시, 온양시, 천원군, 아산군, 당진군, 서산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군, 서천군을 대상으로 하는 3시 9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계획수립 주체는 충청남도의 자율적 지방계획이며, 목표연도는 2001년이고, 종합계획이다.

계획의 성격을 국가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이며, 시군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계획수립 방법에 있어서 국가계획 내지 전국계획에 대한 적응적 계획이며, 시군계획에 대한 지침적 특성을 지니고, 도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해양관광과 관련된 계획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 관광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권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연속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루트 개발 : 온양-관광산업도로-태안-안면도-대천-장항-부여-공주-온양 -안면도-대천간 연속교량 -장항-부여 유람선 - 안면도-서산AB지구-홍성 연결 ·기능 특화 : 만리포, 연포, 몽산포, 학암포, 대천 ·레저기능 보완 : 저수지 낚시터, 온양,도고의 레저기능 강화, 자전거 도로(삼교-석문-대호), 바다낚시터(원산도, 다보도, 석대도), 산악형 레저(덕산,가야산,용봉산), 리조트(덕산,온천지)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한 국제적 관광지 조성(안면도, 천수만 지역) ·중국-한국-일본간 선박 운항 ·역사적 전시관 건립 ·국제 관광항 개발(대천항, 대천-서산해안 헬리포트) ·선열 유적 관광망 : 독립기념관-천원 선열 유적지-유관순열사-추사고택-충의사-구백의총-공주-부여 ·해상관광망 강화 : 난지도, 안흥항, 인천-대천-목포 ·계절적 관광객 변화의 최소화 ·지역특산물 및 민속행사의 관광상품화 ·공업배후도시의 근린휴식처 조성 ·관광지 지정(도비도, 원산도) 	현, 안면-보령간 연육교

2)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1989)

(1) 배경

1980년대 한반도가 태평양 지역과 중국을 비롯한 북방대륙과의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는 서해안 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국정 기조 아래 당시 중부권(충남북, 전북지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1988년 정부가 발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10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마련되었지만,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에 직접 기여할 투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경부축상의 일부도시만이 성장하는 체제에서 충남은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은 침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은 방치 시 낙후지역

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부권 종합개발계획,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1982)은 사실상 국내외 정세의 여건변화 이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를 감안한 계획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즉, 충청남도 지역의 당면한 여건을 검토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했었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수립된 계획이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이다.

계획의 목표는 첫째, 2000년대의 풍요로운 충남 모습을 제시하고,

둘째, 충남지역의 성장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합리적 타개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각권역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자원을 찾아 경제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셋째, 충남 지역발전을 주도할 협력체계(국가사업, 지방사업 등 개발 주체를 설명하고, 국가와 지역 그리고 지방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넷째, 주요사업에 대한 1차적 경제 및 기술 당위성을 검토하여 지역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략사업의 선정

다섯째, 개발투자에 대비하여 도민에 공해없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충남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요 계획내용

계획의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5개시 15개군)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의 성격은 충청남도가 지니고 있는 부존자원과 지역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성장에너지 및 국가투자자재를 동원하여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방안을 지방정부에 위임시키고 지역 공간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심기능의 육성 및 지역발전 성장에너지로서의 용수·인력공급시설확충 또한 부존자원의 지역경제화를 위한 방안모색 등 제반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지침적 성격을 지닌다.¹⁰⁾

10) 충청남도(1989),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p63.

〈표 52〉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공간구조 및 정주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중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공주, 부여, 논산) - 대전대도시권(연기, 금산) · 서해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권 : 천원, 아산 - 서북부해안권 : 서산, 당진, 태안 - 서부내륙권 : 홍성, 예산, 청양 - 서남권 : 보령, 서천 		
서북권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 해수욕장은 해안국립공원에 수용에 의하여 집단시설 지구로서 기능 · 관광지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특산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 : 간척지쌀, 육쪽마늘, 연천두견주 - 서산 : 어리굴젓, 육쪽마늘, 인삼 등 · 관광개발 : 안면도, 삽교호 국민관광지, 덕산도립공원, 해미읍성, 대난지도, 대호, 석문호, 서산AB지구, 백화성, 안흥성 · 서해관광도로 개발(삽교호-태안-안면도) 	
	안면도 국제관광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백사장, 방포·꽃지, 장곡) · 다목적 이용의 휴양관광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장기체류형 관광지로 조성 · 국제수준급의 고급관광단지 개발 · 4계절 관광지 이용을 위한 용수 공급방안 마련 ·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구축 ·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통한 안면도 고유의 향토적 경관미 구축 · 안면도 전역의 관광지화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화 도모 	
서부내륙권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관광루트를 설정하여 연결체계 강화(온양-아산-예산-덕산-홍성-청양-백제문화권 / 온양-아산-예산-태안) · 관광거점별로 관광서비스 기능 제고(홍성) · 이조문화의 재현 및 홍주성의 복원 등 관광자원화 · 권역내 덕산, 온천, 도립공원 및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표 53〉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계속)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보령대천권	보령항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톤급 정박이 가능토록 수심 확보 · 박지 및 접안시설 조성(5만톤급) · 국제상항으로서의 항만 지정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천을 서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환경 개선, 교통기능 보강, 관광서비스시설 확충 · 대천항, 대천해수욕장 등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 대천종합관광단지, 무창포해수욕장, 잔미산(포도단지)을 정점으로 연결되는 관광개발권으로 설정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조성 · 권역 내외부의 탐방루트 체계화 · 미도락촌, 지역특산물 및 공예품센터 조성 	
	대천종합 관광단지 및 연계관광 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방가로 등 · 상업시설 : 종합상가, 토산품 판매점, 미도락촌 등 · 운동 및 유흥시설 : 야외 운동시설, 스포츠센터, 마리너시설 등 · 조경 및 기타시설 · 대천해수욕장-죽도-무창포 해수욕장을 잇는 해안지역과 잔미산을 연결하는 지역을 관광개발권으로 묶어 개발 	
서천소권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장대 해수욕장, 한산모시타운, 금강변 위락단지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모시타운을 광역관광코스화 - 춘장대 해수욕장 개발로 대천해수욕장의 기능 분담 도모 - 금강변 위락단지 조성으로 군산 대도시권의 휴양 및 위락중심지화 - 대천-무창포-춘장대-한산모시타운-금강변 위락단지 관광코스 개발 · 서천의 배후 기능강화로 지역관광권의 거점성 제고 ·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3)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1, 2008, 2011)

(1)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충청남도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고 법정계획이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배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정계획 수립에 대한 연계 및 계획내용의 변경이 최우선이고, 국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이 두 번째이다.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2000년대 이후, 세종시의 건설,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따른 내포시대의 전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확정에 따른 수용성 강화에 따라 도정운영과 운영전략을 변경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따라서, 계획의 목적은 그동안의 계획기조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세종시,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환황해경제권시대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주요 계획내용

계획의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다.

특이한 사항은 4대권역 개발경영구상을 수용하여, 공간개발구도를 확정하였고, 이러한 공간개발 구도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¹¹⁾ 다만, 천안-아산-당진은 서해안권에서 벗어나 북부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머지 시군은 서해안권으로 설정된다.

서해안권에 있어서는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로서 항만기능 확충 및 거점육성,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특화단지, 갯벌 양식 클러스터, 항공산업 연구단지, 연안관리 등이 주요 이슈 및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환황해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분야-사회적 경제 등이 전면에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충청남도 종합계획상의 해양관광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1) 충청남도(200, 2008, 2011),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재수정계획.

〈표 54〉 충청남도 종합계획상 해양관광 관련 사업

구분	충청남도 종합계획상 발전방향	주요 이슈 및 사업	비고
서해 안권	<p>〈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항만과 항공물류기지 확충,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 항만 배후지와 고속도로 IC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 집적지·물류유통거점 등의 조성, 무역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 •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태안기업도시를 국제적 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로 개발, 서해안 레저 관광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기능 확충 및 거점육성-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대천항, 비인항 •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천수만 관광휴양벨트, 태안 기업도시,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원산도 등 관광섬, 안면도 국제관광지, 국제 해양스포츠제전, 서해수중유물보관동 	

4)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2012)

(1)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기존의 법정 관광지의 지정 및 추진현황과 개발방향을 평가·분석하고 도입 가능한 신규 관광지의 적정입지 및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충청남도 관광정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통하여 법적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규정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의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관광개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관광수요변화에 적절한 대처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동북아 중심 선진 충남관광을 구현하기 위한 관광개발의 장기적인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향후 관광개발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다.

(2) 주요 계획내용

계획의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16년이다.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에서는 관광권역을 5개 소권역(역사온천 관광권, 내포문화 관광권, 해양도서 관광권, 백제금강 관광권, 녹색유교 관광권)으로 설정하였고 해양관광이 있는 권역은 해양도서 관광권과 내포문화 관광권 일부 사업이다. 해양도서 관광권은 보령, 태안, 서천 지역으로 기본 방향은 충남관광거점 조성 및 연계자원의 개발, 해양과 해안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태안~보령~서천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추진, 태안 다크투어리즘, 서천 생태자연자원 등이다. 내포문화 관광권은 서산, 당진, 예산, 홍성으로 기본방향은 충남관광의 관문으로 활성화 필요,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을 통한 관광성장 기대, 내포문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상품화 필요, 도시민 여가욕구 수용한 관광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표 55〉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 상 해양관광 관련 사업

구분	발전방향	주요 이슈 및 사업	비고
내포문화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문화권 개발 〉 •충남관광의 관문으로 활성화 필요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을 통한 관광성장 기대 •내포문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상품화 필요 •도시민 여가욕구 수용한 관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계획-왜목마을 관광지 •관광소권별 핵심 관광자원 개발사업-휴먼투어랜드 	
해양도서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휴양권 개발 〉 •충남관광거점 조성 및 연계자원의 개발 •해양과 해안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태안~보령~서천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추진 •태안 다크투어리즘, 서천 생태자연자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계획-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지포관광지 분리)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원산도관광지 •관광소권별 핵심 관광자원 개발사업-태양광에너지단지, 세븐아일랜드창조관광 활성화사업,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벨트 조성-태안 관광레저기업도시, 창리관광지, 철새도래지, 서산바이오웰빙관광특구, 간월도 관광지, 남당관광지, 어사궁리·개발촉진지구, 조류탐사관, 속동전망대, 죽도 생태공원화, 안면도 자연휴양림, 정다리 갯벌체험, 영목항 원산도관광지, 대천항 효도해수욕장, 천북 굴단지,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꽃지, 지포지구), 청포대·수중공원, 태안국립공원, 대천관광지, 머드체험관, 죽도관광지, 무창포 해수욕장 	

5) 충청남도 관련계획 검토 요약

첫째, 서해안 해양관광 관련 계획은 최초로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 수립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 및 지정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 위주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어 추진 상황이 미약하며, 특히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관광지 조성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계획내용상 방향성이 되는 환황해권 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발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형, 자연감상형, 갯벌 및 철새 생태체험 등으로 정적인 관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현대의 해양레저관광 부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은 지점 관광지 개발 위주의 추진으로 주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거점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과의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고 관광지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표 56〉 충청남도 권역계획 해양관광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계획주체 (수립년도)	계획 기간	대상지역	권역수	해양관광 관련 내용	비 고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	충청남도 (1988)	1989 - 2001	충남서해 안지역 (3시9군)	2 (2대권 7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관광지 조성(안면도, 천수만 지역) •국제 관광항 개발 •해상관광망 강화 : 난지도, 안흥항 •관광지 지정(도비도, 원산도)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충청남도 (1989)	1990 - 2011	충남 전지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관광지별 관광상품 개발 •관광개발 : 안면도, 삼교호 국민관광지, 대난지도, 서산AB지구 •서해관광도로개발 •대천종합관광단지 및 연계관광지 개발(대천해수욕장-죽도-무창포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개발 	최초권역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2006)	2008 - 2017	4개 도 20개 시·군	충남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사업 : 안면도, 원산도, 대천의 파인코스트 사업 •연계사업 : 삼교호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남당지구, 춘장대해수욕장 •전략사업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충청남도 (2008)	2008 - 2020	충남 전지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천수만 관광휴양벨트, 태안 기업도시,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원산도 등 관광지, 안면도 국제관광지, 국제 해양스포츠제전,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충남최상위계획
제5차 충남권관 광개발계획	충청남도 (2012)	2012 - 2016	충남 전지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계획-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지포관광지 분리)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원산도관광지 •관광소권별 핵심 관광자원 개발사업-태양광에너지단지, 세브아일랜드 창조관광 활성화사업,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벨트 조성-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창리관광지, 칠새도래지, 서산바이오웰빙관광특구, 간월도관광지, 남당관광지, 어사궁리·개발촉진지구, 조류탐사관, 속동전망대, 죽도생태공원화, 안면도 자연휴양림, 정다리 갯벌체험, 영목항 원산도관광지, 대천항 효도해수욕장, 천북 굴단지,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꽃지, 지포지구), 청포대·수중공원, 태안국립공원, 대천관광지, 머드체험관, 죽도관광지,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관련법정계획



[그림 26] 충청남도 권역계획 변화

3.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관광의 발전 과제

아직 충청남도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충청남도 차원의 서해안 해양관광에 대한 발전방향이 모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향후의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관광의 발전방향 모색 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1)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유지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제기되는 점이 환황해권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이다.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한 서해안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관광의 전략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대의 관광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청남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서해안 지역과 관련된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표 57〉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1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 광	해수욕장 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콘텐츠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 • 테마이벤트 개최 •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시범사업 	높음 높음 보통
		해수욕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관리체계 정비 • 해수욕장 안전시설 등 확충 지원 • 해수욕장 환경 관리 등 • 해수욕장 평가·환류체계 구축 	높음
		해수욕장 다각적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포털 고도화 및 유관 사이트 연계 • 모바일 앱 개발 • 우수해수욕장 기념조형물 설치·홍보 	보통
	해양치유 관광 육성	해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화 사업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R&D 추진 • 사업모델 개발 	-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헬스케어 산업 육성 법령 제정 • 민·관협업체 설립 • 해양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보통
	해양휴양 공간 조성·정비	연안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대 	보통
		해양레저·관광 지역 특화 시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시설 조성사업 	높음
		친수연안 조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사업 추진 • 해양경관관리제도 시행 • 연안완충구역 지정 	보통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누리길 시설 개선 및 홍보 지원 • 노선별 등급 부여 및 지원전략 수립 • 해안 도보여행 지원센터 운영 	보통
	항만구역 내 해양친수 공간 확충	노후·유휴항만의 국제 해양관광·레저관광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유휴 항만의 재발 	보통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지역발전법률 제정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 계획 수립·고시 • 국가미항프로젝트 기본구상안 마련 	보통
		테마형 관광어항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보통

〈표 5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2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태관광지구 조성 해양생물 안내사 육성 및 인증제도 도입 	높음
		해양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객 센터 콘텐츠 개발 지원 등 해양생물 조망 포인트 및 연안크루즈 연계상품 개발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해양보호구역(3개소) 추가 지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높음
		해양생태관광 정보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 구축 및 Web-GIS 서비스 제공 	보통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상레포츠센터 건립(17, 7개소) 수준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시범학교 지정·운영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위상 제고 및 각종 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개선방안 마련 신규 대회 지원 	보통
		레저낚시 대중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낚시터 지정 및 지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어린이 낚시교실 개설·운영 	높음
		해중레저 대중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중레저 활성화 법·제도 마련 해중경관 조성사업 해중레저거점마을 조성 	-
	마리나 산업 고도화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지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마리나 관련 규제 정비 	-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의 레저선박상 시상 레저선박 선제 식별번호 부여제도 개선 수출보증제도 도입 검토 	-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 편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요트 항해도 제작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마리나 항만 등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 마리나 개발 마리나 선박급유시설 설치기준 마련 주요 관광지내 소규모 계류시설 설치 어촌역 조성 	보통

〈표 59〉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3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해양문화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유·무형 해양문화자원 발굴	• 해양문화자원 복원 및 체험상품 개발 • 해양문화 탐방지도 제작	높음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지원 기반 마련	높음
		해양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 해양문화엑스포 준비 및 개최	—
	해양문화 시설 확충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고도화	• 전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지속 수집 • 해외박물관과의 상호교류 협력 추진	—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 조성	• 중장기 해양문화시설 확충 로드맵 • 남해안해양복합체험센터 건립 •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 해상박물관, 해사미술관 등 도입 검토	—
	해양문화 도시 브랜드 개발	지역별 관광 특화 전략 수립 지원	• 도시 브랜드 개발 • 스마트 안내시스템 개발	—
		연안도시 축제를 통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 연안 축제 다양화 • 이달의 축제 선정 및 연안 축제 홍보	보통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어촌의 관광자원화	어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 어촌체험마을 시설 확충 • 어촌관광 포럼 개최 • 멘토링제 운영	높음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 관광콘텐츠 확충 • 어항내 친수시설, 낚시공원 등 시설 확충 • 바다해설사 육성	높음
		어촌경관개선 사업 추진	• 마을색채정비, 어항정비, 컨설팅 등	보통
		수산물 먹거리 관광의 활성화	• 수산물 먹거리 축제 선정 및 홍보 지원	높음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해안테마마을 조성	• 지역별·테마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높음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 테마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보통
		해양디자인 대전 개최	• 해양디자인 대전 개최 계획 수립	—
	섬관광 활성화	섬관광 기반 정비	• 도서별 특화 시범사업 실시 • 성공적 섬개발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높음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섬관광 접근성 제고	• 여객선 현대화 추진 • 인터넷·모바일 승선권예매시스템 개선 •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계획 수립·시행	보통
		환경친화적인 무인도서 이용·개발을 통한 관광·휴양지 조성	•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무인도서 현황도 및 GIS 기반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현황도 및 시스템 개발	—

〈표 60〉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서해안 해양관광 접목 가능성 검토 4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 관광	동북아 크루즈 허브 구축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 기반 마련	• 크루즈 부두 확충	보통
		관광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기항 매력도 제고	• 권역별 특화전략 마련 및 관광상품 개발 • 복합 관광 단지 조성	보통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마케팅 확대	• 타겟 마케팅 강화 • 한-중-일 크루즈협의회 개최	-
		국제크루즈 선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선상 카 지노 도입	-
		국내 크루즈 여행 대중화	• 일반국민 대상 크루즈 홍보 확대 • 연안크루즈 활성화 추진	높음
	마리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마리나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아시아 권역내 CIQ 절차 표준화 추진	-
		동아시아 요트 크루징 루트 개발	• 동북아 요트 루트 개발 추진	보통
	여수박람 회장의 국제해양 관광허브 화	박람회 존치시설 활용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 국내외 투자 유치	-
		박람회장 집객 강화	• 집객콘텐츠 보강	-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	국제요트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 제주-상해간 국제요트 개최	보통
		해양관광 국제회의 참여 및 유치 추진	• 해양관광 국제회의 국내 유치추진	보통

2) 거점 해양관광지 개발과 주변 연계 발전 방향 모색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을 견인하고 관광 효과를 주변으로 전파할 수 있는 해양관광 거점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 형태는 도시체계-지역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도시의 형성인 단핵구조의 거대화로 주변지역을 빨아들이는 빨대현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에 대응한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형성하여 규모화와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로서 서해안 해양 관광지를 하나의 벨트로 형성하고, 그 효과를 내륙으로 파급시켜서 내륙과의 동반성장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의 발전계획의 한계점은 그 초점이 글로벌, 국가차원에 맞추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이 갖는 해양자원,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충청남도 서해안은 북부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고유한 생활양식과 그 삶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자연환경자원이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를 발굴하고, 가공하여 충청남도의 최상위 계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양식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 구축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지방정부차원의 자발적인 발전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해양관광의 경우 해양생태계, 주변 해양환경, 수질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간 대단위 개발계획을 통해서도 해양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순차적인 해양관광 개발이 이뤄져야 될 것이며, 새로운 관광지 개발보다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기존 관광지를 활용한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의 추가를 통한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서도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보존이 선행되어야 해양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조성과 함께 해양환경 개선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관광객의 하절기 집중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사계절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의 경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태로서 하절기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관광지의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계절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양관광지를 복합화하고 주변 관광지와와의 연계를 통한 기능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양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해양관광 기반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자치단체가 종합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산적·다원적 사업추진체계를 간소화하여 중복투자 방지, 행정비용 절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서해안 해양관광에 대해서는 환황해권시대의 도래, 충청남도청사의 내포 이전에 따른 내포시대의 개막이라는 명제에는 수긍을 하지만, 서해안 해양관광을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담당부서는 없다.

해양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해양관광진흥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생태와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 등 다양한 실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해안 해양관광에 대한 장기 비전마련, 개발정책 기획, 예산집행, 사업추진, 사업관리, 사업평가, 의견수렴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없다. 총괄부서가 담당하는 기능은 기획-예산신청-예산집행-사업추진-사업관리-사업평가-의견수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총괄부서의 다양한 기능수행이 요구된다.

제4장 충남 서해안 거점관광과 관광벨트 육성 전략

1. 접근개념과 추진방향

1) 충남 해양관광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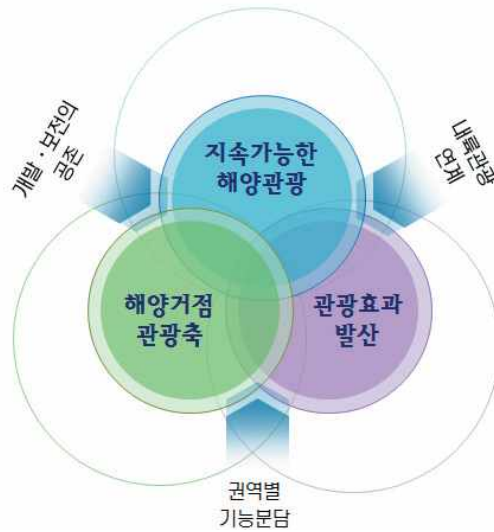
해양과 연안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어메니티가 높은 지형적 특성 등은 해양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다.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없는 산업’ 이라고 한다. 특히 해양관광은 연안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선택(보존)과 집중(개발)에 따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으로 해양자원과 환경, 그리고 관광이 병행하는 최적 개발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역의 잠재자원을 국가정책과 연계시킨 관광상품화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을 지역 관광의 거점 기능으로 육성시켜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추진방향

여가시간 및 소득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는 국민의 웰빙 문화 및 생활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다양한 체험과 역동적인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양관광산업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Sustainable Tourism Hub of the Western Sea

〈서해안의 지속가능한 관광 허브〉



[그림 27]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 추진방향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 해양관광산업은 여름철에 편중된 해수욕장 운영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중 레저스포츠 활동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관광 거점 및 해양관광벨트의 구축이다. 충남도 연안 공간의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과 인접지역과 연계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브랜드를 확보한다.

둘째, 해양레저관광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과 역량강화이다. 우선 해양관광 시장 육성과 대중적 수요창출을 위한 해양레저 교육 공간조성과 해양레저관광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관광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이다. 충남도는 다수의 소규모 어항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소규모 요트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인프라 개발 비용을 절약한다. 특히 어항과 항구의 여건에 적합하게 특성화하여 개발하여 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넷째,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해양관광 정책추진이다. 해양관광산업은 해양과 관광을 융·복합한 산업으로 수산업, 선박제조업, 유통업, 장비임대업 등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으로 충남 해양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충남도 서해안이 동북아 해양관광거점으로 사계절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추진전략

1) 해양관광거점과 주변 연계 관광지구 조성

해양관광상품을 제공할 공급시장은 소비자로 구성되는 수요시장이 확보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의 수요자인 소비자 지향적인 해양관광 상품과 콘텐츠가 없는 해양관광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관광 공급시장인 해양관광지 개발은 소비자가 원하는 해양관광상품과 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해양관광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공급시장은 독창적이고 고유한 시장으로서 차별화되어 독과점 관광시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가용자원을 고려한 권역별 기능을 설정하고 해양관광 중심거점 축 설정과 해양관광거점의 연계 및 효과의 발산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2) 서해안 생태체험과 해양체험 관광벨트와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해양공간의 복합적 활용으로 자연친화형 해양 친수 문화공간 조성 및 갯벌,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 한다.

특히, 관광거점지대와 연계하여 주변의 해안과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생태, 해양, 역사문화 등 테마형의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상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내륙지역과 도서 지역을 연계한 허니팟(honey pot) 방식의 관광지 조성으로 분야별 역할 구분을 통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확대를 이룩한다.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의 구축

해양관광 개발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해양관광 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해양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양관광 개발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체계적 해양관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립적 계획이 아닌 해양관광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4) 지역의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

기존 관광개발에 있어서 외부자본과 인력에 의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지역관광개발이 지연되거나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역의 내부역량의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직접 참여와 이를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3. 전략별 주요정책 및 시책추진 방안

1) 천수만 거점관광지대 및 관광지구 조성

거점관광(hub & spoke)개념의 광역 관광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별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정비 및 관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잠재 관광자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 거점(hub)을 중심으로 관광지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관광 유인력을 제고하고 거점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광역적 차원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해안 일대의 2-3개소만 선택하여 가용한 재원을 집중하여 투자

전략목표시장은 내국인의 경우 젊은층과 여성층, 중년층 부부로 하며, 외국인은 일본인 젊은층, 중국인 패키지 상품 관광객, 주재 미국인 등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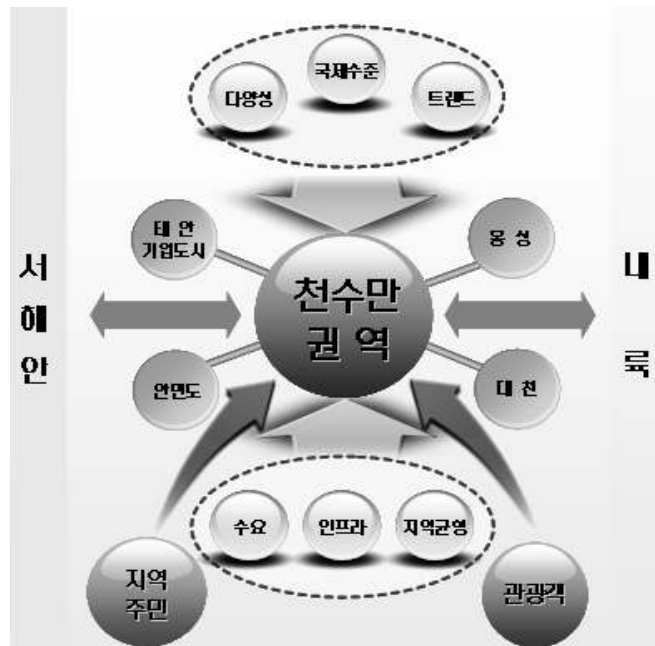
개발전략으로는 권역별 거점(hub)관광지를 구축하고 주변 소규모관광지와 연계 개발을 추

진한다.

또한 안면도 일대와 대천해수욕장을 종합레저·스포츠시설 및 국제적 관광지 수준의 숙박 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 등 해양레저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권역 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온천 등과 연계개발을 유도한다.

- 보령관광특구지역인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종합레저·스포츠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량관광수요에 대비한 활동적이고 서민적인 해변관광지로 육성
-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지수준의 고급 숙박시설을 갖춘 가족휴양 지로서 고급화된 관광지의 이미지로 차별화

충남서해안지역의 관광거점을 잇는 국도 77호선(당진-태안-보령-서천) 정비를 조기에 추진 하며, 태안과 보령 간을 잇는 연육교를 건설하여 약 1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관 광객을 유인하며 권역 내 순환형 관광루트로 활용한다.



[그림 28] 천수만권 개발 개념도

(1) 천수만 서해안 거점관광지대와 관광지 조성 구상

① 거점관광지대 조성의 필요성

서해안의 급증하는 관광수요 증가에 부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기반구축과 서해안권의 관광거점기능 집적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인문 특성을 최대한 감안 지구별 특화로 효율적 관광자원이용과 균형발전 도모하고, 거점 관광지역과 연계되는 관광지의 위계설정으로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및 행태와의 지역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적정규모의 경제성 있는 시설 도입과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개발로 국제적인 트렌드 및 수준을 대비하여 집객력 높은 거점 및 지역중심지구와의 연계·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따라서 충남 서해안의 관광거점기능 집적화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구별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관광지 개발사업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관광기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서해안 거점관광지대 조성’과 관광도시의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동안 천수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천수만 거점관광지대 조성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대상지 특성 및 개발 현황

천수만 주변지역은 태안군과 보령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권과 충남지역의 내포문화권의 서산시와 홍성군내의 기 개발된 관광시설 및 앞으로 개발될 계획시설을 분석하면 크게 10개 종류에 72개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시설들 중 교육, 문화, 연수, 전시 등의 시설이 가장 많고 체육·운동·오락시설과 건강·웰빙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레저리조트로 첨단 IT산업과 접합된 복합레저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표 61〉 천수만권 지역별 특성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행정 구역	면적 (ha)	지역 및 특성	지역내 계획	주변계획
계			91,718		19개소	9개소
간척 지구	부남호 (B지구)	태안 군 서산 시	14,371	•태안국제관광도시 (One stop 종합복 합레저단지)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창리관광지 •팔봉영상단지 •철새도래지 •서산바이오웰빙관광특구	
	간월호 (A지구)	서산 시	24,342	•서산생태체험, 클 린지구, 생태 문 화체험	•간월도관광지 •철새도래지 •방조제, 전망대	
천수 만	동측 연안지역	홍성 군	18,286	•홍성테마별 특화체 험 관광지 (테마별 생태체험 관광)	•남당관광지, 어사궁리· 개발촉진지구 •도예특화단지·임해관광 도로 •조류탐사관, 속동전망대 •내포문화관광벨트 •죽도생태공원화	
	서측 연안지역	태안 군	27,420	•안면도자연휴양어 촌체험지구 (송림·갯벌 체험 학 습)	•안면도 자연휴양림 •정다리 갯벌체험	•안면도국제관광 지 조성사업(꽃 지·지포지구) •청포대·수중공원 •태안국립공원
원산도 지역		보령 시	7,299	•원산도 해양리조트 지구 (해양생태레저단지)	•영목항 원산도관광지 •대천항 효도해수욕장 •해안·해수욕장권 •천북 굴단지	•대천관광지 •머드체험관 •죽도관광지 •무창포해수욕장 •성주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표 62〉 천수만권 기존시설 및 계획상 도입시설 현황

구 분	시설 종류	기존 도입시설 및 계획시설 현황
숙박휴양시설	9	•콘도미니엄, 펜션, 호텔, 가족호텔 빌라(산장), 오토캠핑장, 골프빌리지, 온천장 등
해양관광시설	7	•마리나, 인공해변, 해상택시, 버스, 연구소, 해양체험, 해양위락 등
생태·환경체험시설	3	•갯벌, 농촌마을, 독살 등의 체험장
체육·운동·오락시설	10	•모노레일, 스포츠센터, 골프장, 승마장, 워터파크, 스파 리조트, 테마파크(가든형, 허브형), 위락단지,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교육·문화·연주·전시시설	17	•아쿠아리움, 박물관, 연수원, 약초원, 생태학교, 철새학습관, 버드존, 수목원, 화훼단지, 전시관, 공연장, 양어장, 아카데미타운, 생태공원, 주말농장, 특수영상관, 철새학습관 등
건강웰빙시설	7	•삼림욕장(휴양림), 뷰티케어타운, 실버타운, 명상마을, 메디컬, 테라피센터, 머드 등
업무복합시설	6	•국제비즈니스센터, 첨단복합, 상업업무, 주거단지, 바이오유통단지, 컨벤션(연회장) 등
경관(조경)시설	5	•전망대, 조망탑, 생태수로, 공공수로, 분수대 등
상업(특산물)시설	3	•전문음식점, 회센터, 직판장 등
관리 및 지원시설	5	•주차장, 도로, 관리센터, 방문자센터, 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③ 천수만 서해안 거점관광지대 조성 방향

천수만 거점 관광지대 조성은 기존의 관광개발계획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지구와의 상호연계성을 제고하고, 천수만내의 입지적 특성, 자원의 분포, 지형구조적인 내용, 조류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특화에 유리한 구역을 고려한다. 권역설정은 담수로 지역인 부남호지역과 간월호지역, 천수만 서측연안과 동측연안지역, 대천항과 영목항을 잇는 연육교와 원산도를 포함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천수만 주변은 5개의 관광 권역별로 특화하고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거점관광지를 통하여 광역벨트형 개발공간구상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천수만 주변은 5개의 지구별로 특화하고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거점관광지를 통하여 광역벨트형 개발공간구상을 하고 있다. 천수만 주변은 5개의 관광지구별로는 국지적인 입지특성과 주변 관련도시나 관광지와와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남호 지구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시설계획을 당초대로 반영하고 간월호와 천수만 동·서측지구와 원산도 주변의 해양리조트 지구는 기존계획에 새로운 도입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부남호지구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낙후지역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낙후지역에 자족적인 특구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 국제적인 관광·휴양, 웰빙메디칼 등 콤플렉스 타운 조성 및 one-stop으로 구축을 위한 일부시설 추가도입
- 국내적으로 경쟁적인 기업도시로 추진되고 있어 국제·관광·휴양의 거점을 선점

간월도지구는 광활한 간척지면적을 활용한 전형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하여 기존의 간월도 관광지를 기지로 새로운 신관광사업과 연관하여 특화한다.

-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관찰체험, 슬로우시티의 개념을 도입, 청정과 문화·전통적 방식으로 농경지와 호수를 활용한 첨단 농업관련 산업이 도입된 개발구상
- 간월호는 자연상태를 활용한 30년 후의 농업생명산업의 터전이 되고, 시험되는 시발지로 개발유도

천수만 동측연안 지구는 A방조제 남측으로 궁리포구-속동전망대-남당관광지-천북굴단지-보령신항을 잇는 지역으로 홍성서부 특화, 산악축과 연관된 개발계획 및 농촌경관마을, 발효산업, 체험마을 등 신산업관련 지역으로 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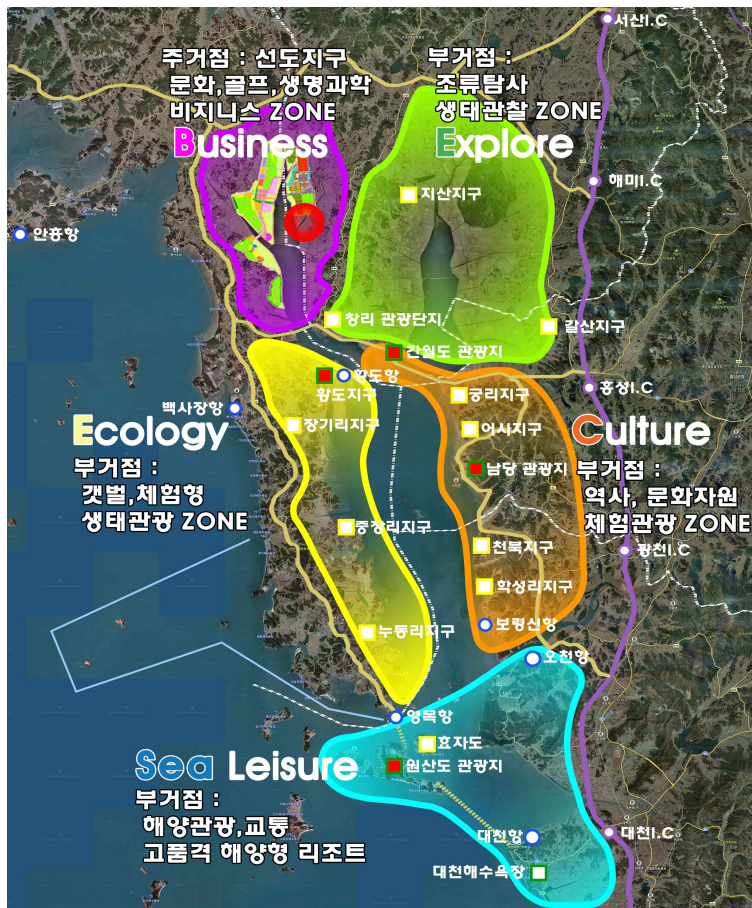
천수만 서측연안 지구는 B방조제 남측으로 황도리-안면읍-고남면-영목항을 잇는 천수만의 연안지역으로, 기존의 체험장 및 산림경관 중심으로 파인 코스와 관련이 많은 생태, 자연중심으로 개발과 관광 상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원산도 지구는 태안반도와 보령을 잇는 연육교에 의한 원산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와 해양리조트로 기대되고 거점지역의 랜드마크 및 결절지로 육성한다.

- 기존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갯벌, 염전, 해양문화센터와 교육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체류

형 휴양관광지 해안 및 도서의 경관과 기존수림의 활용, 주변의 어장 등 섬 속의 자연
관광휴양지로 개발과 기존 어촌마을을 관광체험 농어촌으로 재정비

- 해상을 적극 활용한 해양관련 모험시설 등을 배치하고 연안여객터미널의 중개지로
육로 대체 교통수단 마련
- 관광 및 레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해양마리나시설 및 리조트 등 관광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전진기지사업을 추진하여 해양레포츠 교육·훈련을 담당하
는 곳 조성
- 특히, 내륙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창출하고 주변 도서와 연계한 레저스포츠
실습 지역으로 거점 조성하여 추진



[그림 29] 천수만면 개발구상도

〈표 63〉 천수만권 지구별 개발방향

지 역	개발방향
부남호 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낙후지역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 낙후지역에 자족적인 특구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전략적으로 개발유도 • 국제적인 관광·휴양, 웰빙메디컬 등 콤플렉스 타운 조성 •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부시설 추가도입 • 국내적으로 경쟁적인 기업도시로 추진되고 있어 국제·관광·휴양의 거점을 선점
간월호 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활한 간척지면적 9,600ha를 활용한 전형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 • 기존의 간월도 관광지를 기지로 새로운 신관광사업과 연관하여 특화 • 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관찰체험, 슬로우시티의 개념을 도입, 청정과 문화·전통적 방식으로 농경지와 호수를 활용한 첨단 농업관련 산업이 도입된 개발구상 • 간월호는 자연상태를 활용한 30년 후의 농업생명산업의 터전 및 시험되는 시발지로 개발유도
천수만 동측연안 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방조제 남측으로 궁리포구-속동전망대-남당관광지-천북굴단지-보령신항을 잇는 지역 • 홍성서부 특화핵, 산악축과 연관된 개발계획 • 농촌경관마을, 발효산업, 체험마을 등 신산업관련 특화
천수만 서측연안 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방조제 남측으로 황도리-안면읍-고남면-영목항을 잇는 천수만의 연안지역 • 기존의 체험장 및 산림경관 중심으로 파인 코스와 관련이 많은 생태, 자연 중심으로 개발과 관광 상품의 브랜드화
원산도 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반도와 보령을 잇는 연육교에 의한 원산도 중심으로 해양리조트로 기대되고 거점지역의 랜드마크 및 결절지로 육성 • 기존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갯벌, 염전, 해양문화센터와 교육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체류형 휴양관광지 해안 및 도서의 경관과 기존수립의 활용, 주변의 어장 등 섬속의 자연 관광휴양지로 개발과 기존 어촌마을을 관광체험 농어촌으로 재정비 • 해상을 적극 활용한 해양관련 모험시설 등을 배치하고 연안여객터미널의 중개지로 육로 대체 교통수단 마련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2) 천수만 거점관광지대의 관광지별 개발구상 및 도입시설

①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 및 도입시설

천수만의 부남호 지구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시설계획을 당초대로 반영한다. 부남호 지구는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태안읍 남면일원으로 면적은 21,678천㎡이며, 투자재원은 19,337억원(공공 758, 민자 18,579)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현대건설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표 64〉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안) 및 도입시설

구 분		위 치	규모(천㎡)	내 용
합 계			1,265 (36,878)	• ()는 전체 면적
추진사업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현대)	태안, 태안읍, 남면	14,644	• 골프장, 주거, 상업, 웰빙병원, 테마파크
	서산웰빙특구(현대)	서산, 부석	5,699	• 농업바이오, 관광, 골프장, 실버단지
	창리관광지	서산, 부석	22.0	• 숙박·위락형 관광지
구상중인사업	항공레저	서산, 태안	열기구 등 5종	• 농사용 비행장 활용
	마리나	부남호	15,270㎡ (100척)	• 덩기급 요트
	건강문화마을	서산, 태안	300	• 은퇴자 거주지역
	귀농자마을조성	서산, 태안	300	• 농어촌 관광·휴양마을 주거지역
	승마(말타기)	서산, 부석	29km	• 마사산업육성 지원
	가로수 길	부남호호안	29km	• 미루, 메타세쿼이아, 느티, 수양버들 등
	화훼단지 조성	간척농지	500	• 백합, 심비디움 등
	워터프런트	부남호	165	• 호수 일부 매립
	정주영 공원	부남호	-	• 워터프런트계획에 포함
	연결교량 건설	부석면-태안읍	300m	• 기업도시와 웰빙특구지역 연결도로
교통망확충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당진-태안	32km	• 기업도시 등 관광객 수송
	서해산업선철도	천안-태안	78km	• 대산공단 등 연결 및 관광객 수송
	공항도로건설	신도청-태안읍	48km	• 내포도로와 연결
	공항건설	태안비행장 서산비행장	400m CIQ시설	• 1단계 경비행기 운항 • 2단계 국제공항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그림 30]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

② 간월호 지역

천수만의 간월호 지구는 간월도 관광지와 천수만 버드랜드 조성계획 당초대로 반영한다. 간월호 지구는 서산시 부석면을 중심지역으로 면적은 449,000㎡이며, 투자재원은 1,005억원(공공 448, 민자 557)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도, 서산시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철새를 주제로 주변 농촌체험 및 지역민과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특히, 버드랜드는 장기적으로 조류동물원 조성을 통한 관광매력 증대를 제안한다.

〈표 65〉 간월호 지역 도입시설

구 분		위 치	규모 (ha)	도입시설
합계		3개소	44.9	
추진사업	간월도 관광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장, 배수지, 화장실, 도로, 광장, 가족호텔, 여관, 음식점, 미니골프장, 삼림욕장, 해수욕장, 전망휴게소 등 추가사업 : 해산물 채취 체험장
	갈산지구	서산시 고북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원, 그린식품농장, 토종물고기 생태체험장, 양식장, 담수관상어, 생태공원, 건강식품(발효식품) 전시매장, 전통옹기마을, 전통놀이장, 도예교실
	지산지구	서산시 부석면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새탐조대, 자전거 및 보행자 간이휴게소, 자전거 보관대, 코스별중개지 및 대피소, 자전거도로, 산책로(둘레길) 추가사업 : 조류야생동물원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그림 31] 간월호 지역 개발구상도

③ 천수만 동측 지역

천수만 동측지역은 홍성 남당관광지를 중심으로 궁리포구에서 학성리지구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갯벌과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관광식품 거점단지 조성 및 지역민과 연계한 체험단지 계획을 구상한다. 천수만 동측 지구는 홍성군 서부면, 천북면 지역으로 면적은 486,000천㎡이며, 투자재원은 4,222억원(공공 3,574, 민자 648)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도, 홍성군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표 66〉 천수만 동측지역 도입시설

구 분		위 치	규모 (ha)	도입시설
합계		5개소	48.6	
천수만 동측 지역	남당 관광지	서부면 남당리	16.6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중앙공원, 수산물전시장, 양어장, 해양박물관, 해양연구소, 상가시설 등
	궁리, 어사지구	서부면 궁리, 어사리	13.3	•궁리포구, 조류탐사과학과, 열기구장, 주차장, 진입로, 회센터, 임해관광도로, 공공편의시설, 식당, 선착장, 수산물직판장 등
	천북지구	천북면 장은리	10.0	•천북굴단지, 젓갈 및 특화마을, 체험장, 갯벌양식 및 체험장, 건강(발효)식당, 주차장, 풍력발전기 등 •추가시설 : 수산물관광식품 거점단지(굴, 해삼 등) 조성
	학성리지구	천북면 학성리	9.0	•갯벌체험장, 캠핑장, 풍력발전기, 고기마을, 체력단련장, 식당, 자연휴양림, 산책로, 주차장 등
	보령신항	보령시 오천면	-	•선착장, 방파제, 선박부두, 터미널, 숙박시설, 하역장, 호안 안벽, 물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그림 32] 천수만 동측 지역 개발구상도

④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 및 천수만 서측 신규지구 개발구상 및 도입시설

안면도국제관광지는 2010년 이후에 민간개발 사업자가 선정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당초 계획됐던 골프장과 숙박, 수상스포츠 중심의 관광지가 아니라 친환경 고급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안면도관광지의 개발 컨셉은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으로 병원과 승마·수영·영어 등을 가르치는 교육아카데미, 미술관, 승마장, 기업연수마을, 테마파크 등 기존 국내 휴양지와 차별화된 시설도 조성하고, 보행자가 중심이



[그림 33]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계획(안)

되는 보행로와 공원, 목장 등 전원풍의 소도시도 이곳에 구현하는 구상이다.

안면도관광지 도입시설은 6성급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안면도를 4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해수온천장을 조성하는 등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 중장, 신야리 일원 381만 5,000㎡에 외자 3,334억 원 등 1조 474억 원이 투입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가족 단위로 찾아 쉴 수 있도록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해양수족관 등 볼거리와 친환경 휴양지답게 생태꽃테마파크, 염전에코테마파크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도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저층 단독형에 건폐율이 10%로 제한하고, 모래가 바다쪽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백사장과 해변 생태가 망가진 꽃지해수욕장의 옹벽 등 인공구조물을 철거해 원래 자연환경으로 되돌리고, 이른바 ‘안면송’으로 유명한 소나무숲과 구룡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안면도 관광지 추진방안에 있어 현재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일괄 추진 방식에서 분야별 추진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자유치에 있어 중국 자본의 유치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천수만 서측지구의 신규지구는 영목항지구, 누동리지구, 중장리지구, 창기리지구, 황도지구 등 총 5개소로 사업규모는 549,000㎡이며, 투자재원은 373억원(공공 167, 민자 206)으로 태안군의 주체로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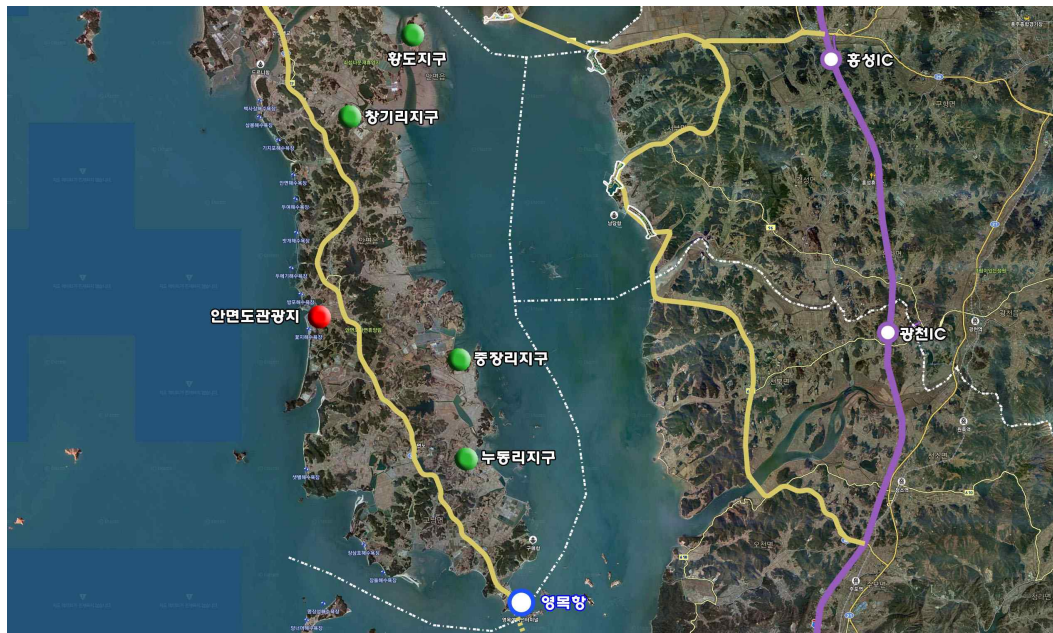
천수만 서측지구의 개발은 지역민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방식으로 어촌 체험과 수산물 양식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특히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인 가공과 3차 산업이 관광서비스 산업까지 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관광과 해삼을 좋아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삼 특화 해양체험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영목항을 중심으로 한 바다낚시 체험 특화를 통해 국내 바다낚시체험의 메카로 조성하고 특히 낚시 환경의 고급화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바다낚시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한다.

〈표 67〉 천수만 서측지구 도입시설계획(안)

구 분		위치	규모 (ha)	도입시설
합계		5개소	54.9	
천수만 서측지구	영목항지구	태안군 고남면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호안, 해안도로, 식당 등 • 추가시설 : 전통 바다낚시체험장 등
	누동리지구	태안군 고남면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장, 해안산책로, 수산어종 및 미생물 연구소, 관상어 전시장 등
	중장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전 및 체험장, 편의점, 소금박물관, 소나무숲길, 체험농장, 생태학교 등
	창기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장, 주말농장, 체력장, 해안전망대, 주차장 등
	황도지구	태안군 안면읍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장, 청소년수련원, 갯벌체험장, 전망휴게소, 숙박시설, 어촌캠핑장, 해안둘레길, 주차장, 수산물센터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그림 34] 천수만 서측지구 개발지구(안)

⑤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 및 원산도 지구 개발구상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은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영목항, 원산도지구, 효자도지구 등으로 사업규모는 9,520,000㎡로서 투자재원은 15,784억원(공공 3,309 , 민자 12,475)으로 사업은 보령시의 주체로 추진한다.

〈표 68〉 보령·안면도 연육교 지구 도입시설계획(안)

구 분		위 치	규모(ha)	도입시설
합 계		4개소	743.0	
보령· 안면도 연육교 지구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 장	보령시	6.0	• 여객터미널, 오토캠프장, 수련원, 숙박시설, 해수욕장, 도로, 주차장, 녹지, 지원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아쿠아리움, 버스터미널 등
	영목항	태안군 고남면	—	• 물양장, 선양장, 방파제호안, 해안도로 등 6개 사업
	원산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707.0	• 해상택시·버스, 자전거도로, 어촌민속체험마을, 섬생태 및 보호지구, 요트장, 포토랜드, 펜션, 호텔, 선착장, 주차장, 산책로 등 • 추가시설 : 해양레저체험 및 교육시설, 리조트
	효자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30.0	• 해수욕장, 해양학교, 선착장, 둘레길, 어촌마을, 윈드서핑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그림 35] 보령·안면도 연육교 지구 개발구상(안)

특히, 보령·안면도 연육교 핵심지구인 원산도지구는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주변 섬들을 해양레저관광의 교육과 실습의 지역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일원에 사업규모는 7,070,000㎡로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50억원(공공 150, 민자 800)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다. 원산도지구의 도입시설은 해상택시, 해상버스, 위그선(안전성, 경제성 등 해결 후), 해양레저교육시설, 마리나 리조트, 자전거, 수소연료관광용 자동차, 대천관광모노레일, 세계머드엑스포장 등이고 각 섬별 사업구상은 원산도(포토랜드), 고대도(선교마을 조성), 장고도(어촌민속체험마을 조성), 삼시도(휴양타운 조성), 녹도(해상공원 조성), 효자도(섬생태지구 조성), 외연도(자연경관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한다.

〈표 69〉 원산도지구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	구성비 (%)	도입시설	개발전략
계	353,000	100.0		
공공·편익 시설	411,056	5.8	전망대, 광장, 주차장	• 저두선착장을 주진출입부로 진입부에 주차장 설치
숙박시설	565,200	8.0	별장형콘도, 리조트호텔, 유스호스텔, 연수원, 펜션단지, 해상민박, 코티지,	• 3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오봉산해수욕장은 리조트호텔, 콘도, 사창해수욕장은 실버타운, 원산도 해수욕장은 펜션단지를 조성함
상가시설	294,032	4.2	레스토랑, 테마카페, 씨푸드몰	• 내호를 활용한 해상민박 도입 • 선착장 주변에 씨푸드몰을 조성하고 전망이 좋은 각 지점에 테마카페/레스토랑을 배치
휴양·문화 시설	856,143	12.1	실버타운, 갯벌/염생생태원, 어촌체험관, 피싱파크, 전망카페, 이벤트광장, 공연장	• 원산도내 폐염전과 갯벌을 활용한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기존마을을 정비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조성
운동·위락 시설	434,765	6.1	미니골프장, 마리나, 요트클럽, 자전거도로	• 오봉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운동오락시설을 배치 • 추가시설 : 해양레저교육시설, 해양문화센터, 마리나 시설 및 리조트
녹지 및 기타	4,508,804	63.8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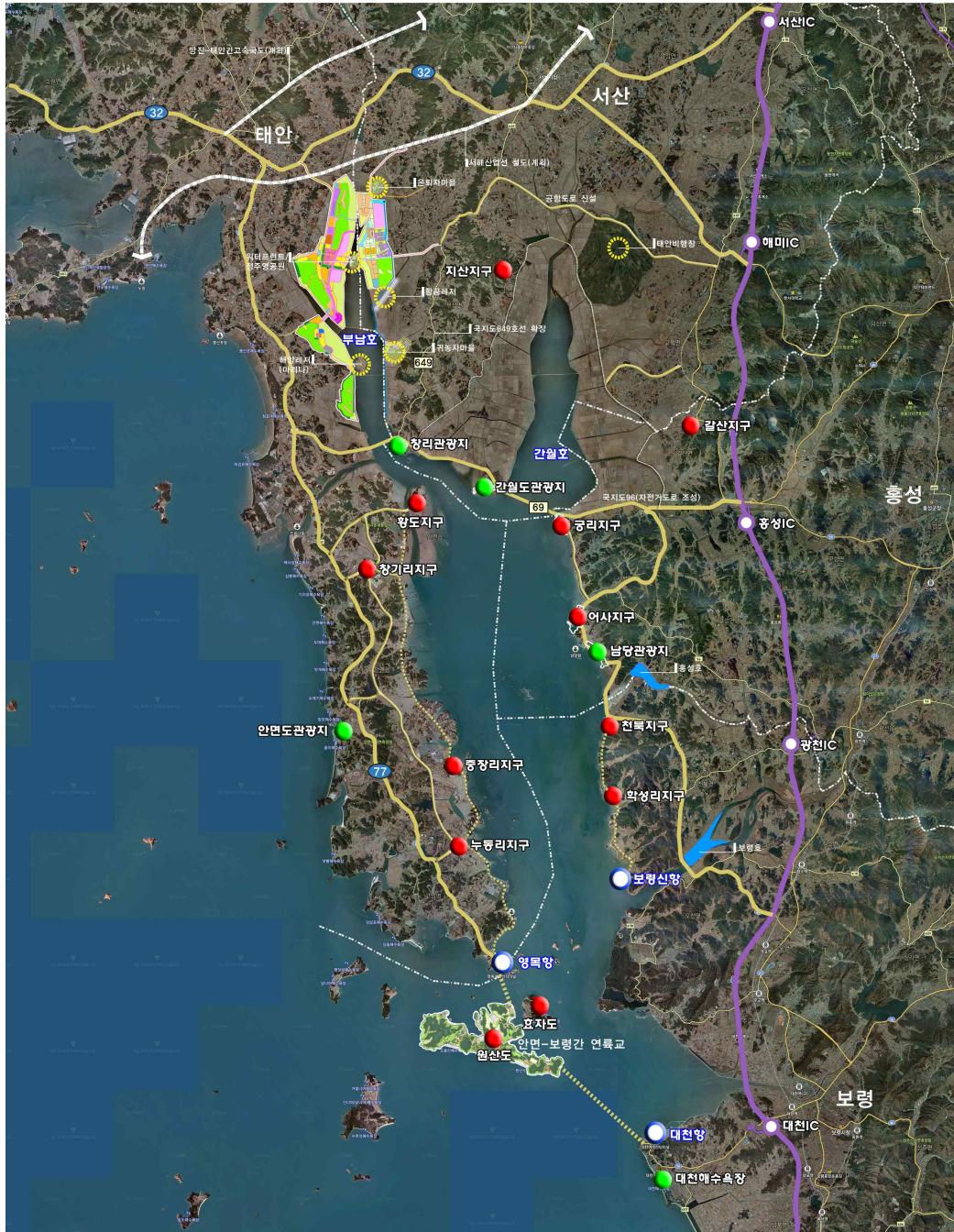
이상의 관광지구별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의 통합적인 관광전진기지의 구축을 위하여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관광지 개발계획의 단계적 추진 및 협력적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현재의 해상공랑과 미래의 해상레저 관광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기존 사업계획에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민자유치가 추진되는 관광거점 지역과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거점 지역간의 연계를 통해 충남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안면도관광지와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조성 촉진을 위한 민자사업 주체와 관광개발 전문가, 지역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적 사업추진과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한다.

또한,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의 원산도 지구, 대천해수욕장, 영목항 지구 및 천수만 서측과 동쪽의 각 단위 관광지 개발사업도 순환형의 관광벨트의 사업에 대하여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개별 관광시설 개발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2010, 충청남도).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초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등)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천수만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그림 36] 천수만권 관광·휴양벨트 종합계획도

2) 생태·해양·역사문화 관광벨트와 관광명소 육성

(1) 천수만·비인만지역 생태체험 관광벨트화

충남 서해연안의 제반 환경 및 현황에 따라 종합해양체험관광, 국제문화관광중심, 해양생태·역사문화관광 등과 같이 특화 가능한 자원잠재력을 부각하여 지역특성별로 개발을 추진한다. 서해연안 지역특성 및 관광시장과의 관계, 권역 내 자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광시장에 적합하게 공간구상을 추진하여 지역간 상호 연계·보완이 기능을 갖도록 개발한다.

관광권역내에서 관광객이 집중하는 지역 또는 관광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 거점개발이 가능한 도시를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계관광지를 네트워크로 개발한다. 연계관광지는 중심거점 및 관광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 권역별 개발방향에 따른 자원의 차별성이 뚜렷하며, 개발을 위한 적정 토지 획득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관광지로 육성한다.

개발전략으로는 마량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 일출·일몰·월출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동백정과 마량방파제, 패류와 쭈꾸미 등이 서식하는 흥원항 갯벌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각색하기 위하여 선도리 일원에 갯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한다.

또한 동백꽃 쭈꾸미축제, 전어축제, 마량포 해돋이축제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로·주차장·화장실 등 기초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게 제공한다.

자연환경에 걸맞는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연출, 갯벌체험 등에 교육적 기능 결합 등을 통하여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한다, 따라서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생태공원으로 정비하여 서산·태안·홍성의 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

-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가창오리 등 260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천수만 A·B지구와 금강하구에 조류를 주제로 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살아있는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 생태공원 내 주요 도입시설은 탐조시설 4개소와 철새학습관, 철새생태공원으로 구성
- 시설정비에 따른 관광활동이 철새의 서식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정

비수준과 위치를 설정

-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인 철새학습관과 생태공원은 기존 접근도로변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토록 하며, 공원 내부구역은 보존토록 하여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호

또한 태안 만리포 지구의 경우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교육을 위한 장소로 지구환경 보전 상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태교육관광지로 연계한다. 서산은 도시관광지로서 기존에 형성되고 있는 동문동 일원에 중저가형 숙박과 야간위락시설을 도입하여 관광도시의 기능을 강화한다.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은 자생하고 있는 해송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갯벌체험장과 청소년수련장 등을 배치하는 자연친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한다.

- 기존 관광체험로, 화장실 및 취사장 이외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 정비하되, 갯벌체험이 당일관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만을 개발

마량포 해돋이마을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연말연시 해돋이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제장소와 상징적 기념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 해안경관이 주요한 관광자원임을 감안하여 해안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활동에 필요한 필수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 마량리 동백나무숲 보호사업으로는 동백나무숲 보전을 위한 쉼스, 안내판 등의 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기초편의시설 등을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주차장·이벤트 광장 등은 해돋이마을의 시설을 공동 활용

장항 지역의 경우 문화를 활용한 환경오염 지대를 재생하는 방안 도입으로 먼저 장항 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국제생태산업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문화관광지로 조성한다.

(2) 삼교호지역의 해양체험 관광벨트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은 당진지역의 광역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이는 숙박관광객 감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삼교호지역(당진군)의 관광지 성격을 수도권 당일관광권으로 재설정한다.

-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광역교통 노선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4호선이며, 두 노선의 경유지에 위치한 행담도와 삼교호관광지를 경유형 관광자원으로 설정
- 도서지역에 위치한 난지도해수욕장 일원을 하계휴양지로 정비하여 수도권 지역 내 단기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삼교호 관광지 해양체험광장은 삼교호 함상공원을 관광객 유인요소로 활용하여 수도권 관광객의 당일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양체험광장을 추가로 정비한다.

- 삼교호 함상공원은 퇴역한 함정을 이용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활약상, 함정 및 함포의 세계, 입체 디오라마 등을 통하여 바다와 해군 및 해병대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
- 해양체험광장은 삼교호 함상공원의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체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
- 함상공원과 육지부에 전시되고 있는 해군장비와 입체영상관, 기념품점 사이에 워터프런트 광장을 조성하여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나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재구성하며, 상징조각 전시장을 마련하여 테마공원의 집적도를 높임
- 또한 해변의 일부를 해병대 훈련 체험장으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훈련과정의 일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참여형 관광의 장으로 활용

난지도해수욕장은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이라는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여름철을 목표로 한 1계절 가족단위 피서지로 정비한다.

- 접근성, 개발가능지 등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관광자원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광객을 위한 기초편익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비
- 가족 단위 관광객에 동반하는 어린이를 위하여 모험놀이시설이 설치된 해수풀장 등 안전한 물놀이공간을 설치
- 단기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방갈로시설 등을 유치하며,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 효과 창출을 위하여 민박시설 등을 정비

행담도 관광지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일 6~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단순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물러 지역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담도를 경유형 종합관광자원으로 정비한다.

- 행담도를 종합관광지로 정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를 독립된 관광자

원으로 인식토록 하며,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양생태전시관과 기존 갯벌·갈대밭 등을 이용한 조류생태 탐방공원 등 관광객 유인시설을 개발

해양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항·포구 시설 확충으로는 도시민들이 생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한적한 소규모 항·포구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정비하며, 정비수준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 삼교호 주변의 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해상교통 결절점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등을 정비

(3) 내포문화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벨트화

내포 보부상과 종교(불교사찰이나 천주교성지) 등 전국 각지의 유사 사업들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내포문화권 사업의 이미지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 내포문화에 대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내포문화권 테마자원의 개발로 내포보부상촌 조성, 내포보부상길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천주교 역사문화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문분야 관광(SIT)을 활성화하고 천주교 관광루트를 개발
- 이색성을 강조하는 특별목적관광, 교육성을 추구하는 문화관광, 활동성에 치중한 체험관광 등으로 세분하여 수요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특성을 강화하는 마케팅전략(STP: Segmenting-Targeting-Positioning)을 수립하여 각각의 자원별 경쟁력을 확보
- 전통문화체험, 관찰체험, 제작실험체험 등과 같이 소비자의 참여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
- 사찰생활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들 배후관광도시 아산은 온천 중심의 관광위락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연계하는 주변 관광지를 특화하여 육성한다.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의 구축

(1)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기반시설 확충

① 다양한 체류형 숙박시설의 구축

중국인관광객 등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서해안 지역 관광수용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수용태세 사업은 관광지 개발, 관광시설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조성 사업과 비교 할 때, 우선순위 사업에서 뒤처지거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과를 낳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행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숙박시설을 포함한 수용태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친 중국인 수용태세 마련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인관광객 유치시설로 중저가호텔을 조성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방문객, 일반 내국인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최근 외국계 브랜드 중저가 호텔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추세는 대도시에서 시작하여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에도 이러한 중저가호텔을 유치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보다 편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급 숙박 및 레저시설을 조성한다. 국제적 관광 목적지로서 서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리조트형 고급 콘도 시설 조성을 통해 휴양과 즐거움이 있는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해안 관광거점지역이나 대산항 주변지역에 숙박과 레저시설이나 공간을 조성하고 리조트형 콘도 시설을 유치한다.

더불어, 중저가 관광호텔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중규모 호텔의 이미지 상쇄 및 새로운 이미지 구축, 전국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BENIKEA 브랜드 체인

으로 가맹 호텔을 확대한다. 2013년 기준 충남에는 가야관광호텔, 베니키아에버그린관광호텔, 베니키아 호텔 당진, 온양관광호텔 등이 베티키아 체인호텔로 운영 중에 있다.

※ 베니키아(BENIKEA)

- 한국형 비즈니스 호텔급 체인브랜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 특히 개별여행객(FIT: Free Independent Traveler)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비즈니스 호텔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숙박 일 도모하며 숙박 및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스탠다드, 프리미어(특급), 가족호텔(취사가능)로 구분되어지며, 서울, 인천,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음

뿐만 아니라 기존 모텔 숙박시설의 개선사업도 실시한다. 기존 서해안의 숙박시설로는 중국인관광객 유치에 위한 숙박시설의 원활한 활용이 어려우며, 단기간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의 건립도 어려움에 따라 기존모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맞이를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 전라북도 사례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개시군의 기존 모텔 30곳을 굿스테이 2곳, 관광호텔 6곳으로 개선함
 -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모텔) 중 관광호텔(3등급이상) 또는 호텔급에 준하는 굿스테이로 전환 등록하는 숙박업소
 - 건물이 본인 소유인자(법인도 가능)
 - 관광호텔은 총사업비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도와 시군에서 보조, 굿스테이는 총사업비 최고 3억 2천만원내의 사업비를 도와 시군에서 50% 보조

※ 부산 해운대 사례

- 건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운대구에서는 숙박업소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업소당 총 비용의 50% 이내이며,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총 5천만 원을 지원함(2013년 기준)
 - 지원분야는 모텔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접대객 개발 편의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 등임
- 지원대상의 결정 방법은 사업계획의 효과, 행정처분 여부, 우수업소 지정여부, 영업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illegible]

[그림 37] 숙박업소 개선사업

이러한 모텔 활용을 위한 숙박시설 리뉴얼은 중국인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입지(교통 편리성, 관광자원 연계성 등)와 깨끗한 객실 시설, 중국어 통역 등의 부가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모텔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시설과 중국인의 생활습성을 고려한 시설적인 측면의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하며, 중국어 통역 등의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굿스테이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굿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우수 숙박업소 명칭으로 시설개선비 이외에도 사후관리비, 홍보활동, 프로그램 등을 부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 할 수 있다.

② 중국 등 외국인 관광거리 조성

서해안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객선 운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해안의 관광도시에 외국인 거리를 조성해 서해안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물론 중국인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치하며 외국인의 교류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 특히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국인 거리를 조성한다.

인천의 기존 명소화 된 차이나타운은 자연스럽게 중국인이 생활을 하며 모인 장소에서 시작되었듯이 외국인 문화거리는 현재 유학생 및 이주 외국인, 중국인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모이는 기능부터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후 외국인 참여 축제와 함께 외국인 문화 거리다운 외국풍 문양, 조형물, 조명 등이 장기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향후 외국전문 음식점, 식음재료, 향 가게 등 외국인이 즐겨 찾는 물

품을 판매하는 상가들의 입점을 기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문화 시설 및 단체의 집적화를 통한 거리 조성도 병행한다. 외국인 문화거리 대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여관과 선술집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사회방범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산시의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결혼이주자, 유학생들을 위한 생필품판매, 종교시설, 외국인 음식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또한 쇼핑, 음식, 종교, 교육, 공연 및 취미활동, 정보교류 등을 위한 시설과 단체를 집적화 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김해 외국인타운

- 경남 김해시 서상동은 최근 외국인 거리로 지정되어 특화거리로 발전함
- 김해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방문이 이루어짐
- 김해외국인근로자센터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일한 외국인 지원센터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 국경절, 필리핀 독립기념일, 베트남 독립기념일, 태국송กรานต์, 몽골나담축제 등 다양한 국가별 공동체 행사를 주체함

외국인 관광거리의 주요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판교체, 로드아트 등 도시디자인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야간 조명시설의 특화를 통하여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서해안 지역에 부족한 체류형 야간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화장실, 환전소, 국제공중전화, 현금자동인출기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안내소와 연계하여 관광안내통역사를 상주 배치하며 모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한자(간자체)와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③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외국어안내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안내서비스 체계 및 대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안내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체계 및 효율적인 안내서비스 개

선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원활한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내외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소 구축이외에도 외국관광객을 위한 통역가이드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안내요원 양성, 동시통역 서비스, 각종 안내판 등 외국어 표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안내요원으로 기존의 통역사, 중국어 관광가이드 등을 활용하되, 우선적으로는 중국인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중화권 인력을 활용한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안내 및 관광실무 교육을 체계화하여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이수교육을 실시한다.

관광통역안내 매뉴얼 교육, 여행업체 관리 교육, 특화 관광상품 개발교육, 관광객 환대서비스 교육, 직업의식 고취 및 실무 교육 등을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교육받도록 한다. 또한 관광요원화 교육, 관광안내 소양 교육,接客 장소 교육, 한국어 기초회화 교육, 관광명소 안내, 교통체계, 위급사항 대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 관광통역안내 매뉴얼

- 관광자원에 대한 부정확한 해설로 인한 관광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매뉴얼을 작성함
- 서산의 자연, 인문, 관광환경소개, 신화와 전설, 관광지 소개 및 관광안내요령, 선진외국 우수여행안내 사례 등을 소개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여행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들의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함



관광안내물의 중국어표기도 추진을 통해 표지판,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주요 쇼핑시설 및 관람시설, 관광지도 및 홍보 브로슈어, 교통표지판 등에 간자체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중국인관광객의 안내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인관광객이 특히 많이 방문하게 되는 숙박시설, 쇼핑시설, 관광지 등의 모든 안내표지판에 한자병기,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지 설명판 정비사업은 서산시에서 지속적으로 노후화 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글 다음에 영어→일어→중국어 순서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어→영어→일어 순으로 하여 보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함. 최근 공항철도의 음성안내 서비스에서도 일본어보다 중국어가 먼저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변환된 것이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자화 되어 발행되는 관광안내지도, 홍보 브로슈어의 경우에는 북경 중국어(간자체)외에 광둥어판도 신규 발행하여 광둥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 중화권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림 38] 스토리가 있는 관광안내도 및 다양한 형태의 관광안내 책자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 중심의 보고 듣고 따라 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다국어 관광안내 및 방대한 양의 정보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들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④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음식점 선진화

방한 중국인관광객이 갖고 있는 상위 불만요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식당과 음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인은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 정통음식을 선호하며, 숙박시설 내 또는 주변에 식당이 있어야 하며, 기름진 음식과 차를 상복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함께 많은 양을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며, 최소한 탕(스프)-야채-메인음식(육류 또는 생선)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음식점을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해안지역에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을 육성한다. 서해안을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중국인관광객 전문식당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육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1단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관광객 전문식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인만 올 수 있는 식당이 아니라 평소에는 기존 형태로 운영하지만 패키지여행객 등이 방문하였을 때 여행사와 연계하여 중국인관광객을 맞이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수 및 전문식당을 선정하여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인증표를 발급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도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선정된 식당에 대해서는 인증패 제공, 충청남도 관광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홍보, 서비스 품질 교육 및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고 전담여행사와 협력하여 인센티브, 할인혜택 및 추가 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강구한다.

※ 발내림시설

- 방문외국인들이 전통식당에서 오래 머물며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식당환경개선
- 음식점내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도
- 서산시와 요식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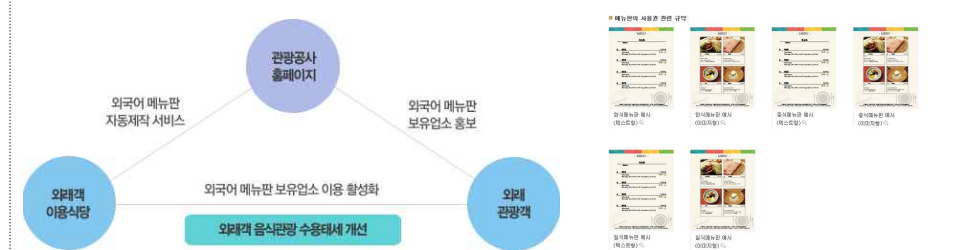


외국인의 체형상 온돌방에 앉기를 꺼려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발내림 시설을 설치하여 앉기 편한 구조로 개선하여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배, 등반이 의자 교체, 배선 정리 등 환경을 개선하며, 이는 시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관광거점도시 지역 소재 음식점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설치 지원하며, 이들 도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 내 발내림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문식당을 선정된 식당의 업주 및 요식업 종사자에 대한 간단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식당 입구 또는 간판 등에 중국인전문음식점이라는 홍보 표기 및 지정인증 표식, 메뉴판 제작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음식점의 위생 및 청결, 식사도구, 메뉴의 다양성, 음식의 가격 등 식당의 구조, 청결도 등 수용태세를 개선하도록 한다.

※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http://kto.visitkorea.or.kr/kor/biz/fl/menu.kto>)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사이트에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음식메뉴 약 1,700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번체 표기 자료로 지원되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제작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음식점 운영자들은 간편하게 외국인 접객용 메뉴판 제작이 가능하게 함
- 각 음식점이 환경과 기호에 맞춰 외국어 메뉴판을 직접 손쉽게 제작하고,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됨



중국인관광객의 음식 불편사항은 기름진 요리가 없어서 포만감을 주지 않으며,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중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최대한 우리의 음식 메뉴를 유지하면서 중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메뉴를 개발한다. 정통적인 중국요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서해안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메뉴가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된 메뉴의 조리가 가능한 음식점을 전문식당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안내체계 교육을 실시한다. 서해안에 대한 관광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의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서울 호스피탈리티 실천매뉴얼

- 서울에 대한 관광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호스피탈리티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함
- 관광업계 종사자용으로 제작되어 음식점편, 숙박업소편, 쇼핑지편, 관광지편, 교통편, 일반시민편 등 총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음
- 매뉴얼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기초 회화 및 응대 에티켓을 수록함



⑤ 중국 등 외국인 대상 쇼핑시설 및 재래시장 육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 거점지에 쇼핑시설의 조성을 추진한다. 따라서 신규 쇼핑시설을 조성하는데 대형 쇼핑몰 형태로 조성 시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비와 운영의 지속성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선호 상품을 위주로 하는 적정 규모의 복합 쇼핑 시설을 건립한다.

서해안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아니라는 입지적 단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관광상품으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적시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와 테마를 가진 쇼핑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산항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

더불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5일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 관광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여 이를 활용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시설로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품목으로 고급브랜드의 명품 제품을 지양하고 중저가 브랜드로서 미용, 의류, 건강과 관련된 상품으로 구성한다.



자료 : 서산시(2013),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단계별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

[그림 39] 대산항 국제관광프라자 조감도 예시

또한,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련카드 가맹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은련카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서해안 지역에는 은련카드 가맹이 2013년 기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 및 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은련카드와의 MOU 체결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시장 또한 성장하고 소비 지출액이 급증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인관광객 구매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형태의 은련카드가 많이 통용되고 있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발행카드 대응 ATM 및 중국 발행 신용카드 결제 가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해안의 관광지 및 시설, 식음시설, 쇼핑시설 등을 중심으로 은련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후 단말기를 보급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림 40] 은련카드

⑥ 서해안 관광 홍보 및 프로모션 전개와 선호 관광상품 제공

현재 중국인에게 인지되고 있는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중국인에게 '그냥 대한민국의 한 지역'일뿐이며,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바운드 여행사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간에 서해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 실행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해안 지역의 시·군들이 함께 중국인관광객을 유입시키는데 관련되는 각종 기관, 단체 및 업계 등과의 공동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인 전담여행사, 항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중국인관광객 유치에 있어 충청남도의 독자적인 사업진행보다는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여행사(전담 여행사), 중국내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산항만청 등과의 협력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서해안의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국내홍보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서해안 관광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보다는 대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뱃길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한다.

국외홍보로는 해외 레저 및 관광박람회의 참가를 통해 서해안 및 대산항의 국제여객항로와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서해안을 관광목적지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국 및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지역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및 관련기관 등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대외활동은 지역의

투자유치, 자매도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과 서해안의 각 시·군도 중국 및 일본 등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형태로 교류협력을 맺고 있으며, 공무원, 문화예술,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다양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서산시 문화관광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우선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문화 교류 사업 전개이다. 중국 산둥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연안 지역과 서산시 자매결연도시와의 정기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한다. 그리고 인적 교류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공무원 상호파견, 청소년교류, 문화·체육교류 등으로 상호 교류를 시작하여 현재는 인적 교류 및 무역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화권 청소년과 관련된 교류사업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내 중국팀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교류사업의 경우 충청남도와 한국관광공사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중국 현지 박람회 개최 및 홍보 설명회 등을 확대하도록 한다. 주요 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단체 및 개별관광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홍보물과 안내책자를 제작 및 지원하도록 한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단체 및 개별관광 수요가 많은 주요 대도시의 한국관광공사 지사, 한국문화원, 코리아 프라자 등을 활용하여 MICE, 단체관광 및 여성미용(화장품)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에 대한 중국 현지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을 출연시킴으로써 홍보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여건이 될 시에는 시군, 충청남도와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여 한류 콘서트를 진행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선호테마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드라마와 K-Pop으로 이어지는 한류가 대부분이며, 쇼핑과 성형에 대한 테마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 먹거리, 축제, 역사유적 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관심도와 인지도면에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충남의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서해안 지역 및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며, 특히 구전효과 등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테마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해안의 주력 관광상품으로는 해양 낚시 공원 체험상품이 있다. 평

소에 바다를 보기 힘든 중국관광객에게 바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람선 관광과 낚시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양낚시 상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가두리 낚시터 체험, 상설 독살체험장, Fisherman 체험 상품, 천수만 해상 휴게시설 체험상품 등이 있다.



[그림 41] 가두리 낚시 체험



[그림 42] 독살과 어선체험

중국인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선호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뚜렷하며, 선호하는 테마가 관광자원 및 시설에 접목되어 이슈화가 되면 관광명소로 방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풍수(風水, Feng shui)와 관련된 믿음이 강하며, 따라서 건강, 금전, 애정 등 복(福)을 기원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및 중화권 국가의 관광지 및 관광시설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풍수사상에 따른 자원이 많고, 관광명소화 되어 많은 중국인관광객이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체험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아이템 발굴과 상품화는 체험 및 음식자원 등과 관련할 경우 크게 여성들의 미용과 노년층의 건강, 남성의 정력 증가와 같은 테마로 상품화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산업의 발전

과 기념품으로서의 특산품 판매와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서산시, 2013).

〈표 70〉 중국인관광객 선호 아이템

구 분	주요 내용
색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적인 색 : 붉은색, 금색 • 개인적인 색 : 회색, 검정색(무리에서 튀지 않는 색 선호)
숫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숫자 : 8, 9, 6(발음상 의미로 돈을 벌다, 장수하다, 순조롭다 의미) • 비선호 숫자 : 4(발음상 죽음을 의미)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동물 : 용, 봉황, 호랑이, 박쥐 • 비선호 동물 : 양, 뱀(뱀띠의 경우 작은 용띠라고 부름)
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식물 : 목단, 연꽃, 장미(베이징에서만)
한류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드라마 : 남녀간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 • 비선호 드라마 : 역사 드라마(특히 중국인이 나오는/대장금 제외)
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선물 : 담배, 코냑(술), 넥타이, 팬시사무용품 • 금기 선물 : 우산(헤어짐을 의미), 시계(죽음을 의미) – 선물 포장시 흰색, 검은색, 파란색 포장지 금기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히 볼 수 없는 신기한 것에 의미를 둠 • 생(生)의 근원이라 하여 분수, 우물 등 선호

자료 : 서산시(2013),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단계별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

(2) 해양 주제의 국제수준 이벤트 발굴·육성과 마케팅 강화

서해안에서 개최된 국제수준의 이벤트와 지역축제로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회(태안)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 축제는 보령머드축제가 있다. 2002년과 2009년에 개최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같이 충남 서해안의 화훼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국제공인 꽃박람회로 개최되었다. 보령머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축제 평가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치스에서 열린 세계 축제협회(IFEA World)로부터 5년 연속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상을 수상하였다.

서해안 지역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규모의 이벤트의 발굴·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림 43] 보령 머드축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는 물론 양국간의 화합의

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서해안과 중국간 문화교류의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사례로 인천-중국의 날 문화관광축제는 인천의 특화된 축제로 중국 관련 최대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성숙된 문화축제로서 발전기반을 구축하며, 중국의 전통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유학생 및 예술가와의 직접적 문화교류와 함께 국내 거주 중국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44] 인천 중국문화관광페스티벌

중국인 문화축제는 중국과 더불어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거주민을 활용하여 주요 테마 및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계획한다. 축제를 통한 지역민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메인테마를 중국인으로 선정하여 중국인이 선호하는 숫자를 테마로 부각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8을 테마로 채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가정 측면을 서브-테마로 부각시킨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구상은 우선 축제명과 일자를 중국인이 선호하고 상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좋아하는 '8'이라는 숫자가 짝수로 겹치는 8월 8일을 축제일로 정하며 축제명도 쌍팔일(双八日·雙八日)로 지정하여 쌍팔일(雙八日) 축제로 개최하여 서해안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5] 남당 대하축제

이는 충남 서해안에서 친중국 정책을 통한 존재감과 가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 서해안 관광브랜드를 개

발하고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 목적지로서의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율 주도형 소축제 활성화와 거리퍼레이드의 발굴 개최한다. 자율주도형 소축제로는 서해안의 ‘Sea food’를 주제로 항구도시나 관광도시에서 추진한다. 이는 시기별로 장소별로 특산물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지역 특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최한다. 충청남도 해안 대상지에서 먹거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소규모 축제의 개최시기를 고려한 ‘서해안 Sea Food 페어’를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당진, 서천 등 기존 지역축제를 서해바다와 갯벌 등을 대상으로 ‘1년 내내 먹거리 축제가 이어지는 서해안’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릴레이형식의 Sea Food 테마의 소축제를 신규 개발한다, 그리고, 서해안의 지형적 입지를 활용한 해양스포츠와 갯벌, 항포구, 일출과 일몰 등 새로운 해양축제도 발굴·개최한다.

〈표 71〉 태안 비치 페스티벌(예시)

부 문	내 용	
행사명	• 태안 비치 페스티벌	
내 용	• 해수욕장별 특색있는 주제로 가지고 전체 해수욕장에서 동시에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문화행사를 개최	
장 소	• 태안 전 지역 해수욕장	
시 간	• 7월 말 또는 8월 초	
핵심 프로 그램	• 수영복 퍼레이드	• 수영복 패션쇼, 수영복 거리퍼레이드, 세계의 수영복, 수영복 역사 퍼레이드 등
지원 프로 그램	프로그램명	설 명
	• 인라인 스케이팅	• 해안관광도로를 활용한 대회
	• 태안 바다 3종 경기	• 핀수영, 해변 단축마라톤, 해변자전거 등의 종목을 활용한 선수종목과 일반인 참가 종목으로 구성
	• 해안레저스포츠대회	• 요트, 카누,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해상레포츠 대회, 무료해안레포츠 교실, 무료체험 등
	• 비치발리볼, 모래축구 등	• 모래사장에서 할 수 있는 구기종목으로 선수들 참가종목과 일반인 참가종목을 구분하여 진행
	• X-game 장	•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X-game 대회 개최
	• 모래조각전	• 대형모래조각전, 야간모래축하공연, 빛과 모래의 만남, 살아있는 모래조각, 조각퍼포먼스 등
	• 해옥세상	• 해옥얼굴 만들기체험, 해옥건강발마사지체험, 해옥건강 음식 만들기 등

자료 : 태안군(2004),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신규 축제의 개발 사례로는 ‘태안 비치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참가가 가능한 해변스포츠 대회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태안에 있는 각 해수욕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동시

에 분산하여 개최한다. 해수욕장의 개장을 시점으로 하는 개최와 해수욕장의 성수기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인들에게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종목에 대한 참가와 무료강습회, 무료체험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태안 건강 바다 음식 축제(Sea food festival)’ 사례로는 태안에서 많이 재배되는 마늘, 생강과 같은 농산물과 꽃게, 대하, 젓갈 등의 해산물을 결합하여 건강을 주제로 한 바다 음식축제를 개최한다. 김장철 수요가 많아지는 양념류와 젓갈류 판매 증대 및 태안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개발하는 장소로 활용한다.

〈표 72〉 태안 건강 바다 음식 축제(예시)

부 문	내 용	
행사명	• 태안 건강 바다음식 축제	
내 용	• 태안에서 많이 재배되는 마늘, 생강 등의 양념류와 다양한 젓갈류 및 해산물을 활용한 건강음식 축제	
장 소	• 영목항, 안흥항, 백사장항	
시 간	• 10월 말	
프로 그램	프로그램명	설 명
	• 건강음식 경연대회	• 음식점 및 요리학원의 참가 및 수상자 선정 후 인정서 발급
	• 김치속 만들기 체험	• 양념과 젓갈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사전 참가신청 후 프로그램 참가
	• 건강음식 요리 교실	• 전통적인 음식들의 궁합과 체질에 맞는 음식 등에 대한 교실
	• 젓갈 음식 만들기 체험	• 젓갈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 맨손으로 활어 잡기	• 싱싱한 태안의 해산물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공간에 활어 잡기와 대하 잡기 및 껍질 까기 등의 프로그램
	• 공연프로그램	•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풍어제 등 민속공연 실시
	• 전시프로그램	• 젓갈류 전시 및 건강음식 전시

자료 : 태안군(2004),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사 개최를 통해 충남 서해안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행사 개최로 ‘머드 엑스포’, ‘국제 해양스포츠 제전’, ‘2030 국제생태산업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발돋움한다.

4) 지역의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

(1) 지역기반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산업화

충남지역에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물, 토속음식은 다종다양하며, 이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들 중에는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보다는 지역특산물, 농수산물특산물, 토속음식 등이 많으며, 가공이 된 것과 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관광상품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서해안의 지역특산물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46] 보령머드 상품

지역특산물은 대부분이 민속주, 가공농수산물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쌀, 버섯, 과일, 양념채소, 민물장어, 대하, 꽃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속음식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앞의 농수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물이 지역의 맛을 전하고 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남의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서해안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 및 특산물은 농수산물과 토속음식 등 상품의 포장과 운송이 불편한 것들은 생산지와 생산지의 시내일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공과 운송이 가능한 것들은 생산지와 시내일원,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홍성 광천의 김과 젓갈류, 대천의 꿀과, 김류, 서천의 한산소곡주와 건어물류, 서산의 생강, 마늘, 한과 등, 당진의 야콘, 쌀, 아산의 연잎차, 연잎국수, 태안의 고구마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그 상품의 특화방법과 진공포장 시설 도입 등의 판매방법 등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것을 지역의 이미지화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47] 서천 한산소곡주 상품

〈표 73〉 주요 지역특산물 현황

구 분	관광기념품	민예품 /공예품	지역특산물	농수산물	토속음식
보 령	남포벼루		남포오석, 대천맛김,	청라양송이, 만세보령청결미, 꽃게, 오징어, 방울토마토	꽃게매운탕, 천북석굴구이,
아 산			엽연주, 선장김치	탕정포도, 오이, 아산청결미, 배, 도고쪽파, 사과	콩나물비빔밥
서 산			간월도어리굴젓	육쪽마늘, 생강, 서산간척지쌀, 꽃게	
서 천		부채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삼선갈꽃비, 서천자하젓	서천단감	
홍 성		지승공예	광천토굴새우젓 (서해수산젓갈), 조선김	영지버섯, 은하방울토마토	홍동한우갈비, 대하구이
태 안		태안해육	정산포돌김, 까나리액젓	대하, 육쪽마늘, 화훼, 안면도건고추	낙지와 낙지탕
당 진			면천두견주	파리고추, 당진쌀	

주 : 지역특산물과 농수산물특산물의 구분은 가공여부에 따라 구분

서해안 지역에 지역기반 관광사업체육성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유치를 위한 관광명품 사업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및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개 시·도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설치 지원, 한국관광명품관 운영 활성화 및 확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관광 콘텐츠 확충 및 음식관광 상품 개발 ·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음식재료 채집활동(산채, 어류 등), 불교생활체험(사찰음식), 시골장터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음식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음식관광의 콘텐츠 강화에 중점 하여 상품 개발 · 지원과 먹거리와 볼거리를 결합한 복합 상품 개발 및 다양한 외국인의 음식취향과 기호를 반영하고, 사찰음식 등의 선식과 해안의 수산물 등을 활용한 전통음식 등의 음식을 한

국 대표음식으로 육성한다.

특히, 해산물 관련 미용식, 웰빙식 등 고급 테마음식 상품을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한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맞는 상품구성으로 여행사,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 언론인과 대사관 직원 등을 초청해 팸투어 실시하고, 테마음식상품에 대한 각 지자체 및 여행사에서 팸투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음식관광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나 또는 서해안 거점관광도시의 시·군에 음식관광산업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한다. 지역음식 서비스의 표준화, 외래 관광객 입맛에 맞춘 퓨전 메뉴 개발·보급 등 음식 관광 활성화의 단기개선 사업 담당과 중기적으로는 음식관광 전문업소 평가 인증 및 홍보, 지역음식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보급 등을 통해 서해안을 음식관광의 목적지로 포지셔닝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에서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음식체험관광 진흥협의회' 등 홍보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서해안의 특색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여토록 한다.

또 다른 지역 관광산업으로는 저탄소 녹색관광산업의 육성과 녹색체험관광의 업그레이드 통한 6차산업의 육성이다.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민



[그림 48] 충남 무창포어촌체험마을
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서해안에는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어촌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이외에도 어촌휴양단지 조성,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지역특산어류 전시관 건립,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그 동안 추진되어 왔다.

충청남도 녹색·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 사업으로는 녹색체험관광 통합운영체계 및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다. 농촌관광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맞추어 체험마을별로 운영과 홈페이지가 개별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해안권 시·군, 또는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관광소권역별 통합 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농촌체험관광 운영체계와 네트워크는 지역에 따라 특화된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체험마을별 특성을 살리는 한편, 집중화를 통해 관광객 등 관광객들에게 체험관광명소를 한 눈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산어촌의 농촌체험관광은 서해안의 관광거점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루트를 개발

하고, 이들 루트는 역사문화, 사찰, 이야기, 예술, 교육, 체험, 교통 등 테마형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최근의 관광트랜드에 맞추어 3촌 체험관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한다.

국내 관광의 주요 형태가 명승지·전학 등 단체 관광형태의 대중관광(Mass Tourism) 위주에서 산업현장체험, 자연·생태관찰, 전통문화체험 등 가족관광 형태의 다양한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즉, 공정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다. 농산어촌은 자연자원의 생태적·환경적 가치, 친환경 농산물과 건강식품의 생산, 도시민에게 새로운 휴식과 여가의 공급, 어메니티가 풍부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 등 다양한 감동과 재미, 공익적 기능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교류 인구 증가는 농촌의 활력회복과 농가 소득증대



[그림 49] 농촌체험

등을 향상시키고 정보·경제·사람을 소통시켜 결국 단절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충남 서해안의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시설인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농어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은 공정여행지로서 가치를 가지면서 직접 지역주민과의 만남여행을 할 수 있으므로 ‘충남의 3촌 체험마을의 공정여행 상품’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환경·어메니티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농어촌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간 교류를 통한 농어촌관광은 농어촌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마음의 접촉, 사람들간의 교류를 중시하는 개발을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람과 지역이 공생(共生)하는 농촌’을 지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저변확대를 위해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사1촌 운동의 내실화, 청소년의 농촌체험 기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체험마을과 연계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생활밀착형 농어촌 신문화공간을 조성 등 특색 있는 농어촌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체험마을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교환, 공동 마케팅 및 자율적 품질관리 등을 추진하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역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 관광사업 시설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과 이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해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도 체험관광을 6차 산업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충남 농어촌 대표관광 명소 Rural Top-10 프로젝트 추진과 팜스쿨, 농촌유학사업, 기업과 마을이 1사1촌 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히, 서해안 지역의 농어촌 지역도 이에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2) 지역 관광산업의 서비스 역량 강화

서해안 지역에서는 2009년에 태안, 보령 등 서해안 인접 6개 시군의 민간 관광분야 종사자들 즉, 민간 종사자로서 음식점, 민박업소 등 주로 해수욕장 번영회, 관광지 상가번영회 회원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내외 관광지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여행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사례 중심의 특강과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방안과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서천군은 생태녹색관광 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된 해설사를 각종 축제 및 향후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생태 녹색관광 해설사를 위한 기초 및 실무교육, 서천군 문화·환경·군정 및 관광 분야 등을 교육하고 있다. 서천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 농촌관광해설사 등을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 수료 후 한국관광공사와 서천군수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하였다. 또한 서천군은 2009년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 농업과 농촌, 체험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천군 농촌관광협회는 서천군농업



[그림 50] 서천군 농촌체험관광 교육

기술센터의 후원을 받아 지역의 농촌체험관광 안내와 홍보, 행사진행 등을 전담할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는데, 교과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각 체험마을에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나뉘 이론교육은 전문적인 해설기법을 비롯해 지역의 농업·농촌·문화·역사, 프로그램기획 등이며 농촌체험마을·체험학습농장·문화유적지·서천8경 탐방 등의 현장실습도 실시하였다. 서천군에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농장은 25개소에 이르지만 마을과 농장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의 개인차가 커 프로그램기획과 관리, 운영의 표준화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촌체험관광 해설사는 신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전문 해설사 ID카드를 교부받아 각 지역의 농촌체험마을과 체험학습농장 등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태안군에서는 2009년 농업기술센터는 한서대학교와 공동으로 농촌관광 전문인 양성교육으로,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특성에 맞게 생활과학 교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장별 채집 가능한 과학표본 확보요령 및 전시표본 실습 요령 등을 교육하였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지역 관광업체와 인력양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남은 충남관광아카데미를 통해 통합 운영하여 민간관광자율조직과정과 농촌(생태)관광과정, 도·시·군 관광공무원 과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 별로 좀 더 세분화 및 전문화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관광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충남도와 각 시·군별 교육과 농촌체험관광 리더 및 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생태해설사 등의 다양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분야별 교육 및 자격증 수여,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대한 통합적 인력양성과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1]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아카데미

이를 위하여 충남관광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한 교육 주체와 대상별 통합적 인력양성과 운영체계 구축하고, 충남 관광아카데미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아

가 한국관광공사·충남관광협회 연계 관광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체종사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7년 신규과정 개발로 총 16개 교육과정 운영하고, T2아카데미 교육장을 개소하여 관광업계, 지자체 및 관광분야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2]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 교육

- 한국관광공사의 지자체 관광인력 및 종사원 교육은 6개 과정
 - 문화관광축제담당공무원교육으로 지역자원의 관광축제화 방안
 - 관광개발담당공무원교육으로 관광지개발 사례 분석
 - 관광홍보마케팅과정으로 홍보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 E-tourism 전문가과정으로 IT 및 인터넷 트렌드 교육
 - 관광안내원직무교육으로 기초 및 심화과정 분리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실무교육으로 관광해설기법심화과정 등
- 6개 과정의 관광업계 종사원 교육
 - 관광통역안내사교육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교육
 -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으로 안내해설기법 및 궁중회화의 이해
 -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으로 국외여행 인솔 실무교육
 - 명예통역안내원소양교육으로 한국전통문화 및 현장실습교육
 - 호텔리어서비스실무교육으로 고객감동전략 및 이미지메이킹 교육
 - 국내여행안내사교육으로 전문해설기법 및 현장교육
- 4개 과정의 테마별 전문가 교육
 - Medical Tourism 과정으로 전문적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 템플스테이전문가교육으로 한국불교 및 사찰이해, 템플스테이 체험
 - 생태관광가이드교육으로 생태관광가이드의 전문해설역량향상교육
 - 농촌관광리더교육으로 농촌관광성공사례분석 및 체험프로그램

이와 같이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 축제·개발 담당공무원 교육, 지자체 관광홍보마케팅 교육, 관광안내소 직원 직무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기초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국내여행안내사·문화관광해설사 실무교육, 명예통역안내원 소양교육, 호텔·숙박업 종사원 및 음식점 업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서해안지역의 관광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3) 서해안 해양관광 거버넌스 구축 운영

서해안은 충청남도의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서천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이 위치한 공간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관광자원의 경우 해양자원과 불교자원, 산악자원, 천주교 성지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원의 지명도에 따라 각 시군이 통합한 대표자원을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이 관광개발에 있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해안 범위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개발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충남 서해연안 관광개발 협력방안으로는 ‘서해연안 관광발전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는 서해연안 7개 시군의 경우 각각 관광협회, 지자체의 관광관련 부서 등이 있으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동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외래관광객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유치전략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공동마케팅사업전개, 서비스 향상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설기구로서 (가칭)[서해연안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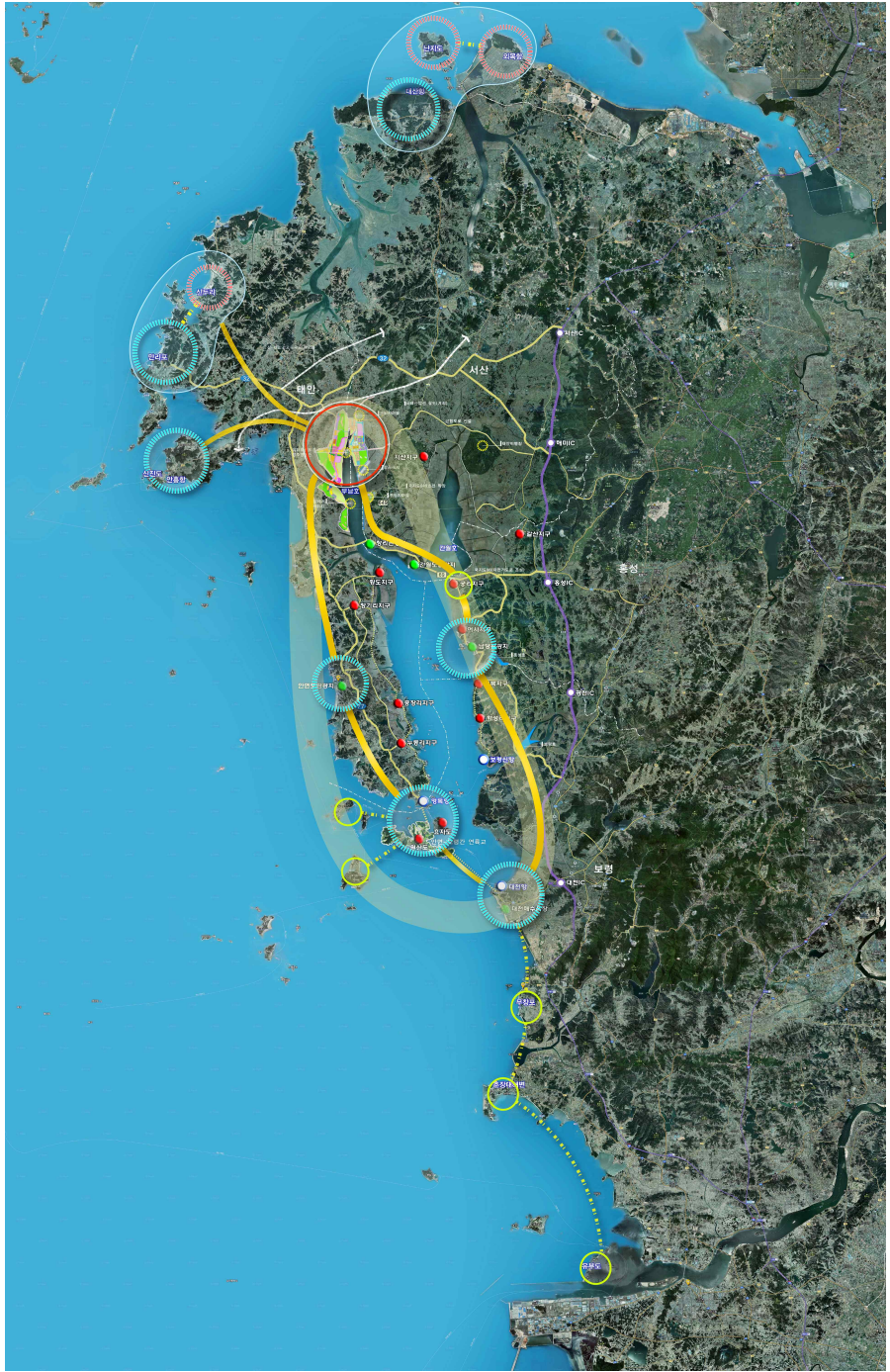
특히, 서해안의 관광협력사업으로 통일된 느낌의 관광안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해안의 7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상품·여행상품에 대한 판매 및 홍보에 있어 통일된 느낌의 관광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된 CI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여행안내판, 여행브로셔, 관광안내지도, 자원해설판 등에 색채나 로고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분하여 관광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행상품 홍보에 있어서는 통일된 느낌의 관광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7개 시·군에서 공동의 여행홍보 관련책자 발간, 각 관광지간의 할인 서비스, 각 지역 특산물 공동판매장의 설치와 운영, 7개 시·군에서만 제작·판매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의 기념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74〉 서해연안 관광발전협의회 공동추진 내용

기 능	내 용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 • 관광관련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 • 관련 부서간 업무지원 및 조정 • 서해연안 관광발전 협의체 구성및 행정지원 등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상징물 및 슬로건 발굴 • 관광정보 및 광고 홍보체계 구축 • 전문관광요원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신규관광시설 공동 개발 •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 국제적 이벤트 유치 • 민자(외자)유치 방안 강구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시설 확충 및 상품의 특성화 전략 • 숙박시설 확충 및 차별화 전략 • 향토음식 개발 및 식당의 전문화 방안 • 업종별 상호간의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
관광코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광역권 관광루트 개발 • 시티투어 개발 • 교통수단의 다양화 및 연계체계 구축방안

자료 : 이인배(2004), 충남 서해연안 관광자원 이용의 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그림 53] 전체 계획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레저지향의 경향이 증대되면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계절적으로 7-8월 하절기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보령, 당진을 중심으로 관광객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태안의 경우 유류피해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충남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절별, 지역별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거점지역 육성과 지역별 차별화된 기능 배분 및 지역별 연계를 통한 관광매력성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관광에 치중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충남이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매력물을 조성해야한다.

따라서 충남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고 충남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성 높은 특화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거점을 조성하여 충남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해양관광지역의 여건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양관광테마의 발굴과 지역별 해양관광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활용 및 해양관광 거점지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지역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된 해양관광자원의 네트워킹과 벨트화를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양관광정책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1) 이론 및 정책의 검토

해양관광 관련 이론 및 정책의 검토에서는 먼저 해양관광과 거점관광 관련 이론으로 해양관광의 개념, 해양관광의 특성, 해양관광지의 개념과 개발형태, 해안관광지의 형태별 개발방향과 거점관광 관련 개념으로 관광개발의 개념과 접근방법, 거점관광개발 체계와 목표,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 설정, 관광거점개발 모형의 구성, 관광거점의 의의와 성공요인, 거점관광개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해양관광 현황 및 전망에서는 유형별 해양관광자원 현황으로 해양의존형, 해양연관형 현황을 검토하였고 해양관광객 현황으로 국내 해양관광객 현황, 주요 분야별 해양관광객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해양관광 정책과 법규 검토로 해양관광 정책동향과 분야별 정책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해 정책들이 ① 개발영역의 다원화, ② 추진방식의 전환, ③ 다부처의 사업 진출, ④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정비 등의 정책 동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양관광 관련 계획 검토를 위해 해양개발기본계획(2000~2010), 해양 관광진흥 기본계획(2004 ~ 201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 ~ 2023),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 ~ 2020) 등을 검토하였고 해양관광 관련 법규로 먼저 유형별 법률 검토, 소관부처별 법률 검토를 통해 해양관광 관련 주요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양관광 사례분석으로 세계에서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멕시코 칸쿤, 랑그독루시옹, 카프리, 산토리니 등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충남 해양관광 실태와 과제

충남 해양관광 실태와 과제 분석을 위해 먼저 충남 해양관광자원 및 개발현황으로 해양관광자원으로는 자연관광자원으로 해안 및 도서 현황, 자연공원, 해수욕장, 특히 해양관광자원, 지역 관광자원을 살펴보고 기타 관광자원으로는 문화재 현황, 자연휴양림, 축제, 어촌체험마을, 관광기반시설 조사하였고 관광지 현황으로 지정관광지, 관광특구를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관광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해양관광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로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1989),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1, 2008, 2011), 제5차 충남권관

광개발계획(2012)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관광의 발전 과제로 첫째,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유지, 둘째, 거점 해양관광지 개발과 주변 연계 발전 방향 모색, 셋째,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 구축, 넷째,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섯째,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 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3) 충남 서해안 거점관광과 관광벨트 육성 전략

먼저 접근개념과 추진방향으로 충남 해양관광의 목표를 선택(보전)과 집중(개발)에 따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으로 해양자원과 환경, 그리고 관광이 병행하는 최적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역의 잠재자원을 국가정책과 연계시킨 관광상품화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을 지역관광의 거점 기능으로 육성시켜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 1) 관광거점과 주변 연계 관광지구 조성, 2) 서해안 생태체험과 해양체험 관광벨트와 네트워크 구축,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의 구축, 4) 지역의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별 주요정책 및 시책추진 방안으로 1) 천수만 거점관광지대 및 관광지구 조성으로 천수만 서해안 거점관광지대와 관광지 조성, 천수만 거점관광지대의 관광지별 도입기능과 개발방향으로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 및 천수만 서측 신규지구 개발구상,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 및 원산도 지구 개발구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 생태·해양·역사문화 관광벨트와 관광명소 육성으로 천수만·비인만지역 생태체험 관광벨트화, 삼교호지역의 해양체험 관광벨트화, 내포문화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벨트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의 구축으로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방안으로 ① 다양한 체류형 숙박시설의 구축, ② 중국 등 외국인 관광거리 조성, ③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 ④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음식점 선진화, ⑤ 중국 등 외국인 대상 쇼핑시설 및 재래시장 육성, ⑥ 서해안 관광 홍보 및 프로모션 전개와 선호 관광상품 제공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해양 주제의 국제수준 이벤트 발굴·육성과 마케팅 강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내부역량과 내발적 사업 추진체계 강화방안으로 지역기반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산업화, 지역 관광산업의 서비스 역량 강화, 서해안 해양관광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와 관련된 주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관광이라는 주제로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해양관광지를 거점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개발하자는 것인데, 관광지 개발이 단계별 추진체계·지원제도·재원확보 방안 등의 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문제·과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지 개발의 특성상 민간부분에서의 개발이 주가 되는 부분으로 공공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지의 경우 과거 해수욕장과 수산물 시식의 단순한 관광 형태에서 다양한 해양관광지 개발로 변해가는 과정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실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각의 해양관광지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해안 해양관광지의 조성이 상당히 진행되고 각종 해양관광지의 개발과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에서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2010),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재정리.
-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 김남조(2004), 전략적 관광거점의 개발 방향과 과제, 『문화관광의 눈으로 본 국가균형발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병문(1998), 『관광자원학』, 백산출판사.
- 김사영(1996), 거점관광개발 모형설정 연구, 『관광학연구』, 20(1):221-241.
- 김성귀(2007),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관광론, 현학사.
- 김성귀(2006),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과 과제,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6호.
- 김성진(2009),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안지역의 특성 및 관광요소별 중요도 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준(2007),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과개발 사례연구(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 김혜영(2008),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지 개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200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차 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6),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06),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국관광공사(2005), SECRETARIA DE TURISMO.
- 문화관광부(2006), SECRETARIA DE TURISMO.
- 서산시(2013), 서산 대상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단계별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
- 성기만(2002), 국내 해양관광지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동주 · 손재영(2007),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여건분석과 정책과제, 『해양정책연구』, 22(2), pp.1-27.
- 신동주 · 신혜숙(2005), 『해양관광개발론』, 대왕사.

전북발전연구원(2008), 전라북도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양위주(1998), 우리나라의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연안역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10권 제1호.

이영진(2009), 해양 레저관광행동 영향요인 구조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배(2004), 충남 서해연안 관광자원 이용의 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한국관광공사(2005), 보전형 섬 관광개발 방안.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운조합(2013),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3),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해양관광실태조사 인용 추정.

해양수산부(2006), 해수욕장 유형별 관리·평가모델 개발연구, p.11.

해양수산부(2014),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해양수산부(2000),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p.20.

해양수산부(201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p.12.

충청남도(2014), 충남관광기본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충청남도(2014), 충남도정백서.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최도석·유정우·최윤찬(2011), 부산의 해양관광산업 특화 육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최승담·조광익(1997), 지역관광개발과 거점개발전략 ; 강원도 지역에의 적용, 『관광개발논총』, 6(1): 171-187.

태안군(2004),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